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문법 평가원 기출문제

I. 관어

KOREAN
GRAMMAR

기초교육그룹X잇을 설승환

1-(1) 품사 기출문제 [1~23번]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3번

1.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국어에서는 의존 명사가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수효나 분량 따위의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자립 명사로 쓰이기도 하지만 수량을 표현하는 말 뒤에 쓰여 사람을 세는 단위를 나타낼 수도 있다.

- 의존 명사 : 그 아이는 올해 아홉 살이다.
- 자립 명사 : 그는 사람을 부리는 재주가 있다.
- 자립 명사가 단위를 나타내는 경우 : 친구 다섯 사람과 함께 도서관에 갔다.

- ① 이 글에는 여러 군데 잘못이 있다.
- ② 앉은자리에서 밥 두 그릇을 다 먹었다.
- ③ 시장에서 수박 세 덩어리를 사 가지고 왔다.
- ④ 할아버지께서는 밥을 몇 숟가락 겨우 뜨셨다.
- ⑤ 나는 서너 발자국 뒤로 물러서다가 냇다 도망쳤다.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3번

2. <보기>의 ㉠에 해당하는 것은?

<보 기>

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 그러나 ‘극비리’는 ㉠ 원칙적으로 ‘에’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 ‘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처럼 사용되고, ‘극비리가’, ‘극비리를’, ‘극비리의’, ‘극비리에게’, ‘극비리이다’처럼 사용되지 않는다.

- 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
- ② 이 판국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
- ③ 선생님 덕분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4번

3.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보 기>

대명사는 인칭에 따라 ‘나, 우리’와 같은 1인칭, ‘너, 자네, 그대’와 같은 2인칭, ‘이분, 그분, 이이, 그이’와 같은 3인칭으로 나뉜다. ㉠ 그런데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형태가 1인칭, 2인칭, 3인칭 중에서 두 가지 인칭으로 쓰이기도 한다.

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2인칭)
 나. 할머니께서는 당신이 젊었을 때 미인이셨다. (3인칭)

- ① 가. 그 일은 저희들이 마저 하겠습니다.
 나. 애들이 어려서 저희들밖에 모른다.
- ② 가. 그렇게 말하는 너는 누구냐?
 나. 누구도 그 일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 ③ 가. 그는 참으로 좋은 사람이다.
 나. 그와 같은 사실에 깜짝 놀랐다.
- ④ 가. 너희를 누가 불렀니?
 나. 나는 너희 학교가 마음에 든다.
- ⑤ 가. 우리 먼저 갈게요.
 나. 우리 팀이 그 대회에서 우승했다.

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1번

4. <보기>의 예를 통해,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보 기>

㉠ 내가 부탁 하나 할게요. ㉡ 나는 ㉢ 그쪽에서 ㉣ 우리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 이걸 ㉤ 아버지의 뜻이기도 하답니다. 아버지께서는 ㉥ 당신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 ㉦ 당신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

- ① ㉠과 ㉡을 비교해 보니 ㉠은 ‘나의’를 줄인 말이겠군.
- ② ㉢과 ㉣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
- ③ ㉤은 ㉡과 ㉣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
-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뀌어야 해.
- ⑤ ㉥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자기’로 바뀌어야 해.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B형 14번

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안녕? 어,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
 학생 : 네,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 ㉠ 이것도 ㉡ 그것 중 하나예요.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 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
 선생님 : 그렇구나. ㉣ 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 우리 아이들은 ㉤ 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웅다웅한다.

- ① ㉠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
- ② ㉡은 앞서 언급한 대상,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
- ③ ㉢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 ④ ㉣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2번

6. 다음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국어의 조사 중에는 결합하는 앞말과 다른 말과의 문법적인 관계를 표시하는 격 조사와 특별한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가 있다. 격 조사는 특정한 문장 성분에만 쓰인다. 가령 주격 조사는 주어에, 목적격 조사는 목적어에 쓰인다. 반면 보조사는 하나의 문장 성분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장 성분에 쓰일 수 있다.

- ① '삼촌이 밤에만 글을 썼다.'에서의 '만'.
- ② '선수들이 오늘은 간식을 먹었다.'에서의 '은'.
- ③ '내가 친구한테 가방을 선물했다.'에서의 '한테'.
- ④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악기도 연주했다.'에서의 '도'.
- ⑤ '누나가 일기를 책으로까지 만들었다.'에서의 '까지'.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2번

7.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 중 '-마는'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보기 1>

○ '-마는' : 몇몇 종결어미 뒤에 붙는 보조사로서, '-만'으로 줄어들 수 있다.
 ○ '-만은' : 보조사 '-만'과 '-은'이 결합한 형태로, 어미뿐만 아니라 체언이나 조사 뒤에도 붙는다.

<보기 2>

○ 여행을 가서(㉠) 현실의 문제를 잊어버리자.
 ○ 오늘은 그냥 간다(㉡) 다음에 꼭 다시 오리라.
 ○ 봉오리가 맺힌 가지(㉢) 꺾지 않도록 조심하렴.
 ○ 얼마나 되겠느냐(㉣) 살림에 보태어 쓰려무나.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3번

8. 국어 수업 시간에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요'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았다. 탐구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철수야, 어디로 갈까?
 ○ 선생님, 빨리요.
 철수야, 빨리.
 ○ 더우면요 창문을 열까요?
 더우면 창문을 열까?
 ○ 마음은요 더없이 좋지요.
 마음은 더없이 좋지.

- ① '요'가 빠져도 문장이 성립하는구나.
- ② 생략되더라도 존재 여부만 달라지는구나.
- ③ '요'가 붙어도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 못하는구나.
- ④ 종결 어미 뒤에 쓰일 때만 듣는 사람을 존대하는구나.
- ⑤ 주어나 부사어,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뒤에 나타나는구나.

2009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9. <보기>는 동화의 첫 부분이다. ()의 조사를 선택한 후, 조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 토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옛날 어느 마을에 한 할아버지(㉡) 살고 있었습니다. ㉢ 할아버지(가)㉣ 동물을 좋아했습니다. 특히 개와 고양이를 키여워했지요. ㉤ 그러나 돼지(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 할아버지에게(㉧도) 말썽꾸러기 돼지 한 마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 말썽꾸러기 돼지(가)㉩ 다른 동물들과 달랐습니다. 개처럼 말을 잘 듣지도 않았고, 고양이처럼 애교가 많지도 않았습니다.

- ①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이야기에서 처음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② ㉢에서는 주어 ‘할아버지’가 앞 문장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③ ㉤에서는 목적어 ‘돼지’를 다른 동물과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해.
- ④ ㉥에서는 앞 문장에 ‘할아버지’가 ‘돼지’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해.
- ⑤ ㉧에서는 앞 문장에 ‘말썽꾸러기 돼지’가 나오고, 뒤 문장에 다른 동물과의 차이점이 소개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해.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3번

10.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에 대해 탐구 학습을 해 보았다. 학습의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할머니께서 집에 오셨다.
 ㄴ. 형과 동생이 다시 만났다.
 ㄷ. 나와 나만의 추억을 간직하자.

- ① ㄱ의 ‘께서, 에’는 앞말이 각각 주어, 부사어의 역할을 하도록 하고 있군.
- ② ㄱ의 ‘께서’에는 ㄴ의 ‘이’와 달리 존대의 의미가 담겨 있군.
- ③ ㄴ의 ‘이’는 ‘동생’이 아니라 ‘형과 동생’에 결합하는군.
- ④ ㄴ의 ‘과’와 ㄷ의 ‘와’는 앞말의 의미에 의해 선택되는군.
- ⑤ ㄷ의 ‘만의’를 보면 조사끼리의 결합도 가능하군.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33번

11. <보기 1>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 2>의 ㉠과 쓰임이 유사한 것은?

<보기 1>

<보기 2>의 ㉠은 문장에서 자립적으로 쓰여 서술어 기능을 한다. 그러나 ㉡은 혼자서는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다른 용언의 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여 주는 ‘보조 용언’ 기능을 한다.

<보기 2>

- 악기가 ㉠ 내는 소리의 식별 가능한 독특성인 음색은 부분 음들로 구성된 복합음의 구조, 즉 부분음들의 진동수와 상대적 세기에 의해 결정된다.
- 19세기 음악 평론가인 한슬리크에 따르면, 음악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은 음들이 ‘울리면서 움직이는 형식’에서 비롯되는데, 음악을 구성하는 음악적 재료들이 움직이며 만들어 ㉡ 내는 형식 그 자체를 말한다.

- ① 그 일을 다 해 버리니 속이 시원하다.
- ② 그는 친구들의 고민을 잘 들어 주었다.
- ③ 내일 경기를 위해 잘 먹고 잘 쉬어 뒤라.
- ④ 그는 내일까지 돈을 구해 오겠다고 큰소리를 쳤다.
- ⑤ 일을 추진하기 전에 득실을 꼼꼼히 계산해 보고 시작하자.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3번

12.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보조 용언 구성 ‘-고 있-’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민수는 지금 떡국을 먹고 있다.

(나) 선생님은 너를 믿고 있다.

(다) 지혜는 모자를 쓰고 있다.

(가)에서처럼 ㉠ ‘어떤 동작이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처럼 ㉡ ‘어떤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고 있-’은 ‘-는 중이-’로 교체하여도 ㉠의 의미가 유지되지만, (나)의 ‘-고 있-’은 교체하면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되거나 ㉡의 의미가 유지되지 않는다. 한편 (가), (나)에서는 특정한 문맥이 주어지지 않아도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있는 데 반해, (다)에서는 문맥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으면 ‘-고 있-’이 ㉢ 두 가지 의미 모두로 해석될 수 있다.

- ① ㉠ [A : 아빠 들어오실 때 형은 뭐 하고 있었니?
B : 형은 양치질을 하고 있었어요.
- ② ㉡ [A : 오빠가 너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B : 오빠는 지금 날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 ③ ㉢ [A : 내일이 고모님 생신이라고 하네.
B : 아, 나 그거 이미 알고 있어.
- ④ ㉣ [A : 너 안경 잃어버렸다면? 괜찮아?
B : 눈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안경 벗고 있어도 괜찮아.
- ⑤ ㉣ [A : 저 중에 신입 사원이 누구야?
B : 저기에 있잖아. 벡타이를 매고 있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39번

13. <보기>의 밑줄 친 ㉠의 어간 ‘불구하-’는 일부 어미와만 결합한다. 이와 같은 용언이 아닌 것은?

<보 기>

결과적으로 최종 판단 시점에서는 실제로 그 이전까지의 사물의 모든 속성들이 이미 변했음에도 ㉠ 불구하고 그 속성들의 관념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며, 우리의 사고는 바로 그러한 관념들을 종합하여 지식을 구성하게 된다.

- ① 송아지가 애처롭게 울었다.
- ② 허구한 날 팔자 한탄만 한다.
- ③ 친구의 집은 막다른 골목에 있다.
- ④ 나는 서슴지 않고 계단을 따라 올라갔다.
- ⑤ 핵무기의 가공할 파괴력을 잘 알고 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2번

14.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어말 어미 ‘-았-/-었-’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

(가)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

(나) 들뜬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

(가)에서와 같이 ㉠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 (나)에서와 같이 ㉡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가)의 경우와 달리 (나)의 경우에는 ‘-았-/-었-’을 보조 용언 구성 ‘-아/-어 있-’이나 ‘-고 있-’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 또한 (다)에서와 같이 ㉢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

- ① ㉠ [A : 어제 뭐 했니?
B :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
- ② ㉡ [A : 너 아까 집에 없더라.
B :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
- ③ ㉢ [A : 감기 걸렸다면?
B : 응,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잡겼어.
- ④ ㉢ [A :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
B : 아주 나빴어.
- ⑤ ㉣ [A : 너 오늘도 바빠?
B : 응,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갔어.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15. <보기>의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종결 어미이다. <보기>를 바탕으로 종결 어미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얘기를 듣습니까? / 얘기를 듣소?
- 의자에 앉아라. / 빨리 밥을 먹어라.
- 날씨가 덥다. / 날씨가 덥지. / 날씨가 덥네.
- 비가 그치겠다. / 비가 그치겠니? / 비가 그치겠구나!
- 철수가 똑똑하다고 생각한다. / 누가 가느냐가 문제다.

- ① 문장의 시제를 표시하는군.
- ② 뒤에 조사가 연결될 수도 있군.
- ③ 진술, 의문, 감탄 따위를 나타내는군.
- ④ 듣는 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군.
- ⑤ 음운 환경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는군.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2번

16.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동사의 어간에 연결 어미 ‘-(으)며’가 결합할 때, ㉠ 앞 문장과 뒤 문장의 주어와 서로 같고, ‘-(으)며’를 연결 어미 ‘-(으)면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경우에 ‘-(으)며’는 앞뒤 문장의 동작이 동시에 일어남을 나타낸다.

예) 철수가 음악을 듣는다. + 철수가 커피를 마신다.
→ 철수가 음악을 들으며(들으면서) 커피를 마신다.

- ㉠ 우리는 함께 걸으며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 ㉡ 모두들 음정에 주의하며 노래를 제대로 부르자.
- ㉢ 아는 사람 하나가 미소를 지으며 내게 다가왔다.
- ㉣ 마라톤 선수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결승선을 통과했다.
- ㉤ 출근할 때, 일부는 버스를 이용하며 일부는 지하철을 이용한다.

201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2번

17. <보기>를 바탕으로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면서’와 ‘-자’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동수는 피아노를 치면서/*켰으면서 노래를 불렀다.
 ㄴ. 동수가 집을 나서자/*나섰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ㄷ. *동수가 집을 막 나서자 (동수는) 학교에 갔다.
 ㄹ. 동수는 상냥하면서/*상냥하자 차분하다.
 ㅁ. 동수야, 빵 먹으면서/*먹자 공부해라./공부하자./공부할래?
 ㅂ. 동수는 뉴스를 보지 않으면서 텔레비전을 켜 놓았다.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 ㄱ과 ㄴ을 보니, ‘-(으)면서’와 ‘-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와 함께 쓰일 수 없군.
- ㉡ ㄱ, ㄴ과 ㅁ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다양한 문장 유형과 어울릴 수 없군.
- ㉢ ㄴ과 ㄷ을 보니, ‘-자’로 연결된 문장은 앞뒤 주어와 달라야 하는군.
- ㉣ ㄹ을 보니, ‘-(으)면서’는 ‘-자’와 달리 형용사와 어울릴 수 있는데, 이 경우 ‘동시’와 ‘나열’의 의미를 모두 나타내는군.
- ㉤ ㅂ을 보니, ‘-(으)면서’가 부정 표현과 어울리면 ‘동시’의 의미를 나타내기보다는 그 행위를 하지 않음을 강조하는군.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18.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의 선택 기준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ㄱ.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갔다.
 ㄴ. 신간 도서를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가자.
 ㄷ. 동수는 책을 빌리(*러/려고/고자) 도서관에 예약을 했다.
 ㄹ. 영희는 그를 안 만나(*러/려고/고자) 집으로 돌아갔다.
 ㅁ. 지금 공원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러/려고/*고자)?
 *는 문법적으로 잘못된 것.

- ㉠ ㄱ과 ㄴ을 보니 해당 어미 뒤가 어떤 종류의 문장인지를 고려해야 해.
- ㉡ ㄱ과 ㄷ을 보니 해당 어미 뒤에 오는 서술어에 ‘이동’의 뜻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 ㄱ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의 부정문인지를 고려해야 해.
- ㉣ ㄱ과 ㅁ을 보니 해당 어미가 종결 어미로도 쓰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해.
- ㉤ ㄷ과 ㄹ을 보니 해당 어미 앞뒤 절의 주어와 같은지를 고려해야 해.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2번

19. <보기>를 바탕으로 어미를 분류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단어의 끝에 들어가는 어말어미는 그 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 문장을 끝맺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동생은 책을 읽었다.’의 ‘-다’
- ㉡ 두 문장을 연결해 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
 예) ‘이것은 장미꽃이고, 저것은 국화꽃이다.’의 ‘-고’
- ㉢ 용언을 명사, 관형사, 부사처럼 기능하게 하는 어미.
 예) ‘내일 읽을 책을 미리 준비해라.’의 ‘-을’

- ㉠ ‘지금쯤 누나는 집에 도착했겠구나.’의 ‘-구나’는 ㉠에 해당한다.
- ㉡ ‘할아버지께서는 어디 갔다 오시지?’의 ‘-지’는 ㉠에 해당한다.
- ㉢ ‘이렇게 일찍 가는 이유가 뭐니?’의 ‘-는’은 ㉡에 해당한다.
- ㉣ ‘형은 밥을 먹었으나, 누나는 밥을 먹지 않았다.’의 ‘-으나’는 ㉢에 해당한다.
- ㉤ ‘지금은 운동하기에 좋은 시간이다.’의 ‘-기’는 ㉢에 해당한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3번

20. <보기>의 ㉠~㉣에 쓰인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붙어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며 활용된다. 어미는 ㉠ 선어말 어미와 ㉡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다시 종결 어미, 연결 어미, 전성 어미로 나뉜다. 용언의 활용형에서 선어말 어미는 없는 경우가 있어도 어말 어미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민수가 그 나무를 심었구나!
 ㉡ 저기서 청소하는 아이가 내 동생이야.
 ㉢ 그 친구가 설마 그 음식을 다 먹었겠니?
 ㉣ 그가 나에게 권한 책은 이미 읽은 책이다.
 ㉤ 주말에 바람은 불겠지만 비는 오지 않을 것이다.

- ①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이 ㉠로 쓰였고, 감탄형 종결 어미 '-구나'가 ㉡로 쓰였다.
- ② ㉡에는 ㉠은 없고 동사의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는'이 ㉡로 쓰였다.
- ③ ㉢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었-'과 주체의 의지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의문형 종결 어미 '-니'가 ㉣로 쓰였다.
- ④ ㉣에는 ㉠은 없고 동사의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전성 어미 '-은'이 ㉣로 쓰였다.
- ⑤ ㉤에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는 '-겠-'이 ㉤로 쓰였고, 대등적 연결 어미 '-지만'이 ㉤로 쓰였다.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2번

21. <보기>를 통해 감탄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한 것은?

<보 기>

아 들 : 아버지, 저도 바둑을 배워서 명인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 : ㉠ 뭘, 명인이 된다고?
 아 들 : ㉡ 예, 그러니까 바둑판 하나 사 주세요.
 아버지 : ㉢ 글쎄, 사 줘야 되나?
 아 들 : 사 주세요, ㉣ 예?
 아버지 : 얼마 전에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해서 농구공을 사 줬더니 작심삼일이었잖아. 이번에도 흐지부지할거지?
 아 들 : 그런데, ㉤ 응, 작심삼일이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 그건 결심이 사흘을 가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아 들 :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를 거예요.
 아버지 : 명인이 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아 들 : ㉦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해 볼게요.

- ① ㉠은 더 이상 여러 말 할 것 없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군.
- ② ㉡은 긍정하여 대답하는 의미로, ㉢은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놀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군.
- ③ ㉣이 ㉠처럼 나타나는 것을 보면, 감탄사도 상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일 수 있군.
- ④ ㉤이 문장의 중간에 쓰인 것을 보면 독립어의 기능을 할 수 없겠군.
- ⑤ ㉥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나?”의 ‘아니’와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겠군.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60번

22. ㉠~㉣ 중, ‘는’의 쓰임이 다른 하나는?

- 호탕스럽게 ㉠ 놀았다고는 하여도 계집 하나 후려 보지는 못하였다.
- ㉡ 그렇다고는 하여도 꼭 한 번의 첫 일을 잊을 수는 없었다.
- 그렇다고 심증을 낼 수도 없었으나 허 생원은 시침을 빼고 되풀이할 ㉢ 대로는 되풀이하고야 말았다.
- 앞장선 허 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풍무니에 선 동이에게는 ㉣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는 그대로 개운한 제 멧에 적적 하지는 않았다.
- 아무렴 하고 응답하면서 말머리를 ㉤ 아끼는 듯이 한참이나 담배를 빨 뿐이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2번

23.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들'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

—<보 기>—

- 들⁵ 【조사】 (체언, 부사어, 일부 연결 어미, 합성 동사의 선행 요소 및 문장의 끝 따위의 뒤에 붙어) 그 문장의 주어가 복수임을 나타내는 보조사.
- -들⁹ 【접사】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어머니 : ㉠ 어서들 오세요. 차를 준비할 동안 거실에서 말씀들 나누고 계세요.

손님 1 : 좀 전에 ㉡ 밖에서들 마시고 왔으니 그냥 앉으세요.

손님 2 : 그래요. 그런데 ㉢ 아이들은 어디 보냈나요?

어머니 : 옷 갈아입는다고 방에 들어갔어요.

철수야, 영희야! 빨리 ㉣ 나와서들 인사 드려라.

철수, 영희 : 예. (잠시 후, 나와서) 안녕하세요!

손님 2 : 그래, 잘 있었니? 못 본 사이에 ㉤ 많이들 컸구나.

- ① ㉠ ② ㉡ ③ ㉢ ④ ㉣ ⑤ ㉤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1-(2) 단어의 형성 기출문제 [24~37번]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2번

24. 다음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지금까지 형태소의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특성에 대해 공부했지요? 그럼, 다음 자료에서 밑줄 친 말들이 가진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 하늘은 맑고 바다는 푸르다.
- 그의 말은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 나는 물고기를 잡았지만 놓아주었다.

학 생 : 밑줄 친 말들은 모두 (가)

- ①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 ② 단어의 자격을 가지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③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고 음운 환경에 따라 그 형태가 바뀌는군요.
- ④ 음운 환경에 따라 형태가 바뀌고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군요.
- ⑤ 실질적 의미가 아닌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고 반드시 다른 말과 결합하여 쓰이는군요.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1번

25. 밑줄 친 말이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 기>—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이다. 하나의 형태소가 실제로 쓰일 때에는 그 앞뒤에 어떤 말이 있느냐에 따라 둘 이상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 모습들을 이형태(異形態)라고 한다. 예컨대 주격 조사는 앞말이 자음으로 끝날 때 ‘이’로 나타나고 모음으로 끝날 때 ‘가’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와 ‘가’는 ㉠ 이형태 관계에 있는 것이다.

- ① 공연을 보러 우리는 광주에 왔다.
나를 만나러 친구들이 경주에서 왔다.
- ② 동수는 물감으로 인물화를 그렸다.
진희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렸다.
- ③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탁구나 치자.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 수영이나 하자.
- ④ 정성이 담긴 선물을 받으면 기쁩니다.
정성을 담은 선물을 주면 자기도 기쁩니다.
- ⑤ 미끄러지지 않도록 단단히 잡아라.
체하지 않도록 천천히 씹어 먹어라.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2번

26. <보기>와 같이, 밑줄 친 파생어의 의미를 적절하게 풀어서 표현한 것은?

—<보 기>—

밤중에 발을 헧디디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 잘못 디디지)

- ①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였다. (→ 가늘게 뜨고)
- ②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덧대어 수리했다. (→ 겹쳐 대어)
- ③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 안에서 끓었다)
- ④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 친친 감았다)
- ⑤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팔죽을 휘젓고 있다. (→ 원형으로 젓고)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1번

27. <보기>를 참고하여 밑줄 친 두 단어의 의미를 한 단어로 담아 표현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그는 손으로 방문을 세게 밀었다. (⇒ 밀쳤다)
○ 어제는 서쪽 하늘이 몹시 붉었다. (⇒ 붉디붉었다)

- ① 그 집은 매우 크다. (⇒ 커다랗다)
- ② 그는 건강을 다시 찾았다. (⇒ 되찾았다)
- ③ 그는 남의 말을 몰래 들었다. (⇒ 엿들었다)
- ④ 그는 계단에서 발을 잘못 디뎠다. (⇒ 헧디뎠다)
- ⑤ 그는 오늘 친구와 심하게 싸웠다. (⇒ 싸움질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A/B형 15번

28. 다음의 ㉠에 제시된 파생 접사들을 이용하여 새말을 만든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생님 : 새말을 만들 수 없다면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이 생겨도 부를 수 없어요. 다행히도 사람들은 새말을 만드는 능력이 있지요. 만일 선생님이 ‘웃보’라는 새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 호 : 잘 웃는 사람일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요. ‘-보’는 어떤 특성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파생 접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닌 사물에는 쓸 수 없어요. 사람을 가리키는 데 사용하는 파생 접사에는 ‘-보’ 외에 ‘-지기, -꾸러기, -장이’도 있는데 각각 쓰임이 달라요. 이 접사들의 뜻에 맞게 새말을 만들어 봅시다.

- ㉠
- -지기 : ‘그것을 지키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꾸러기 : ‘그것이 심하거나 많은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장이 : ‘그것과 관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사

- ① 유행에 민감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유행지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② 산에 자주 가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산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③ 노래를 멋있게 부르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노래꾸러기’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④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농담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 ⑤ 한과를 전문으로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과장이’라는 말을 만들었어.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4번

29. <보기>를 바탕으로 접미사 ‘-되다’에 관한 탐구 학습을 수행한 결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건설 + -되다 ¹ → 건설되다	못 + -되다 ² → 못되다
발견 + -되다 ¹ → 발견되다	참 + -되다 ² → 참되다
평가 + -되다 ¹ → 평가되다	막 + -되다 ² → 막되다
처리 + -되다 ¹ → 처리되다	영광 + -되다 ² → 영광되다
(용례) · 다리가 <u>건설</u> 되었다.	(용례) · <u>못</u> 된 장난을 치다니.
· 유물이 <u>발견</u> 되었다.	· <u>영광</u> 된 자리에 서다.

- ① ‘-되다¹’은 받침이 있는 말과 없는 말 모두에 붙을 수 있구나.
- ② ‘-되다²’는 명사뿐 아니라 부사와도 결합하는구나.
- ③ ‘-되다¹’이 붙으면 동사가 되고, ‘-되다²’가 붙으면 형용사가 되는구나.
- ④ ‘-되다¹’은 행위나 작용의 의미를 가지는 명사와 결합하지만, ‘-되다²’는 그렇지 않구나.
- ⑤ ‘-되다¹’은 ‘이루거나 만들다’의 의미를, ‘-되다²’는 ‘바뀌거나 변화하다’의 의미를 더하는구나.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0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3번

30. <보기>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답¹'이 쓰인 예를 바르게 분류한 것은?

<보 기>

접미사 '-답¹'은 다음 조건에 따라 '-답¹'과 '-답²'의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조건]

- '-답¹'은 자음 뒤나 모음 뒤 모두에 결합하고, '-답²'는 자음 뒤에만 결합한다.
- '-답¹'은 단어에도 결합하지만 '그는 [짜옴에서 이긴 장군] 답다.'에서 볼 수 있듯이 단어보다 큰 단위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답²'는 단어보다 큰 단위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 '-답¹'은 '~자격이나 특성 따위를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답²'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의 의미를 가진다.

[예]

㉠ 정답다 ㉡ 신사답다 ㉢ 도서관답다
 ㉣ 참답다 ㉤ 아이답다

- | | '-답¹' | '-답²' |
|---|---------|---------|
| ① | ㉠, ㉡ | ㉢, ㉣, ㉤ |
| ② | ㉡, ㉤ | ㉠, ㉢, ㉣ |
| ③ | ㉠, ㉡, ㉤ | ㉢, ㉣ |
| ④ | ㉡, ㉢, ㉤ | ㉠, ㉣ |
| ⑤ | ㉡, ㉣, ㉤ | ㉠, ㉢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2번

31. <보기 1>을 바탕으로 ㉠과 품사가 같은 것을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문 장

- 아침에 하는 ㉠ 달리기는 건강에 매우 좋다.
- 나는 모임에 늦지 않으려고 더 빨리 ㉡ 달리기 시작했다.

설 명

㉠과 ㉡은 형태는 같으나 품사가 다르다. ㉠은 '달리-'에 접미사가 붙은 명사로서 관형어의 수식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은 '달리-'에 명사형 어미가 붙은 동사로서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며 서술하는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보기 2>

- 그는 멋쩍게 ㉢ 웃음으로써 답변을 회피했다.
- 그 가수는 현란한 ㉣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다.
- 오늘따라 학생들의 ㉤ 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 자기 소개서에 "만화를 잘 ㉥ 그릴."이라고 썼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2009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27번

32.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볼 때, 단어의 구성이 '믿음'과 같은 것은?

<보 기>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말이다. 어근에는 여러 가지 품사의 말이 쓰일 수 있다. 가령 '가위질'은 접미사 '-질'이 명사 어근 '가위'에 붙은 말이고, '헛디디다'는 접두사 '헛-'이 동사 어근 '디디-'에, '새까맣다'는 접두사 '새-'가 형용사 어근 '까맣-'에 붙어 만들어진 말이다.

- ① 길이 ② 기쁨 ③ 털보
 ④ 오뎅이 ⑤ 달리기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2번

33.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와 같이 파생어를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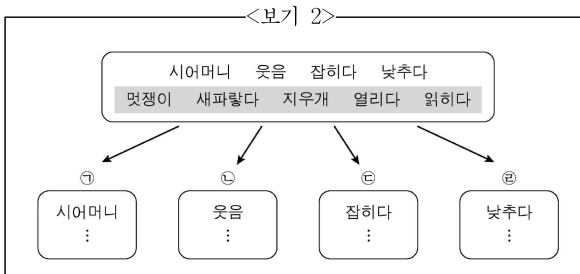
파생어는 어근에 접사가 붙어 이루어진 말이다. 파생어 형성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품사와 문장 구조에 변화가 없음.
 예 명사 '어머니'에 '-시-'가 붙어 명사 '시어머니'가 된다.

㉡ 파생어가 되어 품사가 달라짐.
 예 동사 '웃다'의 '웃-'에 '-음'이 붙어 명사 '웃음'이 된다.

㉢ 파생어의 사용으로 문장 구조가 달라짐.
 예 '잡다'에 '-히-'가 붙어 '잡히다'가 되면 '경찰이 도둑을 잡다'와 같은 문장이 '도둑이 경찰에게 잡히다'와 같이 바뀐다.

㉣ 위의 ㉡과 ㉢ 모두에 해당함.
 예 형용사 '낮다'에 '-추-'가 붙어 동사 '낮추다'가 되면 '방 온도가 낮다'와 같은 문장이 '내가 방 온도를 낮추다'와 같이 바뀐다.



- ① '멋'에 '-쟁이'가 붙은 '멋쟁이'는 ㉠에 들어간다.
- ② '파랗다'에 '-새'가 붙은 '새파랗다'는 ㉠에 들어간다.
- ③ '지우다'의 '지우-'에 '-개'가 붙은 '지우개'는 ㉡에 들어간다.
- ④ '열다'의 '열-'에 '-리'가 붙은 '열리다'는 ㉢에 들어간다.
- ⑤ '읽다'의 '읽-'에 '-히'가 붙은 '읽히다'는 ㉣에 들어간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2번

34. <보기>의 ㉠의 방식에 따라 형성된 단어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한 단어가 아닌 '오고 가다'를, 한 단어인 '뛰어가다', '오가다'와 비교해 보자.

○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다.
 ○ 사람들이 바쁘게 뛰어가다.
 ○ 오가는 사람이 많다.

'오고 가다'라는 구(句)는 단어 '오다'의 어간 '오-'에 연결 어미 '-고'가 결합하여 '가다'와 이어진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단어 형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뛰어가다'는 '뛰다'와 '가다'의 ㉠ 어간이 연결 어미로 연결되어 형성된 한 단어이다. 한편 '오가다'는 어간과 어간이 직접 결합해서 한 단어가 되었다는 점에서 '뛰어가다'와 차이가 있다.

- ① 꿈꾸다 ② 돌아서다 ③ 뒤섞다
- ④ 빛나다 ⑤ 오르내리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5번

3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어근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둘로 나눌 수 있다.

○ 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같은 합성어
 ○ ㉠ 비통사적 합성어 : 어근들의 결합 방식이 일반적인 문장 구성 방식과 다른 합성어

- ①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밖에서 들렸다.
- ② 서로 몰라볼 정도로 세월이 많이 흘렀다.
- ③ 저마다의 타고난 소질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④ 지난달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더니 자신감이 생겼다.
- ⑤ 망치질을 자주 하다 보니 손바닥에 굳은살이 박혔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22번

36. <보기>를 바탕으로 할 때, 합성어의 구성 방식이 '앞세우다'와 같은 것은?

—<보 기>—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이다. 용언의 경우, 합성어 내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주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목적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부사어+서술어'로 해석되는 것 등으로 나눌 수 있다.

- ① 멧들다 ② 빛내다 ③ 힘쓰다
④ 그늘지다 ⑤ 남다르다

2005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3번

37.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국어의 단어 형성 방식을 보면,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어근 들끼리 만나 새말을 만들기도 하지만, 특정한 뜻을 더하는 접사가 어근 앞에 붙어 새말을 만들기도 한다. 전자의 예로는 어근 '날다'가 어근 '가다'를 만나 '날아가다'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꽃'이 어근 '사과' 앞에 붙어 '털 익은'의 뜻을 더하면서 '꽃사과'를 만드는 것을 들 수 있다.

- ① '강'은 '마르다' 앞에 붙어 '심하게'의 뜻을 더하면서 '강마르다'를 만든다.
② '첫'은 '사랑' 앞에 붙어 '처음의' 뜻을 더하면서 '첫사랑'을 만든다.
③ '새'는 '색시' 앞에 붙어 '새로운'의 뜻을 더하면서 '새색시'를 만든다.
④ '얇'은 '보다' 앞에 붙어 '얇게'의 뜻을 더하면서 '얇보다'를 만든다.
⑤ '군'은 '밤' 앞에 붙어 '구운'의 뜻을 더하면서 '군밤'을 만든다.

1-(3) 단어의 의미 기출문제 [38~50번]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1번

38. <보기 1>의 ㄱ~ㄷ에 해당하는 예를 <보기 2>의 a~c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음성 언어에서 특정 소리를 지닌 단어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ㄱ. 단어 A와 B가 소리와 표기는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
 ㄴ. 단어 A와 B가 소리는 같지만 표기와 의미가 다른 경우.
 ㄷ. 단어 A가 중심 의미와 중심 의미에서 확장된 의미를 가지는 경우.

<보기 2>

a. [설렁탕을 시켜 머거라]라는 말만 들어서는 설렁탕을 식혀 먹으라는 뜻인지, 주문해 먹으라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b. [그 팀이 이연패를 헐때]라는 말만 들어서는 그 팀이 두 번 연속해 졌다는 뜻인지, 두 번 연속해 우승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c. [가스미 아프다]라는 말만 들어서는 신체적으로 가슴이 아프다는 뜻인지,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프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어.

- | | ㄱ | ㄴ | ㄷ |
|---|---|---|---|
| ① | a | b | c |
| ② | a | c | b |
| ③ | b | a | c |
| ④ | b | c | a |
| ⑤ | c | a | b |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1번

39. <보기>의 분류 절차에 따라 용례를 A와 B로 나눈 결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분류 절차>

- 각 용례에서 동사 '들다'의 의미를 확인함.
- 확인한 의미의 상호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류함.

<용례>

ㄱ. 감기가 들다. ㄴ. 가방을 들다. ㄷ. 단풍이 들다.
 ㄹ. 고개를 들다. ㅁ. 반기를 들다. ㅂ. 보험을 들다.

- | | A | B |
|---|------------|------------|
| ① | ㄱ, ㄷ | ㄴ, ㄹ, ㅁ, ㅂ |
| ② | ㄱ, ㄷ, ㅁ | ㄴ, ㄹ, ㅂ |
| ③ | ㄱ, ㄷ, ㅂ | ㄴ, ㄹ, ㅁ |
| ④ | ㄱ, ㄹ, ㅁ | ㄴ, ㄷ, ㅂ |
| ⑤ | ㄱ, ㄷ, ㄹ, ㅂ | ㄴ, ㅁ |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3번

40.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단어는 여러 가지 맥락에서 사용되면서 ㉠ 중심적 의미가 ㉡ 주변적 의미로 확장되어 다의 관계를 이루기도 한다. 일례로 자연과 관련된 단어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중심적 의미로 쓰이다가 비유적으로 확장되어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가) 여름이 오기 전에 홍수를 대비한다.
 (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다.

(가)의 '홍수'는 중심적 의미로, (나)의 '홍수'는 주변적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① [㉠ : 천체 망원경으로 밤하늘의 별을 관찰했다.
 ㉡ : 어제 물리학계의 큰 별이 졌다.
- ② [㉠ :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렸다.
 ㉡ : 그는 도망가는 데만큼은 정말 번개야.
- ③ [㉠ : 그는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노력한다.
 ㉡ : 잡초가 다시 자라지 않도록 뿌리를 뽑았다.
- ④ [㉠ : 일출을 기다리는 우리 앞에 붉은 태양이 떠올랐다.
 ㉡ : 그녀는 그가 자기 마음의 태양이라고 말했다.
- ⑤ [㉠ : 들판에는 풀잎마다 이슬이 맺혔다.
 ㉡ : 그녀의 두 눈에 맺힌 이슬이 뜨겁게 흘러내렸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1번

41. <보기>의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 선생님, 다음 두 문장을 보면 모두 ‘가깝다’가 쓰였는데 의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1) 우리 집은 학교에서 가깝다.
(2) 그의 말은 거의 사실에 가깝다.

선생님 : (1)의 ‘가깝다’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음”을 뜻하고, (2)의 ‘가깝다’는 “성질이나 특성이 기준이 되는 것과 비슷함”을 뜻한다. 이는 본래 ㉠ 공간과 관련된 중심적 의미를 지니던 것이 ㉡ 추상화되어 주변적 의미도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

학 생 :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가깝다’는 여러 의미를 지닌 단어로군요.

선생님 : 그렇지. 그래서 ‘가깝다’는 다의어란다.

	㉠	㉡
①	물은 <u>낮은</u> 곳으로 흐른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u>낮다</u> .
②	그는 성공할 가능성이 <u>크다</u> .	힘든 만큼 기쁨이 <u>큰</u> 법이다.
③	두 팔을 최대한 <u>넓게</u> 벌렸다.	도로 폭이 <u>넓어서</u> 좋다.
④	내 <u>짧은</u> 소견을 말씀드렸다.	마음이 <u>좁아서</u> 는 곤란하다.
⑤	<u>작은</u> 힘이라도 보태고 싶다.	우리 학교는 운동장이 <u>작다</u> .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42.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반의어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반의 관계는 서로 반대되거나 대립되는 의미를 가진 단어 사이의 의미 관계이다. ㉠ 반의 관계는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를 때 성립한다. 가령 ㉠ ‘총각’의 반의어가 ‘처녀’인 것은 두 단어가 여러 공통 의미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별’이라고 하는 하나의 의미 요소가 다르기 때문이다.

반의어는 반의 관계의 성격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즉 반의어에는 ㉡ ‘금속’, ‘비금속’과 같이 한 영역 안에서 상호 배타적 대립 관계에 있는 상보(모순) 반의어, ㉢ ‘길다’, ‘짧다’와 같이 두 단어 사이에 등급성이 있어서 중간 단계가 있는 등급(정도) 반의어, ㉣ ‘형’, ‘아우’와 ‘출발선’, ‘결승선’ 등과 같이 두 단어가 상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 의미상 대칭을 이루고 있는 방향(대칭) 반의어가 있다.

- ① ㉠ : 두 단어가 공통 의미 요소만 가지고 있어도 반의 관계가 성립한다.
- ② ㉡ : ‘손녀’와 ‘할아버지’는 ‘연령’이라는 의미 요소만 다르므로 서로 반의 관계에 있다.
- ③ ㉢ : ‘선배가 아닌 사람’은 모두 ‘후배’이므로 ‘선배’와 ‘후배’는 상보 반의어이다.
- ④ ㉣ : ‘길다’를 부정한 ‘길지 않다’는 ‘길다’의 반의어인 ‘짧다’와 똑같은 의미이다.
- ⑤ ㉣ : ‘가다’와 ‘오다’는 이동 방향에서 상대적 관계를 가지므로 방향 반의어에 포함된다.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2번

43. <보기>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 각각의 의미에 따라 반의어도 달라질 수 있다. 가령 '시계가 서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가다'인데, '공연을 서서 보다'에서 '서다'의 반의어는 '앉다'가 된다.

단어	예문	반의어
빼다	주차장에서 차를 <u>빼</u> 다.	대다
	(가)	넣다
	적금을 <u>빼</u> 서 빚을 갚았다.	(나)

	(가)	(나)
①	풍선에서 바람을 <u>빼</u> 다.	꽃다
②	설날이 다가와서 가래떡을 <u>빼</u> 다.	더하다
③	주머니에서 손을 <u>빼</u> 다.	찾다
④	새집 냄새를 <u>빼</u> 다.	박다
⑤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u>빼</u> 다.	들다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4번

44. <보기 1>을 참조하여 <보기 2>의 빈칸을 채울 때, [A]~[C]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배열한 것은? [3점]

<보기 1>

단어는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뜻을 가진다. 그래서 반의어도 여러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철수가 뛰었다.”에서 ‘뛰다’의 반의어는 ‘걸다’이지만 “물가(物價)가 뛰었다.”에서는 ‘떨어지다’가 된다.

<보기 2>

단어	예 문		반의어
서다	버스에 자리가 없어서 한참 동안 서서 왔다.	↔	앉다
	고장이 나서 시계가 서 버렸다.	↔	[A]
	[B]	↔	깨이다
	기강이 서야 사회가 안정된다.	↔	[C]

[A]	[B]	[C]
① 가다	가족에게 위신이 서서 기뻐다.	내리다
② 가다	토끼의 귀가 쫑긋 섰다.	내리다
③ 가다	회장으로서 체면이 서지 않았다.	무너지다
④ 죽다	바지의 주름이 잘 섰다.	무너지다
⑤ 죽다	친구와 같은 입장에 서서 말했다.	벗어나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41번

45. ㉠, ㉡의 관계는 <보기>와 같다. 밑줄 친 단어들 <보기>와 같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1점]

- 이륙하기 위하여 비행기는 바뀌로 ㉠ 활주로를 달린다.
- 기술적 모순의 해결도 의미가 있지만 바탕에 깔린 물리적 모순을 찾아내서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 길이다.

<보 기>

‘활주로’는 어떤 단어 W의 하위어이고, ‘길’은 어떤 단어 W의 의미가 추상화된 것이다.

- ① 동해를 지나가는 배
고요하고 잔잔한 바다
- ②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 ③ 해바라기를 옮겨 심었다.
성실은 성공의 씨앗이다.
- ④ 어젯밤 악몽에 시달렸다.
내 꿈은 과학자가 되는 거야.
- ⑤ 오늘은 남풍이 불겠습니다.
나의 바람은 평화롭게 사는 거야.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5번

46. <보기>의 ㉠, ㉡과 의미 중복 유형이 가장 유사한 단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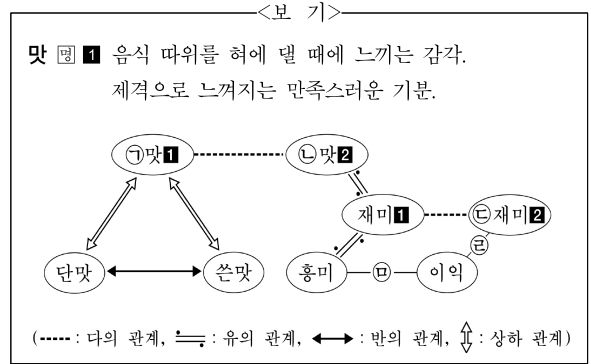
<보 기>

㉠ ‘저희들’이나 ㉡ ‘너희들’은 ‘-희’가 복수성을 가지고 있어 ‘저희’, ‘너희’만으로 복수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에도 다시 ‘-들’을 붙여 ‘저희들’, ‘너희들’처럼 앞 말의 일부를 중복하여 표현하기도 한다.

- ① 뺨골 ② 외갓집 ③ 씹씹이
- ④ 단웃날 ⑤ 교차로

2010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47. <보기>는 국어사전을 토대로 ‘맛’과 관련된 어휘 사이의 의미 관계를 그려 본 것이다.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여행을 꼭 해외로 가야만 맛인가?”의 ‘맛’은 ㉠과 다의 관계이다.
- ② “음식에 설탕을 넣어 단맛을 내다.”의 ‘단맛’은 ㉠의 하위어이고, ‘단맛’과 반의 관계인 ‘쓴맛’도 ㉠의 하위어이다.
- ③ “내가 어제 본 만화는 정말 재미가 있었어.”의 ‘재미’가 ㉡과 유의 관계라면, ㉠과는 다의 관계가 된다.
- ④ “시체가 올라 이익을 본 상인이 많다.”의 ‘이익’이 ㉡과 유의 관계라면, ㉠의 표시는 ‘늑’이 알맞다.
- ⑤ “소설의 결말을 알면 흥미가 반감된다.”의 ‘흥미’와 ‘이익’ 사이에서는 <보기>에서 제시된 의미 관계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은 주어진 부호로는 표시할 수 없다.

20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4번

48. <보기>를 참고할 때, 문장 구조가 다름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진 예로 볼 수 없는 것은?

<보 기>

단어의 의미는 그 단어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놓다’는 ‘...에 ...을 놓다’ 구조로 쓰이느냐, ‘...을 놓다’의 구조로 쓰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다. 전자는 “(어떤 장소에 무엇을) 두다[置]”의 뜻에 가까우나, 후자는 “(잡고 있던 것을) 풀다[放]”에 가깝다.

- ① [우리 형은 세상 물정에 밝다.
오늘밤은 유난히 달이 밝다.]
- ② [나는 밥을 먹으러 식당에 갔다.
그 설명은 수궁이 간다.]
- ③ [우리 팀은 상대 팀에 깨지고 말았다.
둘 사이의 약속이 깨진 원인은 무엇일까?]
- ④ [철수는 남의 일에 간섭하기를 싫어한다.
이 집안에는 딸의 행동을 간섭하는 사람이 없었다.]
- ⑤ [선생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커피 잔을 기울이는 선생님의 모습이 보였다.]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49. <보기 1>의 내용을 근거로 <보기 2>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A + B’로 구성된 관용 표현에서 단어나 구절에 해당하는 두 요소 ‘A’ 혹은 ‘B’ 중 어느 한쪽이 생략되어도 전체의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현상을 ‘의미 쏠림’이라고 한다. 이때 남은 ‘A’ 혹은 ‘B’가 명사라면 ‘이다’를 붙여 서술어를 만든다.

<보기 2>

ㄱ. 시치미를 떼다 ⇒ 시치미이다
 ㄴ. 뒷북을 치다 ⇒ 뒷북이다
 ㄷ. 바가지를 씌우다
 바가지를 굶다] ⇒ 바가지이다
 ㄹ. ㉠ 닭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다 ⇒ ㉡ 오리발을 내밀다 ⇒ 오리발이다
 ㅁ. 무릎을 치다 ⇒ 무릎이다

- ① ㄱ은 ‘A’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② ㄴ, ㅁ을 보니 관용 표현에 쓰인 서술어를 보면 의미 쏠림이 일어날지 알 수 있군.
- ③ ㄷ을 보니 의미 쏠림 후의 ‘바가지이다’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군.
- ④ ㄹ의 ㉠ ⇒ ㉡은 ‘B’로 의미 쏠림이 일어난 것이군.
- ⑤ ㄹ을 보니 어떤 관용 표현은 의미 쏠림이 여러 번 일어날 수 있군.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B형 16번

50. <보기>를 읽고, 중세 국어와 현대 국어의 의미 변화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라 ㉠ 말쓰미 中 國 國 語 에 달아 文 文 字 字 樣 와 로 서 르 스 못 디
아 니 흘 썩 이 런 전 次 로 ㉡ 어 린 百 百 姓 性 이 니 르 고 저 흙 배
이 셔 도 마 침 내 제 뜯 들 시 러 퍼 디 문 흥 ㉢ 노 미 ㉣ 하 니 라
내 이 를 爲 爲 興 興 야 ㉤ 어 엷 비 너 거 새 로 스 물 여 들 字 字 樣 를 밍
그 노 니 사 례 마 다 희 여 수 비 니 거 날 로 뿌 메 便 便 安 安 한 키 ㅎ
고 저 흙 ㅅ ㅅ 르 미 니 라

- 『훈민정음』 언해, 세조 5년(1459) -

[풀이]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
하여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위하여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히 날마다 쓰는 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 ① ㉠의 '말씀'은 '말'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말씀'은 남의 말을 높여 이르거나 자기 말을 낮추어 이르는 말을 뜻하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② ㉡의 '어리다'는 '어리석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를 뜻하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③ ㉢의 '놈'은 '사람'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놈'은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쓰이니까 의미 확대의 예야.
- ④ ㉣의 '하다'는 '많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 물체 따위가 행동이나 작용을 이루다'란 뜻이니까 의미 축소의 예야.
- ⑤ ㉤의 '어엷다'는 '가엾다'를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예쁘다'는 '모양이 작거나 섬세하여 눈으로 보기에 좋다'란 뜻이니까 의미 이동의 예야.

I-(4) 외래어/로마자 표기법 [51~66번]
 ※ 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 문제를 앞쪽에 포함하였음.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B형 12번

51.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에 대한 선생님의 설명이다. ㉠, ㉡에 대해 학생들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선생님의 설명 : 한글 맞춤법은 소리대로 표기하는 것이 근본 원칙이에요. ‘구름, 나라, 하늘’ 등은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예이지요. 그런데 이 원칙만 따른다면 ‘밥’과 같은 단어는 뒤에 오는 말에 따라 ‘바비(밥+이), 밥또(밥+도), 밤만(밥+만)’처럼 여러 가지로 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형태를 알기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독서의 능률도 크게 떨어지지요. 이 때문에 발음과 상관없이 형태를 고정시키는 방법, 즉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원칙을 추가한 거예요.

- ① ‘먹이, 먹은’은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② ‘굳이, 같이’는 음운 현상을 반영하지 않고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③ ‘퍼서(푸+어서), 폼다(푸+었다)’는 어간을 원래 형태에서 벗어난 대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④ ‘미덥다, 우습다’는 어간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 ⑤ ‘노인(老人)’과 ‘원로(元老)’는 같은 한자를 ‘노’와 ‘로’로 적은 것을 볼 때 ㉡에 해당하겠군.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2번

52. <보기>는 한글 맞춤법 제1항이 파생어와 합성어에 적용된 예를 찾아본 것이다. ㉠~㉣에 들어갈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제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 소리대로 적되, ㉡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파생어	합성어
㉠만 충족한 경우	㉠	㉡
㉡만 충족한 경우	㉢	㉣
㉠, ㉡ 모두 충족한 경우	㉤	줄자(줄+자), 눈물(눈+물)

- ① ㉠ : 이파리(잎+아리), 얼음(얼+음)
- ② ㉡ : 마소(말+소), 낮잠(낮+잠)
- ③ ㉢ : 옷음(옷+음), 바가지(박+아지)
- ④ ㉣ : 옷소매(옷+소매), 밥알(밥+알)
- ⑤ ㉤ : 꿈(꾸+口), 사랑니(사랑+이)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1번

53.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글 맞춤법>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경우도 있지만, 어법에 맞게 적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간혹 이 사실을 모르고 소리 나는 대로 적어서 틀릴 때가 있다.

올바른 표기	잘못된 표기	발 음	
들어서다	드러서다	[드러서다] ㉠
그렇지	그러치	[그러치] ㉡
해돋이	해도지	[해도지] ㉢

- ① ㉠은 연음 현상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② ㉠과 같은 예로 ‘높이다’를 ‘눌히다’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③ ㉡은 거센소리되기 때문에 잘못 적는 경우이다.
- ④ ㉡과 같은 예로 ‘엷혀’를 ‘얼켜’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 ⑤ ㉢과 같은 예로 ‘금붙이’를 ‘금부치’로 잘못 적는 경우를 들 수 있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3번

54. 다음의 탐구 과정에서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생님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 (친구에게) “아니, 몰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는 주인공이 아니요.”
의문점	‘아니요’의 ‘요’와 ‘아니오’의 ‘오’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문제 탐구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첫사잇줄이 묻는 말에 부정으로 대답할 때 쓰이는데, ‘아니’에 ‘요’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에서 ‘아니오’의 쓰임을 확인한다. [☞] 보어층 취하는 서술어로 쓰이는데, ‘아니’에 ‘오’가 붙어서 된 말이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뭘 할까요? 뭘 할까? 어서요, 빨리요. [☞] 단어, 어말 어미 등에 붙어 높임의 뜻을 더해 주는 보조사인데, ‘요’가 빠지더라도 문장이 성립한다.	자료와 다음 사례를 통해 ‘-오’의 문법적 특성을 알아본다. • 얼마나 기쁘오? 얼마나 기쁘니? • 일단 멈추시오. [☞]
적용	“그러면 안 되□.”의 □ 안에는 ‘오’가 들어간다.	

- ① 어간에 붙는다.
- ② 선어말 어미에 붙는다.
- ③ 평서문에는 쓰이지 않는다.
- ④ ‘-오’가 빠지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을 보통으로 높이는 종결 어미이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2번

55. <자료>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 적용되는 원칙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자 료>—

㉠ 이것은 유명한 책이 [아니오].
 ㉡ 영화 구경 [가지오].
 ㉢ 이것은 [설탕이요], 저것은 소금이다.

—<보 기>—

○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오’는 ‘요’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오’로 적는다. …… ㉠
 이리로 오시오. (○) 이리로 오시오. (×)

•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이요’는 ‘이오’로 적는다. …… ㉡
 이것은 책이요, 저것은 붓이다. (○)
 이것은 책이오, 저것은 붓이다. (×)

○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요’는 ‘오’로 적는다. …… ㉢
 읽어 읽어요 먹을게 먹을게요

- ① ㉠ - a ② ㉠ - b ③ ㉡ - b ④ ㉢ - a ⑤ ㉢ - c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1번

56. <보기>의 ㉠, ㉡의 예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한글 맞춤법> 제4장(형태에 관한 것)’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 ㉡
-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 | | |
|----------|--------|
| ㉠ | ㉡ |
| ① 길이, 마중 | 무덤, 지붕 |
| ② 무덤, 지붕 | 뒤뜰, 쌀알 |
| ③ 뒤뜰, 쌀알 | 무덤, 지붕 |
| ④ 길이, 무덤 | 뒤뜰, 쌀알 |
| ⑤ 마중, 지붕 | 길이, 쌀알 |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2번

57. <보기>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맞춤법 규정】
제19항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예) 먹이, 믿음 등.

다만,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목거리(목이 아픈 병), 노름 등.

[붙임] 어간에 ‘-이’나 ‘-음’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예), 마중, 무덤 등.

【맞춤법 규정 제19항 해설】

-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 그 어간의 뜻과 떨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
-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

- ① ‘먹이’를 ‘머기’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이’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겠군.
- ② ‘목거리’와 달리 ‘목걸이(장신구)’는 어간의 뜻과 떨어지지 않은 예로군.
- ③ ‘마중’을 ‘맞웅’으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웅’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겠군.
-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같이’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떨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로 ‘마개’를 추가할 수 있겠군.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2번

58. <보기>는 ‘한글 맞춤법’의 일부를 정리한 것이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제19항]
○ 어간에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먹이, 굳이, 같이 ㉠

[제25항]
○ ‘-하다’가 붙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꾸준히, 깨끗이 ㉡
○ 부사에 ‘-이’가 붙어서 역시 부사가 되는 경우에는 그 부사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더욱이, 생긱이 ㉢

- ① ‘급히 떠나다’의 ‘급히’는 ㉠의 ‘굳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② ‘방긱이 웃다’의 ‘방긱이’는 ㉠의 ‘같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많이 먹다’의 ‘많이’는 ㉡의 ‘꾸준히’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④ ‘깊이 과다’의 ‘깊이’는 ㉡의 ‘깨끗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일찍이 없던 일’의 ‘일찍이’는 ㉢의 ‘더욱이’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2번

59. <보기>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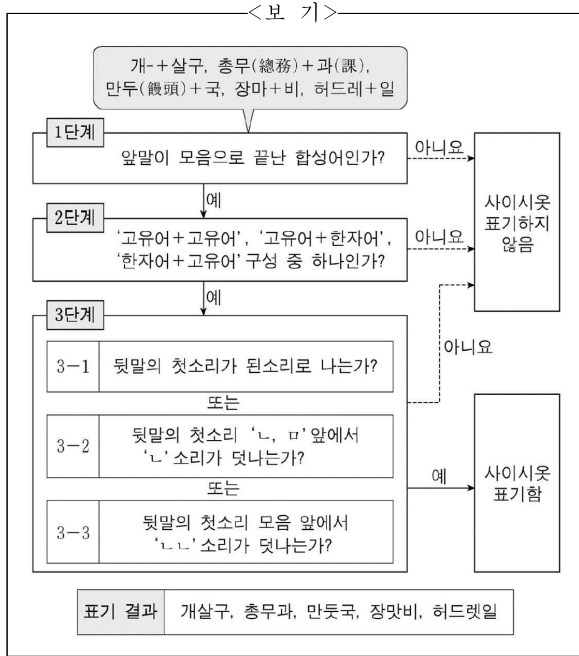
제5항
㉡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예) 어깨, 잔뜩, 살짝, 듬뿍, 몽땅
㉢ 다만, ‘ㄱ, ㅂ’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예) 국수, 법석

제27항
㉣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예) 칼날, 꽃잎, 만사위, 흠이불

- ① ㉡를 보니 모음 뒤나 ‘ㄴ, ㄷ, ㅁ, ㅇ’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
- ② ‘납작’이 아니라 ‘납작’으로 적는 것은 ㉢의 ‘법석’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③ ‘짹짹하다’가 아니라 ‘짹짹하다’로 적는 것은 ㉣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
- ④ ‘물뽕’이 아니라 ‘물뽕’으로 적는 것은 ㉣의 ‘칼날’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 ⑤ ‘각뚜기’가 아니라 ‘각뚜기’로 적는 것은 ㉣의 ‘만사위’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1번

60. <보기>는 사이시옷 표기 조건에 관한 학습 활동지의 일부이다. 학습한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개+살구' 구성은 1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개살구'라고 쓴다.
- ② '총무+과' 구성은 2단계를 만족시키지 못하므로 '총무과'라고 쓴다.
- ③ '만두+국' 구성은 1, 2, 3-1단계를 만족시키므로 '만두국'이라고 쓴다.
- ④ '장마+비' 구성은 1, 2, 3-2단계를 만족시키므로 '장맛비'라고 쓴다.
- ⑤ '허드레+일' 구성은 1, 2, 3-3단계를 만족시키므로 '허드렛일'이라고 쓴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1번

61. <보기>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학 생 : '되어요, 왜요, 되요'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
 선생님 : "어간 모음 '되' 뒤에 '-어'가 붙어서 '내'로 줄어드는 것은 '내'로 적는다."라는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되어요'는 어간 '되-'에 '-어요'가 결합된 것이므로 '왜요'로 줄어들 수 있어. 그러니까 '되어요, 왜요'는 맞는 말이지만 '되요'는 틀린 말이지. '(바람을) 쐬다, (턱을) 꺾다, (나사를) 꺾다, (어른을) 뵈다, (명절을) 쇠다'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으면 돼.

학 생 : 아, 그러면 ㉠ _____

- ① '쐬어라'는 '쐬-'와 '-어라'가 결합된 것이므로 '쐬라'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② '꺾-'와 '-느냐'가 결합될 때는 '어'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꺾느냐'는 틀린 말이겠네요.
- ③ '뵈도'는 '뵈-'와 '-어도'가 결합된 말이 줄어드는 것이겠네요.
- ④ '뵈-'가 '-어서'와 결합되면 '뵈서'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
- ⑤ '쇠-'와 '-더라도'가 결합될 때는 '쇄더라도'로 적으면 틀린 것이겠네요.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62. <보기>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보 기>

○ ‘ㅏ, ㅑ, ㅓ, ㅕ, ㅗ’로 끝난 어간에 ‘-이-’가 와서 각각 ‘ㅘ, ㅙ, ㅛ, ㅜ, ㅠ’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기본형	파이다	㉠
용례	깊게 파인 구덩이	깊게 ㉡ 구덩이

○ ‘ㅘ, ㅙ’ 뒤에 ‘-어, -었-’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본말	준말
용례	구덩이가 깊게 ㉢	구덩이가 깊게 ㉣

- | | | | |
|---|-----|----|-----|
| | ㉠ | ㉡ | ㉢ |
| ① | 패다 | 팬 | 패었다 |
| ② | 패다 | 팬 | 패었다 |
| ③ | 패다 | 패인 | 패었다 |
| ④ | 패이다 | 팬 | 패었다 |
| ⑤ | 패이다 | 패인 | 패었다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3번

63. 밑줄 친 부분이 한글 맞춤법에 맞게 쓰인 것은?

- ① 엿저녁에는 고향 친구들과 만나서 식사를 했다.
- ② 그가 발의한 안건은 다음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 ③ 적잖은 사람들이 그 의견에 찬성의 뜻을 보였다.
- ④ 동생은 누나가 직접 만든 깍뚜기를 먹어 보았다.
- ⑤ 저기 넙적하게 생긴 바위가 우리들의 놀이터였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4번/15번

64. 다음은 띄어쓰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다. ㉠~㉣의 띄어쓰기가 바르게 된 것은?

문제

다음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띄어 써 보자.

- 열심히 살을 ㉠살아가다.
- 주문한 물건을 ㉡받아가다.
- 딸이 엄마를 ㉢답아가다.

확인 사항

- 단어와 단어는 띄어 쓴다.
- 단어는 사전에 표제어로 실린다.
- 보조 용언은 띄어 쓰지 않고 띄어 쓰면 원칙으로 하되 붙여 쓰도 허용한다.
-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으면 ‘본용언+본용언’ 구성이고, 그렇지 않으면 한 단어이거나 ‘본용언+보조 용언’ 구성이다.

문제 해결 과정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답아가다

사전에 표제어로 실렸나요?

예 → ㉠

아니오

‘-아’를 ‘-아서’로 바꿔 쓸 수 있나요?

예 → ㉡

아니오

㉢

- | | | | |
|---|-------|---------------------|---------------------|
| | ㉠ | ㉡ | ㉢ |
| ① | 살아가다 | 받아 가다 | 답아 가다
또는
답아가다 |
| ② | 살아가다 |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 답아 가다 |
| ③ | 살아가다 | 받아가다 | 답아 가다 |
| ④ | 살아 가다 | 받아 가다
또는
받아가다 | 답아가다 |
| ⑤ | 살아 가다 | 받아가다 | 답아 가다
또는
답아가다 |

200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3번

65. <보기 1>과 같은 표준어 규정을 바탕으로 <보기 2>를 이해한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

양성 모음이 음성 모음으로 바뀌어 굳어진 단어는 음성 모음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예) 오탁이(x)→오탁이(○), 쌍둥이(x)→쌍둥이(○) 등.

다만, 어원 의식이 강하게 작용하는 다음 단어에서는 양성 모음 형태를 그대로 표준어로 삼는다.(ㄱ을 표준어로 삼고, ㄴ을 버림.)

ㄱ	ㄴ	비 고
부조(扶助)	부주	~돈, ~금
사둔(査頓)	사둔	발~, 안~
삼촌(三寸)	삼촌	외~, 처~

<보기 2>

㉠ 그 아이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며 어쩔 줄 몰라 했다.

㉡ 내가 그 애와 똑같다며 쌍둥이가 아니냐고 묻곤 했다.

㉢ 어릴 때부터 삼촌은 나의 든든한 후원자였다.

- ① ㉠의 '깡충깡충'을 '깡총깡총' 대신 표준어로 정한 것도 이 규정에 따른 것이겠군.
- ② ㉡의 '쌍둥이'를 보니 '막둥이'나 '흰둥이'도 예전에는 '막둥이', '흰둥이'였겠군.
- ③ ㉢의 '삼촌' 대신 '삼촌'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원을 고려하여 '삼촌'으로 사용하라는 것이군.
- ④ ㉠의 '깡충깡충'과 ㉢의 '삼촌'은 둘 다 음성 모음 형태로 발음하는 습관을 반영한 것이겠군.
- ⑤ 대다수 언중들의 발음 습관이 달라져 굳어지면, 그 어휘들의 표준어형도 달라질 수 있겠군.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3번

66.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생님 : 로마자 표기법은 국제화 시대에 그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을 구체적으로 배우기 전에, 다음 자료로 탐구한 내용을 발표해 봅시다.

표기	표준 발음	올바른 로마자 표기	
가락	[가 락]	garak	…… ㉠
앞집	[압 집]	apjip	…… ㉡
장릉	[장: 농]	jangnong	…… ㉢

학 생 : (가)

- ① ㉠에서 '가'의 'ㄱ'은 'g'로, '락'의 'ㄱ'은 'k'로 표기한 것을 보니, '가락'의 두 'ㄱ'은 같은 자음이지만 다른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② ㉡에서 '앞'의 'ㅍ'과 '집'의 'ㅂ'을 모두 'p'로 표기한 것을 보니, '앞집'의 'ㅍ'과 'ㅂ'은 다른 자음이지만 동일한 로마자로 적었어요.
- ③ ㉢에서 장음을 표시하는 기호인 ':'가 로마자 표기에 없는 것을 보니, 장단의 구별은 로마자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어요.
- ④ ㉠에서 '락'의 'ㄹ'은 'r'로, ㉢에서 '릉'의 'ㄹ'은 'n'으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장릉'의 로마자 표기는 자음 동화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 ⑤ ㉡에서 '집'의 'ㅈ'과 ㉢에서 '장'의 'ㅈ'을 같은 로마자로 표기한 것을 보니, ㉡ '앞집'의 로마자 표기는 된소리되기를 반영하여 적었어요.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문법 평가원 기출문제

II. 문장

KOREAN
GRAMMAR

기초교육연구원 X 빛을 서울승환

II-(1) 문장의 짜임 기출문제 [67~79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A형 12번

67. <보기>를 바탕으로 ‘목적어’에 대해 탐구한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 오늘 아침에 나는 빵을 먹었다. 내가 ㉡ 빵을 먹은 건, 늦잠을 잤기 때문이다. ㉢ 그런 내 모습을 어머니께서 보시고, “공부하느라 힘들지?” 하면서 냉장고에서 ㉣ 우유를 꺼내 주셨다. 고맙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같이 드시지 않겠냐고 여쭙 보았다. 어머니께서는 “그럼, ㉤ 우유나 마실까?” 하면서 식탁에 앉으셨다. 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셨는데 ㉥ 그 모습이 참 고우셨다.

- ① ㉠과 ㉡을 보니, 목적어는 동작을 나타내는 서술어의 대상으로 쓰이는군.
- ② ㉠과 ㉢을 비교해 보니, 문장 안에서 목적어의 자리는 고정적이지 않군.
- ③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생략될 수도 있군.
- ④ ㉠과 ㉥을 비교해 보니, 목적어가 필요 없는 문장도 있군.
- ⑤ ㉡과 ㉤을 보니, 자음 뒤에 ‘을’, 모음 뒤에 ‘를’이라는 목적격 조사가 쓰이는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3번

68. 다음은 부사어에 대해 탐구한 것이다.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하늘이 눈이 부시게 푸른 날이다. ⇨ 절인 ‘눈이 부시게’가 부사어로 쓰였군.
②	· 함박눈이 하늘에서 펑펑 내리고 있다. ⇨ 부사격 조사가 결합한 ‘하늘에서’와 부사 ‘펑펑’이 부사어로 쓰였군.
③	· 그는 너무 험 차를 한 대 샀다. ⇨ 부사어 ‘너무’가 서술어 ‘샀다’를 수식하는군.
④	㉠ 영이는 엄마와 닮았다. / *영이는 닮았다. ㉡ 영이는 취미로 책을 읽는다. / 영이는 책을 읽는다. ⇨ ㉠의 ‘엄마와’, ㉡의 ‘취미로’는 둘 다 부사어인데, ㉠의 ‘엄마와’는 ㉡의 ‘취미로’와 달리 필수 성분이군.
⑤	㉢ 모든 것이 재로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모든 것이 재가 되었다. / *모든 것이 되었다. ⇨ ㉢의 ‘재로’는 부사어이고 ㉣의 ‘재가’는 보어로서, 문장 성분은 서로 다르지만 서술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성분이라는 점에서는 같군.

※ ‘*’는 비문임을 나타냄.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69. <보기>의 ㉠의 예로만 짝지은 것은?

<보 기>

부사어는 다른 말을 꾸며 주는 성분의 하나이므로 대개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꼭 필요하지는 않다. 그러나 어떤 서술어는 부사어를 반드시 요구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문장의 성립에 반드시 필요한 부사어를 ㉠ '필수적 부사어'라 한다. 해당 문장의 서술어가 무엇이나에 따라 동일한 '체언+격 조사' 구성의 부사어라도 필수적 부사어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 ① [나는 삼촌과 영화를 보았다.
어제 본 것은 이것과 꽤 비슷하다.
- ② [인공위성이 궤도에서 이탈하였습니다.
우리는 공원에서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 ③ [그들은 몽둥이로 멧돼지를 잡았다.
왕은 그 용감한 기사를 사위로 삼았다.
- ④ [이 지역의 기후는 벼농사에 적합하다.
나는 오후에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 ⑤ [선생님께서 지혜에게 선행상을 주셨다.
홍길동 씨는 친구에게 5만 원을 빌렸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3번

70.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서술어의 문형 정보를 바르게 추출한 것은? [3점]

<보 기>

서술어의 필수적 문장 성분은 사전의 문형 정보에 제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형 정보를 추출하는 과정을 '지내다'의 예로 간략히 보이면 아래와 같다.

['지내다'의 문형 정보 추출 과정]

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수가 요즘에 조용하게 지낸다. • 할아버지가 노년에 편하게 지내신다.
↓	
문장 성분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어 : 민수가, 할아버지가 • 부사어 : 요즘에, 조용하게, 노년에, 편하게
↓	
필수적 문장 성분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 어 : 민수가, 할아버지가 • 필수적 부사어 : 조용하게, 편하게
↓	← 주어 제외
문형 정보	【-계】

- | 예문 | 문형 정보 |
|--|-----------|
| ① • 이 나라는 국토가 대부분 산으로 되어 있다.
• 요즘에 가족으로 된 지갑이 인기가. | ➔ 【...으로】 |
| ② • 모두 그 숙임수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 제 피에 자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풀이다. | ➔ 【-계】 |
| ③ • 나는 언니와 옷 때문에 다투기도 했다.
• 그는 누군가와 한밤중에 다투곤 했다. | ➔ 【...에】 |
| ④ • 가방에 지갑이 사은품으로 달려 있다.
• 그 책에 단어장이 부록으로 달려 있다. | ➔ 【...으로】 |
| ⑤ • 옷에서 때가 깨끗하게 빠졌다.
• 청바지에서 물이 허열게 빠졌다. | ➔ 【-계】 |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5번/B형 12번

71. <보기>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 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데,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

- 한 자리 서술어 : 꽃이 피었다.
- 두 자리 서술어 :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
- 세 자리 서술어 :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

-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
-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
→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
-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
-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
→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2번

72. <보기>를 참고하여 사전에서 동사에 대해 기술할 때,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풀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 기>

○ 동사의 뜻은 그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사전에서는 동사가 쓰이는 구조와 동사의 뜻을 함께 기술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에서 동사 ‘치르다’는 ‘...이 ...에게 ...을 치르다’와 같은 구조로 사용되는데, 사전에서는 아래와 같이 동사가 쓰이는 구조를 동사의 뜻풀이 앞에 제시한다.

(예문) 손님이 주인에게 밥값을 치렀다.
→ **치르다** ㉠ (...이 ...에게 ...을) 주어야 할 돈을 내준다.

- ① (예문) 주인이 이불을 마루에 깔았다.
→ **깔다** ㉡ (...이 ...을 ...에) 걸쳐서 벌리다.
- ② (예문) 차가운 바람이 얼굴에 스쳤다.
→ **스치다** ㉢ (...이 ...에) 세게 닿거나 마주치다.
- ③ (예문) 동생이 친구에게 가방을 맡겼다.
→ **맡기다** ㉣ (...이 ...을) 주어서 보관하게 하다.
- ④ (예문) 형이 밥솥에서 밥을 폼다.
→ **폼다** ㉤ (...이 ...에서) 어떤 것의 속에서 떠내다.
- ⑤ (예문) 그 사람만이 자기 직업을 천직으로 여겼다.
→ **여기다** ㉥ (...이 ...을 ...으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

2007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4번

73. 문장에서 일부 문장 성분들을 생략하거나 보충하는 활동을 통해 ‘필요한 문장 성분’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보기>를 바탕으로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아이가 작은 침대에서 예쁘게 잔다.
ㄴ. 학생들이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ㄷ. 그 아이는 예쁘게 생겼다.
ㄹ. 작은 것이 아름답다.
ㅁ. 우리도 언제 개통될지 모른다.

- ① ㄱ에는 문장 성분이 여러 개 있지만 필수적인 것은 주어와 서술어야.
- ② ㄴ에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은 네 개야.
- ③ ㄷ을 보면 부사어도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어.
- ④ 관형어는 보통 생략될 수 있지만 ㄷ처럼 필수적인 경우도 있어.
- ⑤ ㅁ에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 서술어 ‘개통되다’의 주어를 보충해야 해.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3번

74.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

㉠ : 색깔이 회기가 눈과 같다.
 ㉡ :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
 ㉢ :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 :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
 ㉤ :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른다.

- ①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
- ②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
- ③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
- ④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
- ⑤ ㉤ :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3번

75.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가 아닌 것은?

<보 기>

㉠ 하나의 문장이 관형절로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원래 있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

(가) 민수가 열심히 공부한다.
 (나) 형이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다) 형이 열심히 공부하는 민수에게 음료수를 주었다.

(가)가 (나)에 관형절로 안겨 (다)가 만들어질 때, (가)의 '민수'와 (나)의 '민수'가 중복된다. 이 경우, (가)의 주어 '민수가'가 (다)의 밑줄 친 관형절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 ① 형이 숙제를 하는 동생을 불렀다.
- ② 동생은 대학생이 된 형과 여행을 했다.
- ③ 영수가 버스에 탄 경희에게 말을 걸었다.
- ④ 나는 정수가 은희와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 ⑤ 그는 이 그림을 그린 화가의 전시회에 갔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4번

76.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다)는 관형절을 안은 문장이고 [A]~[C]는 안긴문장인 관형절을 완결된 문장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보면 (가)의 '동생', (나)의 '책', (다)의 '도서관'은 완결된 문장 [A], [B], [C]에서 뒤에 붙는 조사와 함께 각각 ㉠ 주어, ㉡ 목적어, ㉢ 부사어로 기능을 하고 있다.

(가) 어제 책만 읽은 동생에게 오늘은 쉬라고 했다.
 [A] 동생이 어제 책만 읽었다.
 (나) 아이가 읽은 책은 동화책이다.
 [B] 아이가 책을 읽었다.
 (다) 형이 책을 읽은 도서관은 집 근처에 있다.
 [C] 형이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

- ① ㉠ — 어제 결혼한 그들에게 나는 미리 선물을 주었다.
 — 누나를 많이 닮은 친구를 우리는 오늘도 만났다.
- ② ㉠ — 나무로 된 탁자에 동생이 낙서를 하고 있다.
 — 그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다.
- ③ ㉡ — 두 사람이 어제 헤어진 공원이 지금 공사 중입니다.
 — 나는 어제 부모님이 시킨 일을 오늘에야 다 끝냈다.
- ④ ㉡ — 친구가 나에게 준 옷이 나는 마음에 든다.
 — 누나는 털실로 짠 장갑도 내게 주었습니다.
- ⑤ ㉢ —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공을 찬 주말을 기억해 보세요.
 — 그는 관중이 쓰레기를 남긴 경기장을 열심히 청소했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3번

77. <보기>를 이용하여 국어의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담정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
 ㄴ.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ㄷ.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

-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
- ② 그런데 ㄱ, ㄴ,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 목적어,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
-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는데, 생략된 주어는 ‘담정’입니다.
-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만 아니라 ‘그가 착한’과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도 안긴문장입니다.
-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3번

78. 다음 ㉠,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3점]

㉠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
 ㉡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

- ① ㉠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에는 부사어가 없다.
- ② ㉠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
- ③ ㉠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
- ④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
- ⑤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4번

79. ㉠~㉣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그녀는 따뜻한 봄이 빨리 오기를 기다린다.
 ㉡ 내가 만난 친구는 마음이 정말 착하다.
 ㉢ 피곤해하던 동생이 엄마가 모르게 잔다.
 ㉣ 그가 시장에서 산 배추는 값이 비싸다.

- ① ㉠과 ㉡은 체언을 수식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② ㉢과 ㉣은 서술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 ③ ㉠은 명사절 속에 부사어가 있고, ㉡은 서술절 속에 부사어가 있다.
- ④ ㉠은 주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고, ㉢은 목적어가 생략된 안긴문장이 있다.
- ⑤ ㉢은 부사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고, ㉣은 관형어의 기능을 하는 안긴문장이 있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II-(2) 문법 요소 기출문제 [80~92번]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14번

80. <보기 1>의 ㉠, ㉡에 해당하는 가장 적절한 예를 <보기 2>에서 고른 것은?

<보기 1>

대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에는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것과 ㉠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의문문은 구체적인 담화 상황에 따라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데, 서술을 나타내는 경우, 감탄을 나타내는 경우, ㉡ 명령을 나타내는 경우 등이 있다.

<보기 2>

○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상황
 [선생님 : ㉠ 독서 모둠 활동은 언제, 어디에서 하면 좋겠니?
 학 생 : 3시부터 도서관에서 하면 좋겠어요.

○ 늦잠 자는 아들을 깨우는 상황
 [어머니 : 학교 늦겠어! ㉡ 그만 자고 얼른 일어나지 못하겠니?
 아 들 : 엄마, 제발요. 조금만 더 잘래요.

○ 두 학생이 함께 하교하는 상황
 [학생 A : ㉢ 나랑 같이 문구점에 갈 수 있니?
 학생 B : 나도 연필 살 게 있었는데, 참 잘됐다.

○ 동생이 억울한 일을 겪은 상황
 [언 니 : ㉣ 어쩔 이럴 수 있니?
 동 생 : 아, 정말 억울해서 못 견디겠어.

- | | | |
|---|---|---|
| | ㉠ | ㉡ |
| ① | ㉠ | ㉡ |
| ② | ㉢ | ㉣ |
| ③ | ㉤ | ㉥ |
| ④ | ㉦ | ㉧ |
| ⑤ | ㉨ | ㉩ |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15번

81.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일반적으로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요청하는 문장인데, 화자가 청자에게 행동을 요청할 때 쓰이기도 한다.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함께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그러므로 이 문장 유형들은 ㉠ 화자가 청자에게 요청을 할 때 쓰이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 ① [A : 괜찮다면, 우리 여기서 잠깐 기다릴래요?
 B : 좋아요. 10분만 더 기다려요.
- ② [A : 다친 곳은 어떤가? 한번 보세.
 B : 보시다시피 많이 좋아졌습니다.
- ③ [A : 저기요. 먼저 좀 내립시다.
 B : 아, 예. 저도 여기서 내려요.
- ④ [A : 저 혹시, 모자를 벗어 주실 수 있을까요?
 B : 제가 방해가 되었군요. 미안합니다.
- ⑤ [A : 어디 보자. 내가 다 챙겼나?
 B : 거기서 혼자 뭐 해요. 빨리 나와요.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12번

82. <보기>를 참고할 때, 밑줄 친 말이 ㉠에 가장 가까운 것은?

<보 기>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 즉,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자', '-(으)십시오'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 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

- ① (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 조용히 좀 하자.
- ② (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 자, 이리 와서 약 먹자.
- ③ (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자.
- ④ (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 밤 좀 먹을 시다.
- ⑤ (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 합시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3번

86.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영희 :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내가 주도해서 ㉠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 응.

경준 :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영희 :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내가 직접 선생님께 ㉢ 물어서 알아봐.

경준 :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뒷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2005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4번

87. <보기>의 ㉠~㉣을 ㉦~㉨과 바르게 연결한 것은? [1점]

<보 기>

사람들은 대체로 사건이 일어난 지점과 말을 한 지점을 비교하여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 인식한다. 또한 사건이 일어나는 양상에 따라 '진행', '완료'로 구분하여 인식하기도 한다.

[시간 표현의 예]

- 나는 밥을 ㉠ 먹고 있다.
- 어제 나는 박물관에 ㉡ 갔었다.
- 우리는 한글을 오랫동안 ㉢ 사용해 왔다.

- ① ㉠ - ㉦, ㉡ - ㉧, ㉢ - ㉨
- ② ㉠ - ㉦, ㉡ - ㉨, ㉢ - ㉧
- ③ ㉠ - ㉧,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5번

88. 밑줄 친 말에 주목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거기에는 눈이 왔겠다. / 지금 거기에는 눈이 오겠지.

㉡ 그가 집에 갔다. / 막차를 놓쳤으니 나는 집에 다 갔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올 것이다. / 내가 떠날 때 비가 왔다.

㉣ 그는 지금 학교에 간다. / 그는 내년에 진학한다고 한다.

㉤ 오늘 보니 그는 키가 작다. / 작년에 그는 키가 작았다.

- ① ㉠을 보니, 선어말 어미 '-겠-'이 미래의 사건을 추측하는 데에 쓰이고 있군.
- ② ㉡을 보니, 선어말 어미 '-았-'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③ ㉢을 보니,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을 때 미래의 사건을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군.
- ④ ㉣을 보니,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ㄴ-'이 미래의 사건을 나타낼 때도 쓰이고 있군.
- ⑤ ㉤을 보니, 형용사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 시제 선어말 어미가 나타나지 않고 있군.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3번

89. <보기>를 참고하여 학습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옳은 것은? [3점]

<보 기>

일반적으로 사동문은 주어가 다른 대상을 동작하게 하거나 특정한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문장을 가리킨다. 사동문은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한 사동사나 어간에 '-게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의해 만들어진다.

학습 자료		
A: 주동문	B: 사동사에 의한 사동문	C: '-게 하다'에 의한 사동문
㉠ 동생이 숨는다.	누나가 동생을 숨긴다.	누나가 동생을 숨게 한다.
㉡ 동생이 밥을 먹는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인다.	누나가 동생에게 밥을 먹게 한다.
㉢ 실내 온도가 낮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춘다.	누나가 실내 온도를 낮게 한다.
㉣ 동생이 공을 찬다.	해당 사례 없음	누나가 동생에게 공을 차게 한다.

- ① ㉠, ㉡을 보니, A의 주어는 C에서 동일한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군.
- ②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서술어의 자릿수가 늘어나는군.
- ③ ㉡, ㉣을 보니, A가 B로 바뀌면 접문장이 되는군.
- ④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타동사이면 대응하는 사동사가 없군.
- ⑤ ㉢, ㉣을 보니, A의 서술어가 형용사이면 사동문을 만들지 못하는군.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3번

90. <보기>의 ㉠, ㉡에 해당하는 것은? [3점]

<보 기>

우리말의 용언 중에는 피동사와 사동사의 형태가 동일한 것이 있다. 예를 들어, '보다'는 사동사와 피동사가 모두 '보이다'로 그 형태가 같다. 이때 ㉠ 사동사로 쓰인 경우와 ㉡ 피동사로 쓰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문장에서의 쓰임을 통해 구별된다.

□ 동생이 새 시계를 내게 보였다. (사동사로 쓰인 경우)
□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해가 보였다. (피동사로 쓰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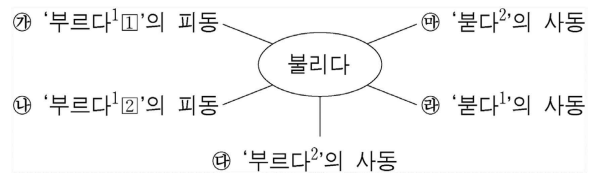
- ① ㉠ : 운동화 끈이 풀렸다.
㉡ : 아빠의 칭찬에 피로가 금세 풀렸다.
- ② ㉠ : 우는 아이가 엄마 등에 업혔다.
㉡ : 누나가 이모에게 아기를 업혔다.
- ③ ㉠ : 나는 젖은 옷을 햇볕에 말렸다.
㉡ : 동생은 집에 가겠다는 친구를 말렸다.
- ④ ㉠ : 새들이 따뜻한 곳에서 몸을 녹였다.
㉡ : 햇살이 고드름을 퉁퉁히 녹였다.
- ⑤ ㉠ : 형이 친구에게 꽃다발을 안겼다.
㉡ : 아기 곰이 어미 품에 포근히 안겼다.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91.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한 ㉠~㉣의 예문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부르다¹ ㉠ ㉠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의 주의를 끌거나 오라고 하다.
㉡ 무엇이라고 가리켜 말하거나 이름을 붙이다.
부르다² ㉢ 먹은 것이 많아 속이 팍 찬 느낌이 들다.
붙다¹ ㉣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붙다² ㉤ 분량이나 수효가 많아지다.



- ① ㉠ :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천재라고 불렀다.
- ② ㉡ : 반장이 가장 먼저 불러 갔다.
- ③ ㉢ : 주먹밥 하나로 아이들의 주린 배를 불릴 수는 없었다.
- ④ ㉣ : 그는 요즘 재산을 불리는데 재미에 빠져 있다.
- ⑤ ㉤ : 메주를 썬다면 콩을 물에 불려야 한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4번

92. <보기>의 ㉠~㉤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3점]

—<보 기>—

- ㉠ 영희 어머니께서는 “네 동생은 착해.”라고 말씀하셨다.
 ㉡ 영희 어머니께서는 내 동생이 착하다고 말씀하셨다.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그대로 옮긴 직접 인용이고, ㉡은 영희 어머니의 발화를 풀어 쓴 간접 인용이다. 그런데 직접 인용을 간접 인용으로 바꿀 때나 간접 인용을 직접 인용으로 바꿀 때는 인용절 속의 어미, 인용 조사, 대명사, 지시 표현, 높임 표현 등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직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내일 사무실에 계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	-------------------------------------

↓

간접 인용	아들이 어제 저에게 (㉠) 사무실에 (㉡) 말했습니다.
-------	------------------------------------

직접 인용	언니는 어제 “나의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남겨라.”라고 나에게 말했다.
-------	---

↓

간접 인용	언니는 어제 (㉢) 휴대 전화에 메시지를 꼭 (㉣) 나에게 말했다.
-------	---

- | | ㉠ | ㉡ | ㉢ | ㉣ |
|---|----|------|-----|------|
| ① | 오늘 | 있으라고 | 자기의 | 남기라고 |
| ② | 어제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③ | 오늘 | 있으라고 | 나의 | 남겨라고 |
| ④ | 오늘 | 계시라고 | 자기의 | 남겨라고 |
| ⑤ | 어제 | 계시라고 | 나의 | 남기라고 |

(부록) 올바른 문장 기출문제 [93~103번]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5번

93. 다음의 ㉠~㉣에 대해 검토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문장의 중의성 해소 방법 학습 활동지 ◆	
중의성 있는 문장	중의성 해소 방법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	'장식물'이 예쁜 경우에는 ㉠ "예쁜, 모자의 장식물이 돋보였다."로 고친다.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	손님들 중 일부만 온 경우에는 ㉡ "손님들 중 일부가 오지 않았어."로 고친다.
언니가 교복을 입고 있다.	교복을 입는 동작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 "언니가 교복을 입는 중이다."로 고친다.
형은 나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	'나'와 '동생'이 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 "형은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 고친다.
나는 웃으면서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인사했다.	'나'가 웃으면서 인사하는 경우에는 ㉤ "나는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웃으면서 인사했다."로 고친다.

- ① ㉠은 "모자의 예쁜 장식물이 돋보였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② ㉡은 "손님들이 다 오지 않았어."로도 고칠 수 있다.
- ③ ㉢은 "언니가 지금 교복을 입고 있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④ ㉣은 "형은 나와 동생 중에서 동생을 더 좋아한다."로도 고칠 수 있다.
- ⑤ ㉤은 "매장에 들어오는 손님에게 나는 웃으면서 인사했다."로도 고칠 수 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3번

94. <보기>의 ㉠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는 주어인 '사실'은 '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

_____ ㉠ _____

-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
-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
-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
-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
-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표현할 방법을 찾았다.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언어영역 12번

95. 문장 표현 상, <보기>와 같은 유형의 잘못을 범한 것은?

<보 기>

나는 어제 사람들이 커다란 나무 밑에서 맛있게 먹고 있는 것을 보았다.

- ① 대통령은 선수촌에 금메달을 딴 선수들을 치하했다.
- ② 집회는 관중도 못 미친 데다 관중들의 이탈이 잦아 어수선한 분위기였다.
- ③ 남자가 적당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동안, 피부 관리로 아름다움을 가졌다.
- ④ 그 수영장은 수강생이 많은데, 거기에서는 수강생들이 오면 건강에 따라 조정해 줬.
- ⑤ 지현이가 친구를 만나 길거리에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데, 인사도 없이 떠나가 버렸다.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4번

96. <자료>와 같이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사항을 <보기>의 ㉠~㉣에서 고른 것은?

<보 기>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
- 너희가 기억할 것은 좋은 지도자는 실패하더라도 좌절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부사어와 연결 어미의 호응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서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그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것을 쓸 줄 모른다.

㉢ 목적어의 누락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궁리하기 시작했다.
- 상대방의 함정에 빠진 그들은 머리를 모아 탈출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다.

㉣ 피동의 중복

- 그것은 오래전에 불려지던 노래이다.
- 그것은 오래전에 불리던 노래이다.

<자 료>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수록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작성할 수 있다.
- 그 프로그램을 쓰면 비록 초보자일지라도 누구나 쉽게 표와 그래프 등을 그려서 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4번

97. <보기 1>의 ㉠~㉣ 중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는 데에 반영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1>

문장을 수정할 때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 문장의 필수 성분이 다 갖추어져 있는가?
 ㉡ 조사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어미가 적절하게 사용되었는가?
 ㉣ 불필요한 의미 중복 표현이 사용되지는 않았는가?

<보기 2>

수정 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하려는 학생들은 각 지역에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수정 후	지난여름 청소년 문화 교류단에 참여한 학생들은 각 지역의 청소년들과 소통하고 유적지를 답사함으로써 즐거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 ⑤ ㉡, ㉢, ㉣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2번

98.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와 같이 문장을 수정하였다. <보기 2>의 (가), (나)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고른 것은?

<보기 1>

정확한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형성하는 규칙인 문법을 잘 지켜야 한다. ㉠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등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는 경우,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등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지켜지지 않은 경우, ㉢ 조사나 어미를 잘못 사용한 경우에는 문법성이 결여되어 바르지 않은 문장이 된다.

<보기 2>

원래의 문장 ⇒ 수정한 문장	고려한 사항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반드시 따라 하지 마세요. ⇒ 이 장면은 연출된 것이니 절대로 따라 하지 마세요.	(가)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 우리는 타인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타인이 나와 평등하다는 생각을 지녀야 한다.	(나)

- | | |
|-----|-----|
| (가) | (나) |
| ① ㉠ | ㉡ |
| ② ㉠ | ㉢ |
| ③ ㉡ | ㉠ |
| ④ ㉡ | ㉢ |
| ⑤ ㉢ | ㉡ |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5번

99.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문장 → 수정한 문장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발을 넣었다. → 그는 양말을 벗고 바위에 앉아서 물에 발을 넣었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 → 내가 주장하는 바는 문화 회관 건설로 주민 생활이 개선된다는 것이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과 피해를 입었다. → 이번 일로 우리는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었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동참합시다. → 우리 모두 쓰레기 줄이기 운동에 동참합시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다. → 이 사람에게 그 일은 여간 기쁜 일이 아니다.

- ① ㉠ : 목적어인 '발을'을 수식하는 관형어가 있어야 한다.
- ② ㉡ : '내가 주장하는 바는'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③ ㉢ : 목적어의 하나인 '불편'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
- ④ ㉣ : 서술어인 '동참합시다'가 요구하는 부사어에 정확한 조사를 사용해야 한다.
- ⑤ ㉤ : 부사 '여간'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호응해야 한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B형 13번

100. 다음은 틀리기 쉬운 문장 표현에 대한 학습 자료이다. 적절하게 고쳐 쓴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가)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제

-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
-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
(예)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였던 것이다.
⇒ 이것은 비단 우리 학교만의 문제가 되어 버렸다... ㉡

(나) 중의적인 문장의 문제

- 접속 표현에 의한 것
(예) 민수와 진희는 결혼을 했다. [둘이 부부인 경우]
⇒ 민수는 진희와 결혼을 했다. ㉢
- 수식 구조에 의한 것
(예) 귀여운 영희 친구가 놀러 왔다. [친구가 귀여운 경우]
⇒ 귀여운 영희의 친구가 놀러 왔다.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2번

101. 다음 중 수정 이유에 따라 고쳐 쓴 문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정확한 문장 표현 익히기
사례 1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이다. ⓐ 이유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사람들은 쾌적한 환경을 위한 조치에 찬성하는 경향인 것이다. ... ①
사례 2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야구나 공을 친다. ⓐ 이유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맞지 않다. → 동생은 평소에 건강을 위해 공이나 야구를 한다. ②
사례 3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기대기도 한다. ⓐ 이유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부사어가 없다. →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기대기도 한다. ③
사례 4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 이유 문장의 의미가 중의적이다. → 사람을 좋아하는 친구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다. ④
사례 5	누구나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 이유 조사가 잘못 사용되었다. → 누구도 자기의 처한 현실에 직시해야 한다. 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3번

102. ㉠~㉣의 잘못된 문장을 수정할 때 고려한 문법적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부정확한 문장	수정 방법	수정한 문장
예의가 바른 사람은 오만하게 <u>대하지</u> 않는다.	'대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하게 <u>지내기도</u> 한다.	'지내기도'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해결책이 <u>되지</u> 는 못했다.	'되지'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선생님께서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u>존경했다</u> .	'존경했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조선을 대표하는 <u>유학자</u> 이다.	'유학자이다'와 어울리는 성분을 찾아 넣는다.	㉤

- ① ㉠ : 예의가 바른 사람은 남에게 오만하게 대하지 않는다.
- ② ㉡ : 우리는 친구에게 화를 내기도 하지만 친구와 친하게 지내기도 한다.
- ③ ㉢ : 정부는 기술을 외국에서 도입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이 되지 못했다.
- ④ ㉣ : 선생님께서는 우리를 많이 아끼셨고 우리 또한 선생님을 존경했다.
- ⑤ ㉤ : 이이의 호는 율곡이며 그는 조선을 대표하는 유학자이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B형 공통 15번

103. 다음 중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 ①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 ②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 ③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 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 ④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모름지기 사람은 남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할 줄도 알아야 한다.
- ⑤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이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문법 평가원 기출문제

III. 감화 & 사전활용

KOREAN
GRAMMAR

기초교육그룹X잇을 설승환

III-(1) 담화 기출문제 [104~111번]

2011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2번

104. <보기>의 [A]에 들어갈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화자는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의 출처를 '직접 경험', '추측', '전해 들음'으로 구분하여 문장에 담아 표현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비가 많이 왔구나."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지금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구나'를 통해 드러난다. 또한 "비가 많이 오더라."에서는 비가 많이 왔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그 당시에 직접 봄'으로써 알게 되었다는 의미도 확인되는데, 그러한 의미는 어미 '-더-'를 통해 드러난다.

다음 대화의 밑줄 친 부분도 정보의 출처를 드러내는 기능을 가진 어미들이다.

[A]

- ① 딸 : 오늘 날씨가 어땠대요?
아버지 : 눈이 아주 많이 온대.
- ② 여학생 : 같이 점심 먹으러 가자.
남학생 : 나는 조금 있다가 먹올래.
- ③ 학생 1 : 선생님께서 출석을 점검하러서.
학생 2 : 어찌지? 철수가 아직도 안 왔네.
- ④ 김 대리 : 김 과장님 공항에 도착하셨을까?
이 대리 : 한 시간쯤 지났으니까 도착하셨을걸.
- ⑤ 아들 : 오늘은 바람이 불어서 그나마 시원하네요.
어머니 : 집에 있어서 몰랐지만, 어제는 무척 더웠잖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4번

105. <보기>를 참고할 때, ㉠~㉣ 중 표현하는 방식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보 기>

화자는 자신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밥을 먹으러 가고 싶을 때, "밥 먹으러 가자."처럼 청유형 어미 '-자'를 사용하여 의도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벌써 점심 시간이네."처럼 평서형 어미 '-네'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 (귀가한 후 누나에게)
- ① 동생 : ㉠ 아, 목마르다.
누나 : 자, 물 여기 있어.
- (추운 교실에서 창가에 앉은 학생에게)
- ② 선생님 : ㉡ 창문이 열렸네.
학생 : 네, 닫을게요.
-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모를 때)
- ③ 행인 A : ㉢ 구청에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행인 B : 오른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돼요.
- (옷을 빌려 달라는 동생에게)
- ④ 언니 : ㉣ 너 나한테 맡겨 둔 옷 있니?
동생 : 알았어. 내 옷 입을게.
- (추운 겨울, 실내로 들어오는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 ⑤ 제자 : 선생님, ㉤ 여기 따뜻한 차입니다.
선생님 : 그래, 잘 마실게.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106. <보기>의 ㉠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인 것은?

<보 기>

청자에게 명령·요청·부탁을 하거나 동의를 구할 때, 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특정한 문장 형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창문을 열어 주십시오."라는 명령문 대신 "창문을 열어 주시겠습니까?"라는 의문문을 사용함으로써 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효과를 얻는다. 이러한 효과는 ㉠ 특정한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하여 연을 때도 있다.

- ① 가는 길에 이 편지 쭈 부쳐 주세요.
- ②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③ 이 동네에는 꽃집이 열 없을 것 같지?
- ④ 이게 몸에 좋다니 한입에 죽 들이켜라.
- ⑤ 이번 시험이 지난번보다 더 쉽지 않았나?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107. <보기>의 설명을 참고할 때, 인용 발화로는 보기 어려운 것은?

<보 기>

어떤 사람의 말을 남에게 전달하는 말을 인용 발화라 한다. 책, 신문, 방송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게 된 일을 전달하는 말도 인용 발화로 본다. 인용 발화는 대개 특수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 일반 발화와 구분되어 쓰이나, 간혹 일반 발화도 인용 발화의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 ① 지금 저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쁘답니다.
- ② 어제는 열차가 30분이나 연착했답니다.
- ③ 밖에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 ④ 어렸을 적에 저는 개구쟁이였답니다.
- ⑤ 그 나라 풍습은 정말 흥미롭답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5번/14번

108.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탐구 목표	실제 담화를 분석하여, 화자와 청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탐구 자료	<p>[은미의 고모가 은미 집을 찾아온 상황]</p> <p>할머니 : 어서 와라. ㉠ <u>김</u> 서방도 잘 지내지?</p> <p>고 모 : 네, 엄마. ㉡ <u>그이</u>도 잘 지내요. 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p> <p>엄 마 : 네, ㉢ <u>아가씨</u>. 배고프실 텐데 과일 좀 드세요.</p> <p>고 모 : 고마워요, 언니. 은미야, 공부하느라 힘들지?</p> <p>은 미 : 아니에요, ㉣ <u>고모</u>. 고모부는 같이 안 오셨어요?</p> <p>고 모 : 응, ㉤ <u>고모부</u>는 다른 약속이 있어서 못 왔어.</p>
탐구 결과	(가)

- ① ㉠과 ㉡을 보면, 화자와 청자가 맞바뀌어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② ㉠과 ㉢을 보면, 청자는 같지만 화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③ ㉠과 ㉤을 보면, 화자도 다르고 청자도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④ ㉡과 ㉤을 보면, 화자는 같지만 청자가 달라 동일한 인물이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 ⑤ ㉢과 ㉣을 보면, 화자가 달라 동일한 청자가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3번

109. <보기>의 담화 상황에서 ㉠~㉣가 가리키는 대상이 같은 것끼리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 기>

(수빈, 나경, 세은이 대화를 하고 있다.)

수빈 : 나경아, 머리핀 못 보던 거네. 예쁘다.

나경 : 고마워. ㉠ 우리 엄마가 얼마 전 새로 생긴 선물 가게에서 사 주셨어.

세은 : 너희 어머니 참 자상하시네. 나도 그런 머리핀 하나 사고 싶은데 ㉡ 우리 셋이 지금 사러 갈까?

수빈 : 미안해.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 우리 집에 일이 있어 못 갈 것 같아.

세은 : 그래? 그럼 할 수 없네. ㉣ 우리끼리 가지, 뭐.

나경 : 그래, 수빈아. 다음엔 꼭 ㉤ 우리 다 같이 가자.

- ① ㉠—㉡ ② ㉠—㉣ ③ ㉡—㉣
- ④ ㉢—㉣ ⑤ ㉢—㉤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3번

11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엄마와 아들이 둘이서 걸어가며)

아들 : 엄마, 올해 마지막 날 엄마와 쇼핑 나와서 참 좋아요.

엄마 : ㉠ 얼마도 영수랑 같이 나오니까 참 좋다.

아들 : 어, 저거 뭐지? 엄마, 저 옷 가게 광고판 좀 보세요.

엄마 : 뭐? ㉡ 저건?

아들 : 네, ㉢ 저거요. '2015년 12월 30일, ㉣ 오늘 하루만 50% 할인'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엄마 : 그래? 그러면 ㉤ 어제였네. ㉥ 누나 옷 사야 되는데.

아들 : 엄마, 그 옆 가게는 오늘까지 할인하는데요. 그런데 제 옷도 사 주시면 안 돼요?

엄마 : 그래. 알았어, ㉦ 우리 아들. ㉧ 영수도 옷 사 줘야지.

아들 : 와, 잘됐다. 다음 주 여행 갈 때 입고 가야겠다.

- ① ㉠과 ㉥은 청자의 관점에서 사용한 지칭어이다.
- ② ㉠과 ㉣은 현재의 담화 상황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③ ㉡과 ㉣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킨다.
- ④ ㉢과 ㉥은 동일한 날을 가리킨다.
- ⑤ ㉤과 ㉣은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킨다.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5번

111. 담화 상황을 고려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A : 어제 낮엔 많이 바빴니? 전화를 바로 끊더라.
 B : 아니야, 끊은 게 아니라 ㉠ 끊어진 거야. 바로 전화 못해서 미안해.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었어?
 A : 아니, ㉡ 저기, 심각한 건 아니고. 어제 점심에 도서관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기다려도 안 오길래 말이야.
 B : ㉢ 아차! 내가 먼저 얘기하려고 했는데 깜빡했네. 가려고 했는데 ㉣ 못 갔어.
 A : ㉤ 자세히 말해 볼래?
 B : 동생이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했거든.
 A :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생은 좀 괜찮니?

- ① ㉠ : 피동 표현을 사용하여 상황이 B의 의지와 무관하게 일어났음을 나타낸다.
- ② ㉡ : 지시 대명사를 사용하여 B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관심을 유도한다.
- ③ ㉢ : 감탄사를 사용하여 A의 발화를 듣고 어떤 것을 갑자기 깨달았음을 나타낸다.
- ④ ㉣ : 부정 부사 '못'을 사용하여 B에게 일어난 상황이 불가피했음을 나타낸다.
- ⑤ ㉤ : 의문 표현을 사용하여 B에게 일의 까닭을 상세히 말해달라고 요청한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III-(2) 사전 활용하기 기출문제 [112~122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A형 13번

112. 다음은 ‘치다’의 의미 학습을 위해 활용한 사전의 일부이다. 탐구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치다¹ 동 […을]

㉠ 손이나 손에 든 물건이 세게 닿거나 부딪게 하다.
 ¶ 날아오는 공을 치다/주먹으로 얼굴을 치다.

㉡ 손이나 물건 따위를 부딪쳐 소리 나게 하다.
 ¶ 손뼉을 치다/피아노를 치다.

[속담] **치러 갔다가 맞기도 예사** 남에게 무엇을 요구하러 갔다가 도리어 요구를 당하는 일도 흔히 있다는 말.

치다² 동 […을]

㉢ 가축이나 가금 따위를 기르다.
 ¶ 양을 치다/삼촌은 돼지를 쳐서 생계를 유지한다.

㉣ 식물이 가지나 뿌리를 밖으로 돌아 나오게 하다.
 ¶ 나무가 가지를 많이 쳐서 제법 무성하다.

- ① ‘치다’와 ‘치다²’는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된 걸 보니 동음이의어겠군.
- ② ‘치다’ ㉠ 뜻의 유의어로는 ‘때리다’가 가능하겠군.
- ③ ‘치다’의 속담은 ‘치다’와 ‘맞다’의 반의 관계를 이용한 것이군.
- ④ ‘치다’ ㉠ 뜻을 보니 ‘아이를 기르다.’의 의미로 ‘아이를 치다.’를 쓸 수는 없겠군.
- ⑤ ‘치다’ ㉡ 뜻의 용례로 ‘농부가 낮으로 잔가지를 쳐 냐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5번

113.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바라다¹ [바라, 바라니] 동 […을]

㉠ […-기를]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
 ¶ 요행을 바라다 /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란다.

㉡ 원하는 사물을 얻거나 가졌으면 하고 생각한다.
 ¶ 돈을 바라고 너를 도운 게 아니다.

바래다¹ [바:-] (바래어(바래), 바래니) 동

㉢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하다.
 ¶ 빛 바랜 편지 / 색이 바래다

㉣ […을] 별에 찍거나 약물을 써서 빛깔을 희게 하다.
 ¶ 이불을 별에 바래다

- ① 바라다¹와 바래다¹은 모두 다의어이다.
- ② 바라다¹와 바래다¹㉣은 주어 이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 ③ 바라다¹에 의하면, “나는 너의 성공을 바래.”의 ‘바래’는 ‘바라’의 잘못이다.
- ④ 바래다¹의 첫 음절은 장음으로 발음된다.
- ⑤ 바래다¹㉣의 용례로 ‘종이가 누렇게 바래다’를 추가할 수 있다.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3번

114.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옳지 않은 것은?

갈-리다¹ 동

㉠ ‘갈다’ ①의 피동사.
 ¶ 맷돌에 콩이 갈리다.

㉡ ‘갈다’ ②의 피동사.
 ¶ 버루에 먹이 잘 갈리다.

갈-리다² 동 ‘갈다’의 피동사.
 ¶ 논이 깊이 갈리다.

- ① ‘갈-리다’를 보니, ‘갈다’는 다의어이겠군.
- ② ‘갈-리다’와 ‘갈-리다²’를 보니, ‘갈다’와 ‘갈다²’는 품사가 다르겠군.
- ③ ‘갈-리다’를 보니, ‘갈-리다’는 ‘갈다’에 피동 접미사가 결합된 단어이겠군.
- ④ ‘갈-리다’ ①을 고려할 때, ‘갈다’ ①의 용례로 ‘맷돌에 콩을 갈다.’가 가능하겠군.
- ⑤ ‘갈-리다²’를 고려할 때, ‘갈다’는 ‘농기구나 농기계로 땅을 파서 뒤집다.’의 의미이겠군.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2번

115.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예 ㉠

㉠ ① 앞말이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동생은 지금 집에 없다.

② 앞말이 진행 방향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형은 방금 집에 왔다.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에서 ㉢

① 앞말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처소의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② 앞말이 출발점의 뜻을 갖는 부사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③ (단체를 나타내는 명사 뒤에 붙어) 앞말이 주어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 ① '예'는 격 조사와 접속 조사로 쓰일 수 있는 반면, '에서'는 격 조사로만 쓰이는군.
- ② '예㉠'의 용례로, "오늘 저녁은 밥에, 국에, 떡에 아주 잘 먹었다."를 들 수 있겠군.
- ③ '에서㉢'의 용례로 "우리 학교에서 사람들이 운동을 한다."를 들 수 있겠군.
- ④ '예㉠㉡'의 용례에 쓰인 '예'는 '에서'로 바뀌 쓸 수 없군.
- ⑤ '예㉠㉡'의 용례에 쓰인 '예'를 '에서'로 바꾸면 문장의 의미가 바뀌는군.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B형 공통 14번

116.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크다 ㉠ ㉡ ㉠ 길이, 넓이, 높이, 부피 따위가 보통 정도를 넘다.
 ¶ 눈이 크다/글씨를 크게 적는다.

㉡ 신, 옷 따위가 맞아야 할 치수 이상으로 되어 있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힘 따위가 대단하거나 강하다.

㉣ 동식물이 몸의 길이가 자라다.
 ¶ 키가 몰라보게 크는구나.

반의어 크다 ㉠ ↔ 작다

작다 ㉣ ㉣ 길이, 넓이, 부피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보다 덜하다.

㉣ 정하여진 크기에 모자라서 맞지 아니하다.

㉤ 일의 규모, 범위, 정도, 중요성 따위가 비교 대상이나 보통 수준에 미치지 못하다.

반의어 작다 ↔ 크다 ㉠

- ① '크다 ㉠'과 '크다 ㉡'는 품사의 차이에 따라 구분된 것이겠군.
- ② '크다 ㉠ ㉠'의 용례에서 '크다'를 '작다'로 바꾸면 '작다 ㉠'의 용례가 되겠군.
- ③ '크다 ㉡'는 뜻풀이와 용례로 보아 '작다 ㉣'과 반의 관계를 이루겠군.
- ④ '작다 ㉣'의 용례로 '키가 자라서 바지가 작다.'를 들 수 있겠군.
- ⑤ '작다 ㉣'의 용례로 '작은 실수를 하다.'를 들 수 있겠군.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3번

117.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굳다 [굳어, 굳으니, 굳는] ㉠ ㉡

㉠ 무른 물질이 단단하게 되다. ㉡ 시멘트가 굳다
㉢ 근육이나 뼈마디가 뻣뻣하게 되다. ㉣ 허리가 굳다

㉢ ㉣ 흔들리거나 바뀌지 아니할 만큼 힘이나 뜻이 강하다.
㉠ 굳은 결심 / 성을 굳게 지키다

반의어 ㉠ ㉢ 녹다 ㉡ ㉣

녹다 [녹아, 녹으니, 녹는] ㉢

㉠ ㉢ 얼음이나 얼음같이 매우 차가운 것이 열을 받아 액체가 되다. ㉡ 얼음이 녹다 / 눈이 녹다
㉣ 고체가 열기나 습기로 말미암아 제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하고 물러지거나 물처럼 되다. ㉠ 옛이 녹다

㉡ 【...에】
㉢ 결정체(結晶體) 따위가 액체 속에서 풀어져 섞이다. ㉠ 소금이 물에 녹다
㉣ 어떤 물체나 현상 따위에 스며들거나 동화되다.
㉡ 우리 정서에 녹아 든 외국 문화

반의어 ㉠ ㉣ 굳다 ㉡ ㉢

- ① '굳다'는 '녹다'와 달리 두 개의 품사로 쓰인다.
- ② '시멘트가 굳다'의 '굳다'와 '옛이 녹다'의 '녹다'는 반의 관계이다.
- ③ '굳다㉡'의 용례로 '마음을 굳게 단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④ '녹다㉡ ㉣'의 용례로 '글에는 글쓴이의 생각이 녹아 있다.'를 추가할 수 있다.
- ⑤ '초콜릿이 순식간에 녹았다.'의 '녹다'는 '녹다㉡ ㉢'에 해당하므로 주어 외에도 다른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B형 공통 14번

118. 다음은 '사전 활용하기' 학습 활동을 위한 자료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같이[가치]

㉠ ㉡

㉠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다

㉢ 어떤 상황이나 행동 따위와 다름이 없이.
㉣ 예상한 바와 같이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 ㉣

㉠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 조사.
㉡ '얼음장같이' 차가운 방바닥

㉢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 조사.
㉣ 새벽같이 떠나다

같이-하다[가치--] ㉢ ㉣ 【(…과)…을】

㉠ 경험이나 생활 따위를 얼마 동안 더불어 하다.
= 함께하다㉠.
㉡ 친구와 침식을 같이하다/평생을 같이한 부부

㉢ 서로 어떤 뜻이나 행동 따위를 동일하게 가지다.
= 함께하다㉡.
㉣ 그와 의견을 같이하다/견해를 같이하다

- ① '같이'의 품사 정보와 뜻을 보니, '같이'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로군.
- ② '같이'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같이㉡㉢'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
- ③ '같이'와 '같이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같이하다'는 '같이'에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로군.
- ④ '같이하다'의 문형 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같이하다'는 두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고, 세 자리 서술어로도 쓰일 수 있군.
- ⑤ '같이하다'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한 부부'의 '같이한'은 '함께한'으로 교체하여 쓸 수 있겠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4번/B형 15번

119.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더-하다

㉠ ㉠

【…보다】 어떤 기준보다 정도가 심하다. 『추위는 작년보다 올해가 더하다.』

㉡ 동사

① ㉡ 【…을 (…과)】 ((‘…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는 목적어가 복수의 의미를 지닌다)) 더 보태어 늘리거나 많게 하다. 『둘에 셋을 더하면 다섯이다. / 2만 원을 3만 원과 더하면 5만 원이다. / 아래의 숫자들을 모두 더하십시오.』

② 【…을】 【…에/에게 …을】 어떤 요소가 더 있게 하다. 『너의 격려는 나의 자신감을 더해 준다. / ㉡ / 그의 표정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더해 주었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

덜-하다 형용사

【…보다】 어떤 기준이나 정도가 약하다. 『찌개 맛이 어제보다 덜하다.』

반의어 ㉢

- ① ㉠에 들어갈 말은 ‘형용사’이다.
- ② ㉡에 들어갈 말은 【…에 …을】이다.
- ③ ㉢에는 ‘그의 등장은 영화에 재미를 더했다.’를 넣을 수 있다.
- ④ ㉡에는 ‘그들의 횡포가 점점 더한다.’를 넣을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더하다㉡’이다.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2번

120. <보기>에 제시된 국어사전의 정보를 완성한다고 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과 『조사』 (받침 있는 체언 뒤에 붙어)

㉠

① 다른 것과 비교하거나 기준으로 삼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 조사. 『막내는 큰형과 닮았다. / ㉠』

② 일 따위를 함께 함을 나타내는 격 조사. 『나는 방에서 동생과 조용히 공부했다. / ㉡』

③ 상대로 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 『그는 거대한 폭력 조직과 맞섰다.』

③ 어떤 정도나 상태가 더 크거나 심하게 되다. 『그는 갈수록 고약한 잠버릇이 더했다. / ㉣』

㉡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주는 접속 조사. 『닭과 오리는 동물이다. / 책과 연필을 가져와라.』

유의어 하고, ㉡

형태 정보 받침 없는 체언 뒤에는 ‘ ㉢’가 붙는다.

- ① ㉠에는 ‘그는 낯선 사람과 잘 사귀다.’를 넣을 수 있다.
- ② ㉡에는 ‘그는 형님과 고향에 다녀왔다.’를 넣을 수 있다.
- ③ ㉢에 들어갈 말은 ‘격 조사’이다.
- ④ ㉡에 ‘이랑’이 들어갈 수 있다.
- ⑤ ㉢에 들어갈 말은 ‘와’이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0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4번

121. <보기>는 국어사전 편찬을 위하여 언어 자료를 컴퓨터로 처리한 작업 결과의 일부이다. <보기>의 예를 바탕으로 <국어사전>의 ㉠에 뜻을풀이를 추가할 때 적절한 것은?

<보 기>

⋮

그들도 서로 약혼한 소문을 (듣고) 있었다.
그는 내 말을 완전히 농담으로 (듣고) 있었다.
사냥 갔다가 그만 혼났다는 이야기는 석림이도 (듣고) 왔었다.
나무 장수는 여편네의 목소리를 (듣고) “여보 사람이
조카 만주 갔다 온 이야기를 수천 양반이 자세히 (듣고) 아마 직접
새 소리, 벌레 소리도 (듣고) 앞 강을 스쳐오는
바보같이 그까짓 소리를 고깝게 (듣고) 그래.
⋮

<국어사전>

듣다 [-따] [들어, 들으니, 듣는[듣-]] ㉠

㉠ 감각 기관을 통해 소리를 알아차리다.
㉡ 일정한 내용을 가진 말을 전달한다.
㉢ _____

- ① 주로 약 따위가 효험을 나타내다.
- ②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여 그렇게 하다.
- ③ 기계나 장치 따위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다.
- ④ 어떤 것을 무엇으로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다.
- ⑤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소리에 스스로 귀 기울이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5번

122. <보기>는 사전의 개정 내용을 정리한 자료의 일부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개정 전	개정 후
㉠	꺾다 ㉠ 「1」 손톱이나 뽀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가죽을 문지르다. ⋮ 「9」 ……	꺾다 ㉠ 「1」 손톱이나 뽀족한 기구 따위로 바닥이나 가죽을 문지르다. ⋮ 「9」 …… 「10」 물건 따위를 구매할 때 카드로 결제하다.
㉡	김-밥 [김 : 밥] ㉡ ……	김-밥 [김 : 밥/김 : 뽕] ㉡ ……
㉢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냄새.	냄새 ㉢ 「1」 코로 맡을 수 있는 온갖 기운. 「2」 어떤 사물이나 분위기 따위에서 느껴지는 특이한 성질이나 냄새.
㉣	내음 ㉣ ‘냄새’의 방언(경상).	내음 ㉣ 코로 맡을 수 있는 나쁘지 않거나 향기로운 기운. 주로 문학적 표현에 쓰인다.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9개의 행성, ……	태양-계 ㉤ 태양과 그것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천체의 집합. 태양, 8개의 행성, ……
㉥	(표제어 없음)	스마트-폰 ㉥ 휴대 전화에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

※ 사전의 개정 내용은 표준어와 표준 발음의 최신 정보를 반영한 것임.

- ① ㉠ : 표제어의 뜻풀이가 추가되어 다의어의 중심적 의미가 수정되었군.
- ② ㉡ : 표준 발음이 추가로 인정되어 기존의 표준 발음과 함께 제시되었군.
- ③ ㉢ : 방언이었던 단어가 표준어의 지위를 얻고 뜻풀이도 새롭게 제시되었군.
- ④ ㉣ : 과학적 정보를 반영하여 뜻풀이 일부가 갱신되었군.
- ⑤ ㉥ : 새로운 문물을 지칭하는 신어가 표제어로 추가되었군.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문법 평가원 기출문제

IV. 음운

KOREAN
GRAMMAR

기초교육연구원  설승환

IV-(1) 음운과 음운 체계 기출문제 [123~124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A형 11번

123. 다음은 '음운'에 대한 학습 활동지 중 일부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ㄱ) '발'의 초성, 중성, 종성을 다른 음운으로 바꾸어 여러 단어를 만들어 보자. ○ 초성을 바꾼 경우(달, 살) ○ 중성을 바꾼 경우(불, 불) ○ 종성을 바꾼 경우(밥, 방)	(ㄴ) 다음 단어를 길게 발음할 때와 짧게 발음할 때의 차이를 이용해 문장을 만들어 보자. <table border="1" style="margin: 10px auto;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h colspan="2">눈</th> </tr> <tr> <td style="padding: 5px;">길게 발음할 때</td> <td style="padding: 5px;">짧게 발음할 때</td> </tr> <tr> <td style="padding: 5px;">눈이 평평 내린다.</td> <td style="padding: 5px;">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td> </tr> </table>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눈							
길게 발음할 때	짧게 발음할 때						
눈이 평평 내린다.	아이 눈이 초롱초롱하다.						

↓

(ㄱ)과 (ㄴ)을 함께 고려할 때 ㉠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음운은 문자로 표기할 수 있다
- ② 음운은 단어의 뜻을 구별해 준다
- ③ 음운은 일정한 조건에서 변화한다
- ④ 음운은 어떤 위치든 나타날 수 있다
- ⑤ 음운은 감정의 차이를 표현할 수 있다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1번

124.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국어의 '음절'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자 료> —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를 음절이라고 한다. 현대 국어의 음절 유형은 다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ㄱ.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예 아, 야, 와, 의)
- ㄴ. '초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예 끼, 노, 며, 소)
- ㄷ. '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예 알, 억, 영, 완)
- ㄹ. '초성+중성+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예 각, 녹, 딸, 형)

- ① 초성에는 최대 두 개의 자음이 온다.
- ② 중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모음이다.
- ③ 종성에 올 수 있는 음운은 자음이다.
- ④ 초성 또는 중성이 없는 음절도 있다.
- ⑤ 모든 음절에는 중성이 있어야 한다.

IV-(2) 음운의 변동 기출문제 [125~137번]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1번

125. 다음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다음 단어들을 발음해 보고 단계별 활동을 수행해 보자.

부엌, 간, 옷, 빛, 달, 섬, 앞, 창

- (1)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 보자. (㉠)
- (2) 음절 끝의 자음이 안 바뀌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아보자. (㉡)
- (3)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는 경우에는 어떤 자음으로 변하는지 정리해 보자. (㉢)
- (4) (3)과 동일한 음운 변동이 일어난 예들을 더 찾아보자. (㉣)
- (5) 이상의 활동을 바탕으로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의 목록을 정리해 보자. (㉤)

- ① ㉠ : 음절 끝의 자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는 '부엌, 간, 달, 섬, 창'이다.
- ② ㉡ : 음절 끝의 자음이 예사소리일 때에는 바뀌지 않는다.
- ③ ㉢ : 음운 변동이 일어나면 'ㄱ, ㄴ, ㄷ' 중 하나로 바뀐다.
- ④ ㉣ : 'ㅍ'과 'ㅁ'을 음운 변동의 예로 추가할 수 있다.
- ⑤ ㉤ : 음절 끝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만 발음된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1번

126.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보 기>

학 생 : ‘식물’이 [식물]로 발음되는데,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조음 위치나 방식 중 무엇이 바뀐 것인가요?
 선생님 : 아래의 자음 분류표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아봅시다.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연구개음
조음 방식				
과열음		ㅂ	ㄷ	ㄱ
비 음		ㅁ	ㄴ	ㅇ

이 표는 국어 자음을 조음 위치와 조음 방식에 따라 분류한 자음 체계의 일부입니다. ‘식’의 ‘ㄱ’이 ‘물’의 ‘ㄴ’ 앞에서 [ㅇ]으로 발음되지요. 이와 비슷한 예들은 ‘입는[임는]’, ‘뜯는[띯는]’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학 생 : 세 경우 모두 두 자음이 만나서 발음될 때, ㉠이/가 변했네요.

- ① 앞 자음의 조음 방식
- ② 뒤 자음의 조음 방식
- ③ 두 자음의 조음 방식
- ④ 앞 자음의 조음 위치
- ⑤ 뒤 자음의 조음 위치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A형 11번

127.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어떤 음운이 주위에 있는 다른 음운의 영향을 받아 그것과 동일한 음운으로 바뀌거나, 조음 위치 또는 조음 방법이 그것과 같은 음운으로 바뀌는 현상을 동화라고 합니다. 그럼 ㉠~㉣ 중에서 하나를 골라 그것이 동화인지 아닌지 판단해 보고 그 이유를 말해 봅시다.

㉠ 들+고 → [들꼬] ㉡ 놓+고 → [노코]
 ㉢ 훔+네 → [훔레] ㉣ 뿔+느라 → [뿔느라]
 ㉤ 넓+더라 → [널떠라]

학 생 : _____ [가]

- ①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ㄱ’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ㄱ’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ㄱ’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②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ㅎ’이 ‘ㄱ’의 영향을 받아 ‘ㅎ’과 거센소리라는 점이 같은 ‘ㅋ’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③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같은 위치에서 소리 나는 ‘ㄷ’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④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ㄴ’의 영향을 받아 ‘ㄴ’과 콧소리라는 점이 같은 ‘ㄴ’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 ⑤ ㉤은 동화입니다. 왜냐하면 ‘ㄴ’이 ‘ㄷ’의 영향을 받아 ‘ㄷ’과 동일한 소리인 ‘ㄷ’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1번

128. 다음의 ㉠에 해당하는 것을 ㉠~㉣ 중에서 고른 것은?

[모음의 변동]

단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단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면 모음의 변동이 자주 일어난다. 모음 변동의 결과 두 개의 단모음 중 하나가 없어지기도 하고, ㉠ 두 개의 단모음이 합쳐져 이중 모음이 되기도 하며, 단모음 사이에 반모음이 첨가되기도 한다.

[모음 변동의 사례]

㉠ 기+어 → [기여]
 ㉡ 살피+어 → [살펴]
 ㉢ 배우+어 → [배워]
 ㉣ 나서+어 → [나서]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1번

133. 다음 ㉠~㉣의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 빗 → [빔], 앞 → [압], 안팎 → [안팍]
- ㉡ 약밥 → [약뻘], 잡다 → [잡따]
- ㉢ 놓지 → [노치], 만형 → [마형]

- ① ㉠과 ㉡은 음절 종성에 놓인 자음이 바뀌는 변동이다.
- ② ㉠은 거센소리를 예사소리로, ㉢은 거센소리를 된소리로 바꾸는 변동이다.
- ③ ㉠과 ㉢의 변동이 모두 일어난 예로 '따뜻하다 → [따뜨타다]'를 들 수 있다.
- ④ ㉡과 ㉢의 변동은 뒤의 자음이 앞의 자음에 동화된 것이다.
- ⑤ ㉡은 음운의 첨가에, ㉢은 음운의 축약에 속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A형 11번

134. 다음 ㉠~㉣에서 일어나는 음운 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3점]

- ㉠ 옹지 → [올치], 좁히다 → [조피다]
- ㉡ 끊어 → [끄너], 쌓이다 → [짜이다]
- ㉢ 솟도 → [숯또], 웃고름 → [은꼬름]
- ㉣ 닭는 → [당는], 부엌문 → [부엌문]
- ㉤ 읽지 → [익찌], 흘거나 → [홀꺼나]

- ① ㉠, ㉡ : 'ㅎ'과 다른 음운이 결합하여 한 음운으로 축약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② ㉠, ㉢, ㉤ : 앞 음절의 종성에 따라 뒤 음절의 초성이 된소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③ ㉢, ㉣ : '깃다 → [깁따]'에서처럼 음절 끝에서 발음되는 자음이 7개로 제한되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④ ㉣ : '겉모양 → [진모양]'에서처럼 앞 음절의 종성이 뒤 음절의 초성과 조음 위치가 같아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 ⑤ ㉢, ㉤ : '앉고 → [안꼬]'에서처럼 받침 자음의 일부가 탈락하는 현상이 일어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3번

135.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맑+네 → [망네]
 - ㉡ 낮+일 → [난닐]
 - ㉢ 꽃+말 → [꼐말]
 - ㉣ 꺾+고 → [글꼬]

- ① ㉠ : '맑+도 → [갑또]'에서처럼 음절 끝에 둘 이상의 자음이 오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② ㉠, ㉢ : '입+니 → [입니]'에서처럼 인접하는 자음과 조음 방법이 같아진 음운 변동이 있다.
- ③ ㉡ : '불+약 → [불략]'에서처럼 자음이 교체된 음운 변동이 있다.
- ④ ㉡, ㉢ : '팔+죽 → [판죽]'에서처럼 음절 끝에 올 수 있는 자음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음운 변동이 있다.
- ⑤ ㉣ : '읽+지 → [일찌]'에서처럼 자음이 축약된 음운 변동이 있다.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3번

136. <보기>를 바탕으로 음운 변동 사례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교체, 탈락, 축약, 첨가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 음운 개수의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먼저 '집일[짐닐]'은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늘었다. 그런데 '닭만[당만]'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고, '뜻하다[뜨타다]'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줄었다. 한편 '말는[만는]'은 교체가 두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다.

- ① '흙하고[흐카고]'는 탈락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줄었군.
- ② '저녁연기[저녕년기]'는 첨가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두 개 늘었군.
- ③ '부엌문[부엌문]'과 '볶는[봉는]'은 교체가 한 번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변하지 않았군.
- ④ '엷지[언찌]'와 '뭍고[물꼬]'는 교체 및 축약이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한 개 줄었군.
- ⑤ '넉네[넉레]'와 '맑는[방는]'은 탈락 및 교체가 일어나 음운의 개수가 각각 두 개 줄었군.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4번

137. <보기>의 음운 변동을 분석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흡일 → [홍닐] ㉡ 닳는 → [달른] ㉢ 발야구 → [발랴구]

- ① ㉠~㉢은 각각 2회 이상의 음운 변동이 일어났다.
- ② ㉠~㉢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음운 변동은 첨가이다.
- ③ 음운 변동의 결과 음운의 개수에 변화가 없는 것은 ㉠이다.
- ④ ㉡과 ㉢에서 일어난 음운 변동의 횟수는 같다.
- ⑤ ㉢에서 첨가된 음운은 ㉠에서 첨가된 음운과 같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부록) 표준 발음법 기출문제 [138~147번]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1번

138. <보기>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 기>

모음의 표준 발음

- 국어의 단모음은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ㅛ, ㅠ’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 특히 ‘ㅛ’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꺄]와 같아진다.
- ‘예, 레’ 이외의 ‘ㄷ’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ㅣ’는 항상 [ㅣ]로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꺄]로 발음할 수 있다.

- ① ‘개’와 ‘꺄’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② ‘금꺄’를 [꺄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지꺄’를 [꺄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비꺄다’와 ‘비꺄다’를 모두 [꺄꺄다]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 ⑤ ‘층의의 뜻’에서 ‘층의의’를 [꺄꺄]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1번

139. <보기>의 표준 발음 자료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표준 발음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해설 이 조항은 ㉠ 받침 발음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다.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모든 받침은 제시된 7개의 자음 중 하나로만 발음할 수 있을 뿐이다.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 두 가지 음운 변동이 적용된다. 하나는 ㉡ 자음이 탈락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 자음이 다른 자음으로 교체되는 것이다.

표준 발음 자료
 입다[익따], 읊는[음: ㄴ], 닦지[닥찌], 읊기[읍꺄], 밭는[밭: ㄴ]

- ① ‘입다[익따]’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② ‘읊는[음: ㄴ]’은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③ ‘닦지[닥찌]’는 ㉠을 지키기 위해 ㉢이 적용되었다.
- ④ ‘읊기[읍꺄]’는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 ⑤ ‘밭는[밭: ㄴ]’은 ㉠을 지키기 위해 ㉡, ㉢이 모두 적용되었다.

2011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2번

140. <보기>는 겹받침 뒤에 자음으로 시작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될 때, 겹받침의 자음 중 발음되는 것을 [] 속에 적은 ‘표준 발음’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맑-도록 [ㄱ]	늪-지 [ㄱ]	읽-지 [ㄱ]
㉡ 맑-꺄 [ㄹ]	늪-고 [ㄹ]	읽-거나 [ㄹ]
㉢ 닭-꺄이 [ㄱ]	흙-꺄 [ㄱ]	읽-꺄 [ㄱ]
㉣ 얹-도록 [ㄹ]	늪-지 [ㄹ]	밭-도록 [ㅂ]
㉤ 얹-꺄 [ㄹ]	늪-고 [ㄹ]	밭-꺄 [ㅂ]

- ①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②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같군.
- ③ ㉣, ㉤를 보니, ‘ㄹ’의 발음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올 때가 서로 다르군.
- ④ ㉣, ㉤를 보니,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얹-’, ‘늪-’의 경우와 ‘밭-’의 경우가 서로 다르군.
- ⑤ ㉣, ㉤를 보니, 동일 용언 어간의 ‘ㄹ’의 발음은 ‘ㄷ’이나 ‘ㅈ’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ㄱ’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와 서로 다르군.

2015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1번

141. <보기>의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오늘은 겹받침 ‘ㄹ’의 표준 발음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ㄹ’과 관련한 발음 원칙을 정리한 내용을 잘 보세요.

㉠ 겹받침 ‘ㄹ’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ㄹ]으로 발음한다.

㉡ 겹받침 ‘ㄹ’은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 뒤의 ‘ㄹ’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 어간의 겹받침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ㅂ,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선생님 : 자, 그러면 겹받침 ‘ㄹ’을 갖는 말의 표준 발음이 ㉠~㉢ 중 어느 발음 원칙과 관련되는지 말해 봅시다. 모음의 장단(長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학 생 : _____ [가]

- ① ‘삶과 자연’에서 ‘삶과’의 표준 발음이 [삼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② ‘국수를 삶고’에서 ‘삶고’의 표준 발음이 [삼꼬]인 것은 ㉠, ㉢에 따른 것입니다.
- ③ ‘바람직한 삶’에서 ‘삶’의 표준 발음이 [삼]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④ ‘삶에 대한 의지’에서 ‘삶에’의 표준 발음이 [살메]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 ⑤ ‘나의 삶만’에서 ‘삶만’의 표준 발음이 [삼만]인 것은 ㉡에 따른 것입니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예비평가 국어영역 B형 11번

142. (가)는 수업 게시판에 올라온 발음 관련 질문들이다. 답변할 때 (나)를 활용할 필요가 없는 것은?

(가)

ㄱ. ‘여덟이, 여덟이야’의 표준 발음은 무엇인가요?
 ㄴ. ‘육학년’은 ‘[유강년]’이 맞나요, ‘[유강년]’이 맞나요?
 ㄷ. ‘걸으로’를 ‘[거츠로]’로 발음하면 왜 틀리나요?
 ㄹ. ‘빛이, 빛은’을 ‘[비시], [비슨]’으로 발음해도 괜찮나요?
 ㅁ. ‘낮’은 ‘밤낮으로’에서와 ‘낮일’에서의 발음이 왜 다른가요?

(나)

‘연음’은 자음으로 끝나는 말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어미, 접미사가 올 때 앞 음절의 종성이 그대로 뒤 음절의 초성으로 옮겨 가는 현상을 말한다. 가령 ‘앞’에 조사 ‘이’가 결합할 때 ‘[아피]’로 발음되는 것이 대표적인 연음의 예이다. 연음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는 표준 발음 여부를 판정할 때 매우 중요하다. ‘부엌이, 부엌은’을 흔히 ‘[부어기], [부어근]’으로 발음하는데, 이것은 연음을 따르지 않아서 생긴 잘못된 발음이다.

-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2014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2번

143. 다음은 표준 발음에 관한 인터넷 게시판의 질문과 답변이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질문 :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하는 게 맞나요? 같은 받침 ‘ㅍ’인데 [ㅍ]과 [ㅂ]으로 그 발음이 달라지는 이유가 궁금해요.

▶ 답변 : ‘앞앞’ 뒤에 모음으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가 올 때는 마지막 받침 ‘ㅍ’을 ㉠ 제 음가대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반면, ‘앞’과 ‘앞’이 결합한 ‘앞앞’처럼 받침이 있는 말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오게 되면 그 받침을 ㉡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의 첫소리로 옮겨 발음합니다. 그래서 ‘앞앞이’는 [아바피]로 발음됩니다. ㉠과 ㉡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 ① ‘무릎이야’는 ㉠에 해당하고 ‘무릎 아래’는 ㉡에 해당합니다.
- ② ‘서넛이나’는 ㉠에 해당하고 ‘서넛에서’는 ㉡에 해당합니다.
- ③ ‘걸으로’와 ‘걸아가미’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④ ‘배꽃이’와 ‘배꽃 위’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 ⑤ ‘빛에’와 ‘빛이며’는 모두 ㉡에 해당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1번

144. <보기>에 따라 겹받침의 표준 발음에 대하여 단계별로 학습하였다. 각 예에 적용된 내용과 그 발음이 모두 바른 것은? [3점]

—<보 기>—

-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조사나 어미, 접미사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뒤엀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이 경우, ‘ㅅ’은 [ㅅ]으로 발음한다. …………… ㉠
- 겹받침 ‘ㄱ, ㄴ, ㄹ’, ‘ㄷ, ㄹ’, ‘ㅂ’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ㄱ, ㄴ, ㅂ]으로 발음한다. …………… ㉢

이 후에는 다음과 같이 발음한다.

- [ㄱ, ㅂ]은 ‘ㄴ, ㄹ’ 앞에서 각각 [ㅇ, ㄹ]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각각 [ㄱ, ㄷ, ㅂ, ㅅ, ㅈ]으로 발음한다. …………… ㉣
- [ㄱ, ㅂ]은 ‘ㅎ’과 결합되는 경우, 두 음을 합쳐서 각각 [ㅋ, ㅍ]으로 발음한다. …………… ㉤

	예	적용 내용	발음
①	여덟+이	㉠	[여더리]
②	뭇+을	㉠	[뭇술]
③	흙+만	㉢, ㉡	[흙만]
④	값+까지	㉢, ㉣	[갑까지]
⑤	닭+하고	㉢, ㉤	[다카고]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1번

145. <보기>의 표준 발음법을 바르게 적용한 것은?

—<보 기>—

- ㉠ 받침 ‘ㄷ, ㅌ’이 조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발이[바치]
- ㉡ 받침 ‘ㄷ, ㅌ(ㅌ)’이 접미사의 모음 ‘ㅣ’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ㅈ, ㅊ]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미담이[미다지]
- ㉢ 받침 ‘ㄷ’ 뒤에 접미사 ‘히’가 결합되어 ‘티’를 이루는 것은 [치]로 발음한다. 예) 묻히다[무치다]

- ① ‘같이 건다’의 ‘같이’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가치]로 발음해야겠군.
- ② ‘술이나 냄비를 준비하다’의 ‘술이나’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소치나]로 발음해야겠군.
- ③ ‘그것은 팔이다’의 ‘팔이다’는 ㉡에 따라 ‘ㅌ’을 [ㅊ]으로 바꿔 [파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④ ‘자전거에 받히다’의 ‘받히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바치다]로 발음해야겠군.
- ⑤ ‘우표를 붙이다’의 ‘붙이다’는 ㉢에 따라 ‘티’를 [치]로 바꿔 [부치다]로 발음해야겠군.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1번

146. <보기>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표준 발음법의 ‘된소리되기’ 중 일부〉

㉠ 어간 받침 ‘ㄴ(ㄴ), ㄹ(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어간 받침 ‘ㄷ, ㄹ’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으)ㄹ’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

- ① ‘(가슴에) 품을 적에’와 ‘(머느리로) 삼고’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② ‘(방이) 넓거든’과 ‘(두께가) 얇을지라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③ ‘(신을) 신겼네요’와 ‘(땅을) 밟지도’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에 따른 것이다.
- ④ ‘(남들이) 비웃을지언정’과 ‘(먼지를) 훑던’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 ⑤ ‘(물건을) 없지만’과 ‘(자리에) 앉을수록’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 ㉢에 따른 것이다.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2번

147. (가)의 ㉠, ㉡에 들어갈 표준 발음을 (나)를 참고하여 바르게 짝지은 것은?

(가) 학생의 탐구 내용

지난 시간의 새말 만들기 활동에서 ‘꽃잎 표면에 이랑처럼 주름이 진 부분’을 가리키는 말로 ‘꽃이랑’, ‘꽃의 가운데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나타내는 말로 ‘꽃오목’을 만들었어. 이번 시간에 배운 표준 발음법에 따라 이 단어들의 올바른 발음을 생각해 보니, ‘꽃이랑’은 (㉠), ‘꽃오목’은 (㉡) 으로 발음해야 해.

(나) 표준 발음법 조항

제15항 받침 뒤에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들로 시작되는 실질 형태소가 연결되는 경우에는, 대표음으로 바꾸어서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한다.
 예) 걸-웃[거똥], 헛-웃음[허두슴]

제29항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소리를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
 예) 담-요[담 : 뇨], 흘-이불[흔니불]

- | | | |
|---|-------|-------|
| | ㉠ | ㉡ |
| ① | [꼰니랑] | [꼬도목] |
| ② | [꼰니랑] | [꼬초목] |
| ③ | [꼰니랑] | [꼰노목] |
| ④ | [꼬디랑] | [꼬초목] |
| ⑤ | [꼬디랑] | [꼬도목] |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문법 평가원 기출문제

V. 국어시사

KOREAN
GRAMMAR

기초교육그룹X잇을 설승환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4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 B형 16번

150. <보기>의 ㉠과 ㉡에 속하는 사례를 바르게 제시한 것은?

<보 기>

모음 ‘·’는 중세 국어 이후 크게 두 단계의 변화를 겪었다. 제1 단계 변화에서는 ㉠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놓인 모음 ‘·’가 ‘ㅡ’로 변화하였다. 이 변화가 일어나고 난 뒤 제2 단계 변화에서는 ㉡ 첫째 음절에 놓인 모음 ‘·’가 ‘ㅏ’로 변화하였다. 단어에 따라 이러한 변화에 예외가 보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이 두 단계의 변화를 겪어 ‘·’는 모음 체계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 | | |
|-----------|---------|
| ㉠ | ㉡ |
| ① 마늘 > 마늘 | 흙 > 흙 |
| ② 사슴 > 사슴 | 그장 > 가장 |
| ③ 혼나 > 하나 | 오늘 > 오늘 |
| ④ 사름 > 사람 | 드리 > 다리 |
| ⑤ 아들 > 아들 | 다섯 > 다섯 |

2016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6번

151.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중세 국어 체언 중에는 ‘ㅎ’을 끝소리로 가진 것들이 있다. 이러한 체언을 ‘ㅎ’ 중성 체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뒤따를 경우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뒤따르는 조사	‘ㅎ’ 중성 체언의 실현 양상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모음에 이어 적는다. 예 : [ㅉ히] (쌍+이) 줄어늘 (땅이 질거늘)
‘ㄱ, ㄷ’으로 시작하는 조사	‘ㅎ’은 뒤따르는 ‘ㄱ’, ‘ㄷ’과 어울려 ‘ㅋ’, ‘ㅌ’으로 나타난다. 예 : [ㅉ토] (쌍+도) 뛰더니 (땅도 움직이더니)
관형격 조사 ‘ㅅ’	‘ㅎ’은 나타나지 않는다. 예 : 다른 [ㅉ] (쌍+ㅅ) 風俗은 (다른 땅의 풍속은)

<보기 2>

중세 국어	현대 국어
㉠ (나랑+을) 아스 맞디고	나라를 아우에게 맡기고
㉡ (깊+ㅅ) 네거리예	길의 네거리예
㉢ (얹+과) 밧	안과 밖

- | | | |
|-------|---|----|
| ㉠ | ㉡ | ㉢ |
| ① 나라흙 | 깊 | 안과 |
| ② 나라흙 | 깊 | 안과 |
| ③ 나라흙 | 깊 | 안과 |
| ④ 나라을 | 깊 | 안과 |
| ⑤ 나라을 | 깊 | 안과 |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5번

152.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보기 1>

일반적으로 중세 국어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앞에 결합하는 체언의 끝소리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먼저 체언의 끝소리가 자음일 때 ‘이’가 나타났다.

○ 상녘 쓰는 히 일후미라(일후+이)라
(보통 쓰는 해의 이름이다)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이거나 반모음 ‘ㅣ’일 때는 아무런 형태가 나타나지 않았다.

○ 牛頭는 쇠 머리라(머리+라) (우두는 소의 머리이다)

그리고 체언의 끝소리가 모음 ‘이’도, 반모음 ‘ㅣ’도 아닌 모음일 때는 ‘ㅣ’가 나타났다.

○ 生佛은 사라 겨신 부테시니라(부터+ㅣ시니라)
(생불은 살아 계신 부처이다)

<보기 2>

○ 齒는 ㉠ (치는 이이다)
○ 所는 ㉡ (소는 바이다)
○ 樓는 ㉢ (누는 다락이다)

	㉠	㉡	㉢
①	니이라	바이라	다락라
②	니라	배라	다락ㅣ라
③	니이라	바라	다락ㅣ라
④	니라	배라	다라기라
⑤	니ㅣ라	바이라	다라기라

2015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B형 16번

153.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3점]

<보기 1>

현대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의’만 있지만,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익, 의, 스, ㅣ’가 있었다. 이 중 ‘익, 의, 스’은 결합하는 명사의 특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사용되었다.

명사		관형격 조사
의미 특징	끝 음절 모음	
사람이나 동물	양성 모음	+ 익
사람이나 동물	음성 모음	+ 의
사람이면서 높임의 대상	양성 모음/음성 모음	+ 스
사람도 아니고 동물도 아님	양성 모음/음성 모음	+ 스

(예) 늑+익 : 늑 뵈 거스디 아니헝거든 (남의 뜻 거스르지 아니 하거든)
거북+의 : 거북 뵈 터리 곤고 (거북의 털과 같고)
大王+스 : 大王 스 말쌔미사 울켜신마른 (대왕의 말씀이야 옳으 시지만)
나무+스 : 나무 스 여름 먹느니 (나무의 열매 먹으니)

<보기 2>

○ 父母ㅣ 아들+㉠ 마를 드르샤
(부모가 아들의 말을 들으지어)
○ 다섯 술위+㉡ 글위를 널굴 디니라
(다섯 수레의 글을 읽어야 할 것이다)

- | | ㉠ | ㉡ |
|---|---|---|
| ① | 익 | 스 |
| ② | 스 | 익 |
| ③ | 의 | 스 |
| ④ | 스 | 의 |
| ⑤ | 익 | 의 |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08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1번

154. <보기>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쇠고기’와 ‘소고기’는 모두 표준어이다.
- 옛날에는 ‘쇠고기’를 ‘쇠고기(쇼+익+고기)’라고 했다. 이 경우 ‘쇼+익(관형격 조사)’는 ‘쇠’로 축약된다.
- 옛날에는 ‘돼지고기’를 ‘도티고기(돌+익+고기)’라고 했다.

- ① ‘쇠고기’는 옛말의 구조를 고려할 때 소의 고기라는 뜻이군.
- ② ‘쇠고기’는 여러 단어가 합쳐져 한 단어로 발달한 경우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쇠고기’의 옛말은 ‘돼지고기’의 옛말과 그 구조가 달랐다는 말이군.
- ④ ‘소고기’는 동물 이름에 바로 ‘고기’가 붙은 단어이군.
- ⑤ ‘닭고기’의 옛말은 ‘돌기고기(돌+익+고기)’라고 했겠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3번

155. <학습 활동>의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학습 활동>—

동사는 목적어 필요 여부에 따라 타동사와 자동사로 구분된다. ㉠과 ㉡를 보고, 중세 국어 ‘열다’, ‘홀다’의 타동사, 자동사로서의 쓰임과 이에 대응하는 현대 국어 동사들의 쓰임을 비교하여 그 변화를 탐구해 보자.

㉠	[중세 국어] 큰 믰스믈 <u>여러</u>
	[현대 국어] 큰 마음을 <u>열어</u>
㉡	[중세 국어] 自然히 믰스믈 <u>여러</u>
	[현대 국어] 자연히 마음이 <u>열리어</u>
㉢	[중세 국어] 번개 구르믈 <u>흐터</u>
	[현대 국어] 번개가 구름을 <u>홀어</u>
㉣	[중세 국어] 散心은 <u>흐튼</u> 믰스믈라
	[현대 국어] 산심은 <u>홀어진</u> 마음이다.

탐구 결과 : ㉠과 ㉡를 보니, _____ (가)

- ①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②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③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로만 쓰인다.
- ④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는 자동사로만 쓰인다.
- ⑤ 중세 국어 ‘열다’, ‘홀다’는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였고, 현대 국어 ‘열다’, ‘홀다’도 타동사 및 자동사로 쓰인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B형 16번

158.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王(왕)이 니르샤디 大師(대사) ㉠ 흐산 일 아니면 누 혼 거지 있고 ㉡ 仙人(선인)이 솔보디 大王(대왕)하 이 ㉢ 南塢(남굴)스 仙人(선인)이 혼 ㅅ를 길어 내니 양지 端正(단정)흐야 ㉣ 世間(세간)에 ㉤ 쉽디 못흐니 그 ㅅ ㅎ닐 ㉥ 時節(시절)에 자취마다 ㉦ 蓮花(연화) | 나누니이다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왕이 이르시되 “대사 하신 일 아니면 누가 한 것입니까?” 선인이 아뢰되 “대왕이시여, 이 남굴의 선인이 한 딸을 길러 내니 모습이 단정하여 세상에 (모습을 드러내기가) 쉽지 못하니 그 딸 움직일 시절에 자취마다 연꽃이 납니다.”

- ① ㉠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쓰였군.
- ② ㉡의 ‘이’와 ㉣의 ‘|’는 격 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
- ③ ㉢을 보니 ‘ㅅ’은 현대 국어의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 조사로 쓰였군.
- ④ ㉣과 ㉥을 보니 모음 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 조사가 있었군.
- ⑤ ㉤과 현대 국어의 ‘쉽지’를 비교해 보니 ‘-디’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2016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 B형 16번

159. <자료>에 나타난 중세 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료>—

[중세 국어] 五欲은 누네 도훈 빛 보고져 귀에 도훈 소리 듣고져 고해 도훈 내 만고져 이베 도훈 맛 먹고져 모매 도훈 옷 넙고져 흘 씨라

— 『석보상절』 —

[현대어 풀이] 오욕은 눈에 좋은 빛 보고자, 귀에 좋은 소리 듣고자, 코에 좋은 냄새 맡고자, 입에 좋은 맛 먹고자, 몸에 좋은 옷 입고자 하는 것이다.

- ① ‘五欲’이 ‘오욕’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보조사 ‘은’이 있었군.
- ② ‘누네 도훈 빛 보고져’가 ‘눈에 좋은 빛 보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누네 도훈 빛’은 목적어로 쓰였군.
- ③ ‘귀에’가 ‘귀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부사격 조사 ‘예’가 있었군.
- ④ ‘도훈’이 ‘좋은’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도훈’은 용언의 관형사 형이였군.
- ⑤ ‘먹고져’가 ‘먹고자’에 대응되는 것을 보니, ‘-고져’는 종결 어미로 쓰였군.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B형 16번

160.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자료	[중세 국어] ㉠ 부텃 마를 ㉡ 들즈보딘 [현대 국어] 부처의 말씀을 듣되
	[중세 국어] 닐굽 ㉢ 거르를 거르샤 ㉣ 니르샤딘 [현대 국어] 일곱 걸음을 걸으시며 이르시되
학습 활동	[중세 국어] 니르고져 훔 ㉤ 배 이셔도 [현대 국어]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을 현대 국어와 비교한 후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가])

- ① ㉠ : 관형격 조사로 ‘시’이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② ㉡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 ③ ㉢ :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④ ㉣ : 주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가 쓰였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공통적이다.
- ⑤ ㉤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에 주격 조사 ‘이’가 결합했다는 점에서 현대 국어와 차이가 있다.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5번

161.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서 알 수 있는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 <u>하늘</u> 버리 눈 곧 디니이다	<용비어천가>
(현대어 풀이 : 하늘의 별이 눈과 같이 떨어집니다.)	
(나) 王이 부터를 <u>請</u> 흐스북쇼서	<석보상절>
(현대어 풀이 : 왕이 부처를 청하십시오.)	
(다) 어마니물 <u>아</u> 라보리로소니잇가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어머니를 알아보겠습니까?)	
(라) <u>내</u> 이를 위햐야	<훈민정음언해>
(현대어 풀이 : 내가 이를 위해서)	
(마) 그 물 <u>미</u> 티 숲물애 잇느니	<월인석보>
(현대어 풀이 : 그 물 밑에 금모래가 있는데)	

- ① (가) : 부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시’이 쓰였다.
- ② (나) :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 어미 ‘-습-’이 쓰였다.
- ③ (다) : 관정 의문문의 ‘-아’ 계열 의문형 어미가 쓰였다.
- ④ (라) :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 조사 ‘이’가 쓰였다.
- ⑤ (마) : 높이지 않는 유정 명사에 결합되는 관형격 조사 ‘의’가 쓰였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4번

162. <보기 1>의 중세 국어의 특징을 바탕으로 <보기 2>의 ㉠~㉤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기 1>—

- ㉠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서 쓰이는 종결 어미가 서로 달랐다.
- ㉡ 체언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 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 ㉢ 높임의 호격 조사로서 현대 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 ㉣ 선어말 어미의 결합 순서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 ㉤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말 어미가 사용되었다.

—<보기 2>—

- ㉠ **므슴 마를 니르느뇨** [무슨 말을 말하느냐?]
- ㉡ **저쁘며 늘구미 잇느녀** [짧으며 늙음이 있느냐?]
- ㉢ **虛空과 벼를 보더시니** [허공과 별을 보시더니]
- ㉣ **世尊하 내 堂中에 이셔 먼저 如來 보습고** [세존이시여, 내가 집 안에서 먼저 여래 뵈고]

- ① ㉠의 '니르느뇨'와 ㉡의 '잇느녀'를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의 '마를'과 ㉢의 '벼를'을 비교해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의 '世尊하'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의 '보더시니'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의 '보습고'를 보면, ㉤을 확인할 수 있군.

2019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문법 평가원 기출문제

VI. 지문형 문법 문제

KOREAN
GRAMMAR

기초교육그룹X잇을 설승환

※ 2017~2018학년도 평가원 독서+문법 기출문제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12번

[163~164] 다음은 용언의 활용에 관한 탐구 활동과 자료이다.
 <대화 1>과 <대화 2>는 학생의 탐구 활동이고, <자료>는 학생들이 수집한 학술 자료이다.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화 1>

- A : ‘(길이) 좁다’와 ‘(이웃을) 돕다’는 어간의 끝이 ‘ㅂ’으로 같잖아? 그런데 ‘좁다’는 ‘좁고’, ‘좁아’로 활용하고 ‘돕다’는 ‘돕고’, ‘도와’로 활용하여,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 B : 그러고 보니 ‘(신을) 벗다’와 ‘(노를) 짓다’도 어간의 끝이 ‘ㅅ’으로 같은데, ‘벗다’는 ‘벗어’로 활용하고 ‘짓다’는 ‘지어’로 활용해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의 활용형이 달라.
- A : 그렇구나. 어간의 끝이 같은데도 왜 이렇게 다르게 활용하는 걸까? 우리 한번 같이 자료를 찾아보고 답을 알아볼래?

<자료>

현대 국어 ‘좁다’와 ‘돕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좁다’는 ‘좁고’, ‘조바’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돕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돕고’처럼 어간이 ‘돕-’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도와’처럼 어간이 ‘돕-’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현대 국어 ‘벗다’와 ‘짓다’의 15세기 중엽의 국어에서의 활용형을 보면, ‘벗다’는 ‘벗고’, ‘벗서’처럼 자음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 모두에서 어간이 ‘벗-’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짓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짓고’처럼 어간이 ‘짓-’으로,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는 ‘저서’처럼 어간이 ‘짓-’으로 나타난다. 당시 국어의 음절 끝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개의 소리가 올 수 있었기에 ‘돕고’의 ‘ㅂ’과 ‘짓고’의 ‘ㅅ’은 각각 ‘빙’이 ‘ㅂ’으로 교체되고 ‘△’이 ‘ㅅ’으로 교체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도와’와 ‘저서’는 ‘빙’과 ‘△’이 뒤 음절의 첫소리로 연음된 것을 표기한 것이다.

그런데 ‘빙’, ‘△’은 15세기와 16세기를 지나면서 소실되었다. 먼저 ‘빙’은 15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도와 > 도와’, ‘더벼 > 더워’에서와 같이 ‘ㅂ’ 또는 ‘ㄱ’ 앞에서는 반모음 ‘ㅛ / ㅜ [w]’로 바뀌었고, ‘도벗시니 > 도오시니’, ‘셔볼 > 셔울’에서와 같이 ‘·’ 또는 ‘-’가 이어진 경우에는 모음과 결합하여 ‘ㄱ’ 또는 ‘ㅌ’로 바뀌었으나,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ㅂ’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은 16세기 중엽에 ‘아스 > 아으’, ‘저서 > 저어’에서와 같이 사라졌으며, 음절 끝에서는 이전과 다름없이 ‘ㅅ’으로 나타났다. 이런 변화를 겪은 말 중에 ‘셔울’, ‘도오시니’, ‘아으’는 18~19세기를 거쳐 ‘서울’, ‘도우시니’, ‘아우’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대화 2>

- A : 자료를 보니 ‘빙’, ‘△’이 사라지면서 ‘도와’가 ‘도와’로, ‘저서’가 ‘저어’로 활용형이 바뀌었네.
- B : 그럼 ‘(고기를) 굽다’가 ‘구워’로 활용하고, ‘(밥을) 짓다’가 ‘지어’로 활용하는 것도 같은 거겠네!
- A : 맞아.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굽다’하고 ‘짓다’가 불규칙 활용을 하게 된 거야.

163.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현대 국어의 ‘도와’, ‘저어’와 같은 활용형은 어간의 형태가 달라지는 불규칙 활용에 해당하느군.
- ② 15세기 국어의 ‘도와’가 현대 국어에서 ‘도와’로 나타나는 것은 ‘빙’이 어간 끝에서 ‘ㅂ’으로 바뀐 결과이군.
- ③ 15세기 국어의 ‘저서’가 현대 국어에서 ‘저어’로 나타나는 것은 ‘△’의 소실로 어간의 끝 ‘△’이 없어진 결과이군.
- ④ 15세기 국어의 ‘돕고’와 현대 국어의 ‘돕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 ⑤ 15세기 국어의 ‘짓고’와 현대 국어의 ‘짓고’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어간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았군.

164. 위 탐구 활동과 자료에 따라, 현대 국어 용언들의 15세기 중엽 이전과 17세기 초엽에서의 활용형을 바르게 추정한 것은?

	15세기 중엽 이전			17세기 초엽		
	-게	-아/-어	-은/-은	-게	-아/-어	-은/-은
① (마음) 굽다	굽게	고바	고븐	굽게	고와	고은
② (신을) 굽다	긋게	그서	그슨	긋게	그서	그슨
③ (자리에) 눕다	눅게	누벼	누븐	눅게	누워	누은
④ (머리를) 빗다	빗게	비서	비슨	빗게	비서	비슨
⑤ (손을) 잡다	잡게	자바	자븐	잡게	자바	자븐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7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12번

[165~16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러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나 여러 단어들로 이루어진 문장은 그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가령, ‘민물고기’가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판별하기 어렵고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와 같은 문장에서 주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 이처럼 복잡한 단어나 문장의 구조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이 있다.

직접 구성 요소란 어떤 말을 직접 이루고 있는 두 부분으로 나누었을 때 나오는 두 요소이다. 위의 ‘민물고기’에서는 ‘민물’과 ‘고기’가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 분석은 ‘민물’에 대해서도 더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한 단어에 합성과 파생 과정이 모두 있는 ‘민물고기’는 파생어가 아닌 합성어임을 알 수 있다.

직접 구성 요소 분석 시에는 특히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첫째,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되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가 하는 점이다. 가령, ‘살얼음’은 ‘살-’과 ‘얼음’으로 분석해야 하는데, 만약 ‘살얼-’과 ‘-음’으로 분석하면 ‘살얼다’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잘못된 분석이 된다. 둘째, 직접 구성 요소들과 그 전체 구성의 의미가 서로 통하는가 하는 점이다. ‘벽돌집’을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벽돌’과 ‘집’이 분석된다. 이를 ‘벽’과 ‘돌집’으로 나누면 ‘벽돌로 만든 집’이라는 의미를 갖지 못한다.

긴 문장도 직접 구성 요소 분석을 통해 그 구조를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장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나타나므로, 문장의 직접 구성 요소는 주어와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서술어는 홀로 나오기도 하지만 주어 이외의 필수 성분과 결합하여 나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내 동생은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첫 분석 층위에서 주어 ‘내 동생은’과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로 그 직접 구성 요소가 분석된다. 또 ‘엄마의 칭찬을 많이 받았다’는 한 층위 아래에서 ‘엄마의 칭찬을’과 ‘많이 받았다’로 나뉜다. 또한 ‘내 동생’의 직접 구성 요소는 ‘내’와 ‘동생’인데, 이처럼 꾸미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이 인접하면 그 두 요소는 바로 위 층위의 말을 이루는 직접 구성 요소가 된다.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를 분석해 보면 “언니가 찾던 책이 여기 있구나.”에서 ‘언니가’는 관형사절 속에 포함된 주어일 뿐이며 문장 전체의 주어, 즉 가장 위 층위에 있는 직접 구성 요소는 ‘언니가 찾던 책이’임을 알 수 있다.

165. <보기>는 윗글을 바탕으로 진행된 학습 활동이다.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학 생 : ‘민물고기’에 있는 접두사 ‘민-’은 ‘민물고기’의 직접 구성 요소가 아니라, ‘민물’을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할 때 나오는 것이군요. 이제 왜 ‘민물고기’가 파생어가 아니라 합성어인지 알겠어요.

선생님 : 직접 구성 요소 분석에 대해 잘 이해했구나. 그럼 아래의 단어들도 분석해 보자.

㉠ 나들이웃	㉡ 눈웃음	㉢ 드높이다
㉣ 집집이	㉤ 놀이터	

- ①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합성어이다.
- ②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합성어이다.
- ③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 ④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파생어인 파생어이다.
- ⑤ ㉤은 그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합성어인 파생어이다.

166. 윗글의 관점에서 <보기>의 ㉦~㉨를 분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 기>

㉦ 지회는 목소리가 굵다.

㉧ 소포가 도착했다고 들었다.

㉨ 동수가 미에게 선물을 주었다.

㉩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 밝혀졌다.

㉪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 명언이다.

- ① ㉦은 ‘지회는’과 ‘목소리가 굵다’로 분석되었군.
- ② ㉧은 ‘소포가’와 ‘도착했다고 들었다’로 분석되었군.
- ③ ㉨은 ‘동수가’와 ‘미에게 선물을 주었다’로 분석되었군.
- ④ ㉩은 ‘그가 익명의 기부자임이’와 ‘밝혀졌다’로 분석되었군.
- ⑤ ㉪은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은’과 ‘명언이다’로 분석되었군.

201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4-15번

[167~16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에서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는 다양한 문법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새로운 어간을 형성한다. 예를 들면, '눅다'의 어근 '눅-'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새로운 어간 '눅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눅이다'의 어간 '눅이'는 '눅다'의 어간 '눅-'과 구별된다. 둘째로,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의 어근에 붙어 품사를 바꾸기도 한다. 예를 들면, 명사 '먹이'나 '넓이'는 각각 동사와 형용사의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이다. 이때 '먹이'와 '넓이'의 '먹-'과 '넓-'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셋째로, ㉠ 접미사는 동사나 형용사에 붙어 사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동사 '익다'와 '먹다'의 어근에 각각 접미사 '-히'와 '-이'가 붙어서 형성된 '익히다'와 '먹이다'는 '고기를 익히다'와 '아이에게 밥을 먹이다'에서와 같이 사동의 의미를 가진다. 넷째로, ㉡ 접미사는 타동사에 붙어 피동의 의미를 더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안다'의 어근 '안-'에 접미사 '-기'가 붙어 형성된 '안기다'는 '아기가 엄마한테 안기다'와 같이 피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때 피동을 나타내는 접미사는 '눅다', '식다'와 같은 자동사에는 결합하지 않는다.

한편, 하나의 접미사가 모든 동사나 형용사에 자유롭게 결합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접미사 '-히'는 '읽다'의 어근 '읽-'에 붙어 '읽히다'를 만들 수 있지만, '살다'의 어근 '살-'에는 붙지 못한다. 어근 '살-'에는 접미사 '-리'가 붙어 '살리다'가 형성된다. 또한 어근과 접미사 사이에는 다른 형태소가 끼어들 수 없다. 가령, 어근 '읽-'과 접미사 '-히' 사이에 '-시-'와 같은 선어말 어미가 끼어든 '읽시히-'와 같은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167.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달콤한 휴식을 위해 시간을 비워 놓았다.
 - ㉡ 아주 높이 나는 새라야 멀리 볼 수 있다.
 - ㉢ 마을 앞 공터를 놀이 공간으로 조성했다.
 - ㉣ 멀리서 찾아온 손님에 위해 차를 끓였다.
 - ㉤ 할아버지께서는 오늘 일찍 오시기 힘들다.

- ① ㉠에서 '비워'의 어간은 '시간이 빈다'에서 '빈다'의 어간과 같다.
- ② ㉡에서 '높이'는 형용사 '높다'의 어근 '높-'에 접미사 '-이'가 붙어 형성된 명사이다.
- ③ ㉢에서 '놀이'는 명사이므로 '놀이' 속의 '놀-'은 서술어로 기능하지 못한다.
- ④ ㉣에서 '끓였다'의 어근에 붙은 접미사 '-이'는 모든 동사에 자유롭게 결합한다.
- ⑤ ㉤에서 '오시기'는 '오-'와 '-기' 사이에 다른 형태소가 끼어든 것이므로 명사이다.

168. 밑줄 친 부분이 ㉠,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 : 형이 동생을 올렸다.
㉡ : 그는 지구분을 돌렸다.]
- ② [㉠ :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 : 우리는 용돈을 납겼다.]
- ③ [㉠ : 공책이 가방에 눌렸다.
㉡ : 옷이 못에 걸려 찢겼다.]
- ④ [㉠ : 바위 뒤에 동생을 숨겼다.
㉡ : 피곤해서 눈이 자꾸 감겼다.]
- ⑤ [㉠ : 나는 종이비행기를 하늘로 날렸다.
㉡ : 그는 소년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겼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8학년도 6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12번

[169~17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단어의 의미 관계 중 상하 관계는 의미상 한 단어가 다른 단어를 포함하거나 다른 단어에 포함되는 관계를 말한다. 이때 다른 단어의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를 상의어라 하고 다른 단어의 의미에 포함되는 단어를 하의어라 하는데, 상의어일수록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지니며 하의어일수록 구체적이고 한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상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상의어와 하의어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 이를테면 ‘구기’는 ‘스포츠’와의 관계 속에서 하의어가 되지만, ‘축구’와의 관계 속에서는 상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기’의 하의어에는 ‘축구’ 외에 ‘야구’, ‘농구’ 등이 더 있다. 이때 상의어인 ‘구기’에 대해 하의어 ‘축구’, ‘야구’, ‘농구’ 등은 같은 계층에 있어 이들을 상의어 ‘구기’의 공하의어라 하며, 이들 공하의어 사이에는 ㉠ 비양립 관계가 성립한다. 곧 어떤 구기가 ‘축구’이면서 동시에 ‘야구’나 ‘농구’일 수는 없다.

한편 상하 관계에서는 하의어들이 상의어의 의미를 이어받아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한다. 일례로 어떤 새가 ‘장끼’이면 그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를 이어받으므로 ‘꿩’을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새가 ‘꿩’이라 해서 그것이 꼭 ‘장끼’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상의어는 하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지 못한다. 이를 []로 표현하는 의미 자질로 설명하면,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의 의미 자질들을 가지면서 [수컷]이라는 의미 자질을 더 가져, 결국 하의어 ‘장끼’는 상의어 ‘꿩’보다 의미 자질 개수가 많다. 곧 상의어보다 의미 자질이 많은 하의어는 상의어를 의미적으로 함의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구기’의 공하의어가 여러 개인 것과 달리, ‘꿩’의 공하의어는 성별로 구분했을 때 ‘장끼’와 ‘까투리’ 둘뿐이다. ‘구기’의 공하의어인 ‘축구’, ‘야구’ 등과 마찬가지로 ‘장끼’, ‘까투리’는 ‘꿩’의 공하의어로서 비양립 관계에 있다. 그러나 ‘장끼’와 ‘까투리’의 경우, ‘장끼’가 아닌 것은 곧 ‘까투리’이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 상의어가 같은 계층의 두 단어만을 공하의어로 포함하면, 그 공하의어들은 상보적 반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169. 윗글을 바탕으로 다음 자료를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악기(樂器)[-끼]㉠
 [음악] 음악을 연주하는 데 쓰는 기구를 통틀어 이르는 말. 연주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현악기, 관악기, 타악기로 나눈다.

타-악기(打樂器)[타:-끼]㉡
 [음악] 두드려서 소리를 내는 악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팀파니, 실로폰, 북이나 심벌즈 따위이다.

- ① ‘타악기’는 ‘실로폰’의 상의어로서 ‘실로폰’보다 포괄적인 의미를 갖겠군.
- ② ‘북’은 ‘타악기’의 하의어이므로 [두드림]을 의미 자질 중 하나로 갖겠군.
- ③ ‘구기’는 ‘악기’를 의미적으로 함의하고 ‘악기’는 ‘북’을 의미적으로 함의하겠군.
- ④ ‘타악기’와 ‘심벌즈’는 모두 ‘구기’의 하의어이지만, ‘구기’의 공하의어는 아니겠군.
- ⑤ ‘현악기’와 ‘관악기’는 ‘악기’의 공하의어이므로 모두 ‘악기’의 상의어 ‘구기’보다 의미 자질의 개수가 많겠군.

170.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과 ㉡을 모두 만족시키는 단어 쌍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 여름에 고향을 출발한 그가 마침내 ㉡ 북극에 도달했다는 소식에 나는 다급해졌다. 지구의 양극 중 ㉢ 남극에는 내가 먼저 가야 했다. 남극 대륙은 ㉣ 계절이 여름이어도 내 고향의 ㉤ 겨울만큼 바람이 차다. 남극 대륙에서 나를 위로해 준 것은 설매를 끄는 ㉥ 개들과 귀여운 몸짓을 하는 ㉦ 펭귄들, 그리고 먹이를 찾아 날아다니는 ㉧ 갈매기들뿐이었다.

- ① ㉠ - ㉢
- ② ㉠ - ㉤, ㉠ - ㉥
- ③ ㉠ - ㉤, ㉠ - ㉦
- ④ ㉠ - ㉤, ㉠ - ㉥, ㉠ - ㉦
- ⑤ ㉠ - ㉤, ㉠ - ㉥, ㉠ - ㉦

2018학년도 9월 모의평가 국어영역 11-12번

[171~17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 여러분, 현대 사회에서 인공위성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죠? 그런데 ‘인공위성’은 옛날에는 쓰이지 않았던 말입니다.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게 되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행성의 궤도를 도는 인공적 물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그 물체를 가리키는 말이 필요해서 ‘인공위성’이라는 말이 생긴 거겠죠? 이 말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학생 1 : ‘인공’과 ‘위성’을 합쳐 만든 것입니다.

선생님 :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공위성’이라는 말을 만든 것처럼 새 단어를 만드는 원리를 알아볼 텐데, 그중에서도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되는 합성 명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먼저 알아보려고 합니다. 합성 명사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학생 2 : 선생님, 합성 명사는 명사와 명사가 합쳐진 말 아닌가요?

선생님 : 네, 그런 경우가 많지요. 예를 들어 ‘논밭, 불고기’처럼 명사에 명사가 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밖에 용언의 활용형이 명사와 결합한 ‘건널목, 노림수, 섞어찌개’와 같은 경우도 있고 ‘새색시’처럼 명사를 꾸며 주는 관형사가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학생 3 : 그런데 선생님, 말씀하신 합성 명사들을 보니 뒤의 말이 모두 명사네요?

선생님 : 그래요. 우리말에서 합성어의 품사는 뒤에 오는 말의 품사와 같은 것이 원칙이에요. 앞에서 말한 예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 명사가 아닌 품사들로만 이루어진 합성 명사도 있습니다.

학생 4 : 아, 그렇군요. 그런데 선생님, 생각해 보니 요즘 자주 쓰는 말들은 그런 방식과는 다르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 : 맞아요. 여러분들이 자주 쓰는 ‘인강’이라는 말은 ‘인터넷’과 ‘강의’가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과 뒷말의 첫 음절만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또한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뜻의 ‘컴시인’은 ‘컴퓨터’와 ‘원시인’이 합쳐지면서 줄어든 말인데, 앞말의 첫 음절과 뒷말의 둘째, 셋째 음절을 따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171. <보기>의 ㄱ~ㅍ 중 윗글에서 설명한 단어 형성 방법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선생님’을 줄여서 ‘쌤’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ㄴ. ‘개-’와 ‘살구’를 결합하여 ‘개살구’라는 말을 만들었다.
 ㄷ. ‘사범’과 ‘대학’을 결합하여 ‘사대’라는 말을 만들었다.
 ㄹ. ‘점잖다’라는 형용사로부터 ‘점잔’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ㅁ. ‘비빔’과 ‘냉면’을 결합하여 ‘비빔냉면’이라는 말을 만들었다.

- ① ㄱ, ㄹ ② ㄷ, ㅁ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ㅁ ⑤ ㄴ, ㄹ, ㅁ

172. 밑줄 친 단어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자기 잘못은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
 ② 언니는 가구를 전부 새것으로 바꿨다.
 ③ 아이가 요사이에 몰라보게 훌쩍 컸다.
 ④ 오늘날에는 교육에서 창의성이 중시된다.
 ⑤ 나는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영역 11-12번

[173~17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어의 단어들은 ㉠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하고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해 만들어지기도 한다. 어근과 파생 접사가 결합한 단어는 ㉡ 파생 접사가 어근의 앞에 결합한 것도 있고, ㉢ 파생 접사가 어근의 뒤에 결합한 것도 있다. 어근이 용언 어간이나 체언일 때, 그 뒤에 결합한 파생 접사는 어머니 조사와 혼동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생 접사는 주로 새로운 단어를 만든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비해 ㉣ 어머니는 용언 어간과 결합해 용언이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 조사는 체언과 결합해 체언이 문장 성분임을 나타내 줄 뿐 새로운 단어를 만들지는 않는다. 이 점에서 어머니와 조사는 파생 접사와 분명하게 구별된다.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과는 달리, 용언 어간에 어머니 결합 형태나,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된 경우도 있다. 먼저 용언의 활용형이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가 있다. 부사 ‘하지만’은 ‘하다’의 어간에 어머니 ‘-지만’이 결합했던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다음으로 체언에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역사적으로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된 예도 있다. 명사 ‘아기’에 호격 조사 ‘아’가 결합했던 형태인 ‘아가’가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A] 또 다른 예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한 형태가 굳어져 새로운 인칭 대명사가 된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는 엇던 사람고 (이는 어떤 사람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세 국어에서 보조사 ‘고/구’는 문장에 ‘엇던’, ‘므슴’, ‘어느’ 등과 같은 의문사가 있을 때, 체언 또는 의문사 그 자체에 결합해 의문문을 만들었다. 이와 같은 방식의 의문문 구성은 근대 국어를 거쳐 현대 국어의 일부 방언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173. 다음 문장에서 ㉠~㉤에 해당하는 예를 찾아 이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기장수가 맨손으로 산 위에 쌓인 비위를 깨뜨리는 모습이 멋졌다.

- ① ‘아기장수가’의 ‘아기장수’는 ㉠에 해당하는 예로, 어근 ‘아기’와 어근 ‘장수’가 결합했다.
- ② ‘맨손으로’의 ‘맨손’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맨-’이 어근 ‘손’ 앞에 결합했다.
- ③ ‘쌓인’의 어간은 ㉢에 해당하는 예로, 파생 접사 ‘-이-’가 어근 ‘쌓-’ 뒤에 결합했다.
- ④ ‘깨뜨리는’은 ㉣에 해당하는 예로, 어미 ‘-리는’이 용언 어간 ‘깨뜨-’와 결합했다.
- ⑤ ‘모습이’는 ㉤에 해당하는 예로, 조사 ‘이’가 체언 ‘모습’과 결합했다.

174. [A]를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한 ‘탐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탐구 목표]
현대 국어의 인칭 대명사 ‘누구’의 형성에 대해 이해한다.

[자료]
(가) 중세 국어 : 15세기 국어

- 누를 니르더뇨 (누구를 이르던가?)
- 네 스승이 누고 (네 스승이 누구인가?)
- 느민 누구 (남은 누구인가?)

(나) 근대 국어

- 이 벗은 누고고 (이 벗은 누구인가?)
- 저 훈 벗은 누고고 (저 한 벗은 누구인가?)

(다) 현대 국어

- 누구를 찾으세요?
- 누구에게 말했어요?

[탐구 내용]

[탐구 결과]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에 의문문을 만드는 보조사 ‘고/구’가 결합했던 형태인 ‘누고’, ‘누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굳어져 새로운 단어가 되었는데, 오늘날에는 ‘누구’만 남게 되었다.

- ① (가)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 ‘누고’, ‘누구’이다.
- ② (나)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고’, ‘누구’이다.
- ③ (다)에서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의 형태는 ‘누구’이다.
- ④ (가)에서 (나)로의 변화를 보니, ‘누고’, ‘누구’는 체언과 보조사가 결합한 형태였다가 새로운 단어가 되었다.
- ⑤ (나)에서 (다)로의 변화를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미지칭의 인칭 대명사로 ‘누고’는 쓰이지 않고 ‘누구’만이 쓰이고 있다.

※ 2013학년도 이전 평가원 독서 언어학 지문 기출문제

2013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41-43번

[175~17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즈음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아주낮춤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를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구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 ‘당신’은 3인칭 재귀 대명사로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를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아주높임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아주높임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 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175. 윗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176.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 보 기 >

한 상무 :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 ㉠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 췌,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 ㉡ 고모님 뵈는 게 몇 년 만인가? ㉢ 우리를 친자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 어, 저기 ㉣ 내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쭙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려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177. 밑줄 친 단어들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 ①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 ③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군.
- ④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뻗습니다.
- ⑤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6-38번

[178~18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용언이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 한다. ㉠ 용언은 서술어뿐 아니라 주어, 목적어, 관형어, 부사어 등 여러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다양한 문법적 기능을 한다. 이러한 문법적 기능은 주로 어미에 의하여 나타나게 되므로 국어 문법 연구에서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어미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미를 그와 유사한 것들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조사와 비교해 볼 때 어미와 조사는 모두 홀로 쓰일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 어미는 항상 어간과 결합하여 쓰이므로 그 선행 요소인 어간도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라 별도의 품사로 설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간 + 어미' 전체가 한 단어로 취급된다. 이에 반해 조사는 홀로 쓰이지는 못하지만 ㉢ 조사의 앞에 결합하는 요소(주로 체언)가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 문맥에 따라 조사의 생략도 가능하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기가 쉽다. 이 점을 고려하여 조사는 단어로 인정하여 별도의 품사로 설정한다.

홀로 쓰이지 못한다는 공통점은 어미와 접미사 사이에서도 발견된다. 더욱이 접미사 중에는 어간 뒤에 결합하는 것들이 있어 어미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러나 어미와 접미사는 새로운 단어를 생성하는지 여부로 구별할 수 있다. '읽었고, 읽겠습니다, 읽었으나, ……'와 같이 용언 어간 '읽-'에 어떤 어미들이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읽다'라는 한 단어의 활용형일 뿐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활용형들은 별도의 단어가 아니므로 일일이 사전에 등재하지 않으며, 활용형 중 어간에 평서형 종결 어미 '-다'를 결합한 것을 기본형이라 하여 이것만을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이에 반해 접미사는 어미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며 이 단어는 사전에 등재한다. ㉣ 파생된 단어의 품사가 파생 이전과 달라지는 경우도 있다. 가령 동사 어간 '먹-'에 사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파생 전과 후가 모두 동사여서 품사가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결합하면 '먹이'라는 명사가 되어 품사가 바뀐다. 또한 ㉤ 어미는 대부분의 용언 어간과 결합할 수 있는 데 비해 접미사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이 제한된다는 점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178. 위글의 설명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러 대상의 역사적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② 어려운 개념들을 익숙한 대상에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대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④ 대상과 관련한 다양한 이견들을 대립시켜 설명하고 있다.
- ⑤ 중심 대상과 다른 대상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179.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용언은 어간에 어미가 결합해야만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 ② 어미는 조사와 마찬가지로 선행 요소와 분리되어 쓰일 수 있다.
- ③ 어미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로 분류되지 않는다.
- ④ 용언은 특정한 어미가 결합한 활용형만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한다.
- ⑤ 어미는 접미사와 달리 새로운 단어를 파생시키지 않는다.

180. <보기>의 ㉠~㉣를 ㉦~㉨의 예로 들어 설명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지훈 : 어제 집 앞에서 ㉠ 지나가는 선우를 ㉡ 만났어. ㉢ 병원에 가는 길이라고 하더라. 많이 좋아졌대.

수진 : 정말? 이제 마음이 ㉣ 놓이네. 계속 ㉤ 걱정하고 있었거든.

- ① ㉠ : 문장 내에서 '선우'를 꾸며 주는 관형어로 기능하고 있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② ㉡ : 어간인 '만나-'와 어미인 '-았-', '-어'가 모두 문장 내에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③ ㉢ : 조사 '에'는 생략 가능하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④ ㉣ : 동사 어간 '놓이-'는 '놓-'에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 ⑤ ㉤ : '걱정하-'에 어미 '-고'가 결합한 '걱정하고'는 쓰일 수 있으나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한 '걱정하이-'는 쓰일 수 없으므로 ㉧의 예로 들 수 있다.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44-46번

[181~18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국어에서는 비슷한 의미를 지닌 단어들인 높임법 차원에서 서로 구별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나이’와 ‘연세(年歲)’, ‘생일(生日)’과 ‘생신(生辰)’, ‘밥’과 ‘진지’ 등의 명사 어휘를 비롯하여 ‘주다’와 ‘드리다’, ‘고맙다’와 ‘감사하다’, ‘미안하다’와 ‘죄송하다’ 같은 동사나 형용사들이 전형적인 예이다. 이러한 단어들인 보이는 높임의 차이는 단어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 ㉠ ‘나이’와 ‘연세’처럼 고유어와 한자어의 의미가 비슷할 경우, 일반적으로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더 높은 말로 쓰인다. 물론 ㉡ ‘생일’과 ‘생신’의 예처럼 같은 한자어끼리도 높임의 정도에 차이를 보이거나 ㉢ ‘밥’과 ‘진지’처럼 고유어 가운데서도 높임의 정도가 다른 예들이 있다.

그렇다면 실제 대화에서 한국어 높임 표현의 선택을 결정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들 수 있을까? 여기에는 대화 참가자들 사이의 ‘서열’이나 ‘친분’, 또는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서열’이란 화자와 청자의 나이나 직위, 친족 항렬 등의 차이를 말하는데, 이러한 서열에 따라 높임 표현의 선택이 달라진다. 가령 사과나 부탁을 하는 상황에서 쓰는 ‘미안하다’와 ‘죄송하다’의 경우, 상위자에게는 ‘죄송하다’를, 하위자에게는 ‘미안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러한 언어적 사실을 뒷받침해 주는 것 가운데 하나로, 두 단어가 쓰일 수 있는 높임의 등급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즉 ‘미안하다’는 ‘하십시오체’에서부터 ‘해라체’까지 특별한 제약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는 반면, ‘죄송하다’는 ‘하십시오체’나 ‘해오체’에서는 많이 쓰이지만, ‘하오체’ 이하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는 제약이 있다. 이와 같은 높임의 차이는 ‘죄송하다’의 쓰임 영역이 주로 상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 반면, ‘미안하다’는 하위자에게도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많은 한국인 화자들이 사회적 신분이 더 높은 사람에 대한 사과의 표현으로 ‘미안하다’보다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서열상으로 높은 신분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와의 ‘친분’, 곧 상대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에 따라 높임 표현을 달리 선택한다. 따라서윗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쓰는 것이 더 적절하지만 같은 윗사람이더라도 친밀감을 갖는 사람에게는 ‘미안하다’를 쓸 수 있다. 또한 아랫사람이더라도 별로 친하지 않거나 심리적으로 거리감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죄송하다’를 쓸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높임 표현의 선택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의 ‘격식성’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 즉 평소에는 친밀감을 느끼는 사람에게 ‘미안하다’를 쓰더라도, 회의석상이나 법정에서와 같은 격식적인 상황에서는 ‘죄송하다’를 선택하는 것이 더 적절한 표현이다.

181. 밑글에서 언급한 내용이 아닌 것은?

- ① 단어의 선택을 통해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
- ② 상대와의 친분에 따라 높임 표현이 선택될 수 있다.
- ③ 높임 표현은 화자와 청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 ④ 한자어는 의미가 비슷한 고유어보다 일반적으로 높임의 정도가 더 높다.
- ⑤ 높임 표현은 화자가 대화 상대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182. ㉠~㉣과 동일한 유형의 사례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 | | | | |
|------------|----------|-------------|---|
| | ㉠ | ㉡ | ㉢ |
| ① 술 — 약주 | 말 — 말씀 | 문다 — 여쭙다 | |
| ② 이 — 치아 | 사망 — 별세 | 있다 — 계시다 | |
| ③ 딸 — 따님 | 마누라 — 부인 | 자다 — 주무시다 | |
| ④ 엄마 — 어머니 | 책방 — 서점 | 먹다 — 잡수다 | |
| ⑤ 속웃 — 내의 | 너 — 당신 | 가난하다 — 빈곤하다 | |

183. 밑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시장이 과장에게) 김 과장님, 죄송하지만 이 일은 내일까지 끝내 주세요.

ㄴ. (지갑을 가져오지 않아서) 형, 오늘은 제가 내려고 했는데, 정말 미안해요.

ㄷ. (사장인 어머니에게) 엄마, 저녁을 함께 못 해 미안해요.
/ 사장님, 회의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ㄹ. 부장 : 사장님, 오늘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장 : 남 부장, 내가 오히려 미안했네.

ㅁ. (약속 시간에 늦어서 친구에게) 길이 너무 막혀서 늦었어.
정말 미안해.

- ① ㄱ : 이 상황에서 ‘죄송하다’ 대신 ‘미안하다’는 쓸 수 없군.
- ② ㄴ : 친한 사이의 상위자에게는 ‘미안하다’도 쓸 수 있군.
- ③ ㄷ : 같은 상대라도 대화 상황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바꿔 쓸 수 있군.
- ④ ㄹ : 상대의 지위에 따라 ‘미안하다’와 ‘죄송하다’를 구별하여 사용했군.
- ⑤ ㅁ : 이 상황에서 ‘미안하다’ 대신 ‘죄송하다’는 쓸 수 없겠군.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08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17-19번

[184~18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은 자음과 모음으로 분절되는 다양한 말소리를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것은 인간의 발음 기관이 특유의 구조와 운용 방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언어마다 말소리의 종류와 수는 다르지만, 말소리를 내는 데 참여하는 신체 기관과 그 기본적인 작동 원리는 같다.

말소리는 생존에 필수적인 여러 신체 기관의 협력 작용에 의해 만들어진다. 입 안의 여러 기관들과 코, 후두, 기관(氣管), 혀와 등이 그것들인데, 이 중 후두는 발성 작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만하다. 후두의 일차적 기능은 공기 외의 이물질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막는 일이기 때문에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그런데 인간의 후두는 갓난아이 시기에는 목구멍과 비슷한 높이에 있다가, 자라면서 서서히 하강하여 더 아래쪽에 자리 잡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같은 영장류인 침팬지나 오랑우탄의 후두는 목구멍 정도의 높이에 있다는 점이다.

후두의 위치는 모음의 발음 및 분화와 직접 관계된다.

[A] 모음은 후두의 안쪽에 있는 목청이 떨리면서 소리 나게 되는데, 이것이 여러 종류로 분화되는 것은 후두 위쪽의 두 공간, 즉 목안과 입안을 울림통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혀의 앞부분을 센입천장에 최대한 가깝게 함으로써 입안을 최소화하고 목안을 최대화하면 ‘i’가 발음되고, 혀를 바깥 쪽으로 빼서 입안을 최대화하고 목안을 최소화하면 ‘a’가 발음되며,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가깝게 함으로써 두 공간의 크기를 비슷하게 하면 ‘u’가 발음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모음은 전설 모음 - 후설모음, 고모음 - 중모음 - 저모음 등으로 분화된다. 한편, 입술도 모음의 분화에 관여하는데, 입술을 오므리고 펴는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나누어진다.

자음은 대개 입술과 입 안의 여러 기관의 작용에 의해 분화된다. 이 기관들은 후두를 통과해 올라온 공기의 흐름을 특정 위치에서 방해하는 작용을 통해 자음의 다양한 소리값을 만들어 낸다. 예를 들어, ‘ㄷ’은 혀끝을 윗잇몸 근처에 대어 공기의 흐름을 일단 막았다가 터뜨리듯 옆으로 내는 파열음이다. 여기서 ‘혀끝 - 윗잇몸’은 이 자음의 조음 위치가 되고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뜨리듯 옆’은 조음 방법이 된다. ‘ㄱ’은 혀의 뒷부분을 여린입천장에 대고, ‘ㅂ’은 두 입술을 닫는다는 점에서 조음 위치는 ‘ㄷ’과 다르지만 조음 방법은 같다. 그밖에도 짝을 이루는 아래 위의 두 기관 사이를 최대한 좁히고 그 사이로 공기를 마찰시켜 내는 마찰음이 있고,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코안을 울려서 내는 비음과, 혀끝을 잇몸에 가깝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공기를 그 양 옆으로 흘러보내는 방법으로 내는 유음도 있다.

184.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모음은 혀의 위치와 입술의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② 자음을 발음할 때에는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작용이 나타난다.
- ③ 언어마다 말소리의 수가 다른 것은 발음 기관 구조의 차이 때문이다.
- ④ ‘마찰음’이나 ‘유음’은 조음 방법상의 특징에 따라 붙여진 이름이다.
- ⑤ 감기에 걸려 코가 막히면 ‘ㄴ, ㄹ, ㅇ’과 같은 비음을 제대로 발음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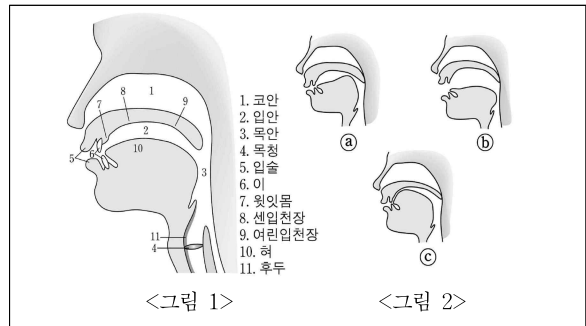
185. [A]와 <보기>의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보 기 >

- 갓난아이의 울음소리에서는 다양한 모음이 발견되지 않는다.
- 침팬지를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 침팬지는 기본 모음인 [i], [a], [u]를 구별하여 발음하지 못했다.
- 화석 인류의 발성 기관을 재구하여 실험한 결과, 불과 몇 개의 모음만이 발생되었다고 한다.

- ① 후두가 목구멍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은 모음이 다양하게 분화되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 ② 갓난아이와 침팬지가 다양한 모음을 발음하지 못하는 이유는 같을 것이다.
- ③ 침팬지나 오랑우탄과 같은 유인원이 다양한 모음을 발성할 수 없는 것은 후천적인 요인에 기인할 것이다.
- ④ 화석 인류의 후두는 현대인에 비해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 ⑤ 인간이 지금과 같은 다양한 말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것은 생물학적 진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186. 윗글을 읽고 ‘구비’라는 단어를 ‘ㄱ-ㅍ-ㅂ-ㅅ-ㅣ’로 나누어 발음한다고 할 때, 자음의 조음 위치를 <그림 1>에서, 모음을 발음할 때의 발음 기관의 모습을 <그림 2>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 ① ㄱ-ㄷ-ㅅ-ㅂ-ㅣ
- ② ㅅ-ㅂ-ㄷ-ㅣ
- ③ ㅂ-ㅅ-ㄷ-ㅣ
- ④ ㅂ-ㅅ-ㅂ-ㅣ
- ⑤ ㅅ-ㅂ-ㅂ-ㅣ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1-33번

[187~18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음절을 많이 활용한다. ‘이야기 - 기상대 - 대리점’으로 이어 가는 끝말잇기 게임이나 ‘붙고기 백반’을 ‘붙백’이라고 하는 것 등은 모두 음절을 바탕으로 한다. 음절은 시에서 운을 맞추거나 랩에서 리듬을 맞출 때에 활용되기도 한다.

사람의 말소리는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으나, 우리는 이것을 음소, 음절 등으로 분절하여 인식한다. 음절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웃한 자음과 모음의 개구도(開口度, 입의 벌림 정도)를 비교하는 소쉬르의 방법을 많이 이용한다. 이 방법에 따라 국어 말소리의 개구도를 7단계로 나누면, 폐쇄음(ㄱ, ㄷ, ㅂ 등)은 0도, 마찰음(ㅅ, ㅆ, ㅎ)과 파찰음(ㅈ, ㅊ, ㅌ)은 1도, 비음(ㅁ, ㄴ, ㅇ[ŋ])은 2도, 유음(ㄹ)은 3도, 고모음(ㅣ, ㅜ, ㅡ, ㅗ)은 4도, 중모음(ㅓ, ㅕ, ㅛ, ㅜ)은 5도, 저모음(ㅘ, ㅚ)은 6도가 된다.

이를 바탕으로 인접한 두 말소리의 개구도를 비교하여, 뒤쪽이 크면 ‘<로, 뒤쪽이 작으면 ‘>’로 부등호를 매겨 나가되, 마지막 말소리는 ‘>’로 닫는다. ‘동대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말소리	ㄷ	ㅗ	ㅇ	ㄷ	ㅘ	ㅗ	ㅓ	ㄴ
개구도	0	5	2	0	6	2	4	2
부등호	<	>	>	<	>	<	>	>

이러한 부등호 배열에서 ‘><’ 모양을 갖는 두 부등호 사이가 음절 경계가 된다. 이 경계를 중심으로 음절을 나누면, ‘ㄷㅇㅇㄷㅘㅗㅓㄴ’이 ‘동-대-문’으로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음절에서 개구도가 가장 큰 말소리가 음절의 핵이 된다. 국어에서 음절의 핵은 언제나 모음이고, 그 앞과 뒤에 자음이 하나씩 올 수도 있으므로, 국어의 음절 구조는 ‘(자음) + 모음 + (자음)’이 된다. 이러한 음절 구조에서 각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과 모음은 제한되기도 한다. 음절 초에는 ‘ㅇ[ŋ]’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음이 올 수 있지만, 음절 말에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ŋ]’ 7개의 자음밖에 올 수 없다. 그리고 음절 초 자음이 ‘ㅈ, ㅊ, ㅌ’ 이면 모음 ‘ㅓ, ㅕ, ㅛ, ㅜ’가 오지 못한다.

국어의 음절에는 모음이 하나씩 있으므로 모음의 수가 곧 음절의 수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이 모든 언어에 통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어와 같이 [n]이나 [l] 같은 자음이 음절의 핵이 되는 언어도 있기 때문이다. 음절 구조가 다른 두 언어가 접촉하면 음절의 수나 구조에 변동이 오기도 한다. 영어에서 1음절인 [sprɪŋ]이 국어에 오면 3음절의 ‘스프링’이 된다. 이런 점에서 발음의 최소 단위인 음절의 구조는 해당 언어의 발음을 지배하는 기본 골격이라 할 만하다.

187.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모음이 변화하는 현상을 중심으로 국어 음절의 특성을 제시하고 있다.
 - ② 특정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말소리가 음절로 나누어지는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 ③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음절이 실생활에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 ④ 국어의 음절 구조를 분석하여 위치에 따라 올 수 있는 요소가 제한됨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언어 접촉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하여 언어에 따라 음절 구조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18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와 같이 국어의 음절을 정의할 때, ㄱ~ㄹ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배열된 것은?

<보 기>

음절은 개구도가 (ㄱ) 모음을 핵으로, 그 앞과 뒤에 개구도가 (ㄴ) 자음이 각각 (ㄷ)까지 올 수 있는 (ㄹ)의 최소 단위이다.

- | | ㄱ | ㄴ | ㄷ | ㄹ |
|---|----|----|----|----|
| ① | 작은 | 큰 | 하나 | 발음 |
| ② | 작은 | 큰 | 둘 | 글자 |
| ③ | 큰 | 작은 | 하나 | 발음 |
| ④ | 큰 | 큰 | 둘 | 글자 |
| ⑤ | 큰 | 작은 | 하나 | 글자 |

189. 윗글로 보아 부등호 배열이 ‘<><>>’의 모양을 가지는 것은?

- ① 가족 ② 다수 ③ 성질 ④ 승부 ⑤ 우정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0-31번

[190~19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학에서 변별적 자질은 두 대상이 어떤 특성에서 구별되는 것을 나타내는 유용한 개념이다. 이것은 본래 음운을 변별하는 데 필요한 음성적 특성을 나타내어 음운 간의 대립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별적 자질은 [+F]나 [-F]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되는데, 이때 'F'는 음성적 특성을, '+/-'는 그러한 특성이 있고 없음을 나타낸다. 예컨대 두 음운 /ㅁ/과 /ㅂ/은 두 입술로([양순성])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공통점이 있으나, 공기가 코를 통과한다는([비음성]) 점에서는 차이를 보이므로 /ㅁ/은 [+양순성, +비음성], /ㅂ/은 [+양순성, -비음성]이라는 변별적 자질들의 묶음으로 표시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면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운들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A가 C 앞에서 B가 되는 형식 (A → B / ___ C)의 음운 동화 현상에서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은 각각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더 나아가 ㉣ 규칙을 적용받기 전의 음과 적용받은 후의 음, ㉤ 규칙을 적용받은 후의 음과 규칙의 환경이 되는 음도 각각 또 다른 하나의 부류를 형성한다. 이때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 음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들)로 표시할 수 있다.

변별적 자질은 일반적으로 +나 -의 양분적인 값을 가지므로, 말소리가 인간의 기억 속에서 범주적인 양상으로 지각되거나 저장된다는 사실을 설명해 준다. 또한 이러한 양분적인 값의 사용은 한 개의 자질을 선택함으로써 동시에 두 개의 정보를 알려 주는 효과, 즉 상호 예측성을 지니므로 정보 전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변별적 자질을 통해 우리는 음운과 음운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190.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음운 간의 대립은 변별적 자질보다는 음성적 특성에 의해 파악될 수 있다.
- ② 음운 현상에서 함께 행동하는 음운들은 공통의 변별적 자질로 표시할 수 있다.
- ③ 하나의 변별적 자질을 알면 해당 음운의 모든 음성적 특성을 알 수 있다.
- ④ 어떤 한 음운은 [+F]이면서 동시에 [-F]인 변별적 자질을 가질 수 있다.
- ⑤ 양분적인 값으로 변별적 자질을 사용하면 정보 전달의 효율이 낮아진다.

191. 윗글을 참고할 때, <보기>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비음성]의 A가 [+비음성]의 C 앞에서 [+비음성]의 B가 되는 자음 동화 규칙과 그 실례는 다음과 같다.

【규칙】	A → B / ___ C
【실례】	ㄱ → ㅇ / ___ ㅁ 국물 [국물]
	ㄴ → ㄴ / ___ ㅁ 만머느리 [만머느리]
	ㅂ → ㅁ / ___ ㄴ 읍내 [읍내]

- ① ㉠에 해당하는 ‘ㄱ, ㄴ, ㅂ’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② ㉡에 해당하는 음운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는군.
- ③ ㉢에 해당하는 ‘ㄴ, ㅁ’은 공통적으로 [+비음성]을 갖는군.
- ④ ‘읍내’에서 ㉣에 해당하는 ‘ㅂ’과 ‘ㅁ’은 공통적으로 [+양순성]을 갖는군.
- ⑤ ‘국물’에서 ㉤에 해당하는 음운들은 비음성을 기준으로 하나의 부류를 형성하지 못하는군.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33-35번

[192~19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교 언어학은 언어 간의 친족 관계를 밝히고, 친족 관계가 확인된 언어들의 조어(祖語, 조상 언어)를 추정하며, 각 언어들이 조어에서 분화된 후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비교 언어학을 통해 세계의 언어를 여러 어족(語族)으로 나눌 수 있고, 문자로 기록되기 이전 언어의 모습에 대해서도 알 수 있으며, 한 언어의 역사도 알아볼 수 있다.

언어 간의 친족 관계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언어들 사이에 널리 혹은 우연히 존재할 수 있는 유사성이 아니라 그들이 친족이기 때문에 공유할 수밖에 없는 체계적인 유사성이 있음을 밝혀내어야 친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비교 언어학에서는 비교 방법이라는 방법론을 개발해 내었다. 비교 방법에서는 음운 대응 규칙을 중시한다. 음운의 대응이란 겉거나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 사이에서 한 언어의 특정 음운이 다른 언어의 특정 음운에 대응하는 것이다. 친족 관계가 증명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음운의 대응이 규칙적으로 나타나야만 한다. 가령 다음과 같은 언어들이 있다고 하자.

	봄	불	하나	
A 언어	tom	tel	tark	……
B 언어	som	sel	sark	……

위의 예에서 우리는 A 언어와 B 언어 간에 보이는 /t/ ↔ /s/의 대응을 통해 이들 언어 간에 음운 대응의 규칙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음운의 대응은 언어의 변화가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임을 말해 준다.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면 각 어족에 속한 언어들을 상호 비교하여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인도-유럽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에서 ‘아버지’를 뜻하는 단어의 예를 보자.

산스크리트어	pitár
라틴어	pater
고대 영어	fæder

이들을 비교해 보면 첫 자음이 산스크리트어와 라틴어에서는 /p/로, 고대 영어에서는 /f/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오래된 형태가 더 조어에 가까우므로 이들의 기원은 /p/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나머지 음들을 추정하여 언어학자들은 이 단어의 조어가 ‘pater’였을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이 비교 방법을 사용하여 조어를 추정하는 것을 ㉠ 외적 재구라 한다.

한편 한 언어의 자료만을 가지고 그 언어의 옛 모습을 추정하는 것을 ㉡ 내적 재구라 한다. 언어는 변화 과정에서 시간적·공간적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이 흔적을 통해 언어의 변화 과정을 복원하여 그 변화가 일어나기 전의 어형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일반적으로 시간적 흔적은 문헌을 통해, 공간적 흔적은 방언을 통해 확인된다. 한 언어 안에서 어떤 단어의 어형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존재할 때 외적 재구보다 내적 재구를 사용하게 된다.

192. 윗글로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해당 언어들의 친족 관계가 확인된 후에 그 언어들의 조어를 추정할 수 있다.
- ② 조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그 언어의 가장 오래된 어형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 ③ 한 언어에서 과거와 현재의 단어를 비교하여 더 오래된 어형을 추정하는 것은 내적 재구에 해당한다.
- ④ 비교 방법을 적용할 때 대부분의 언어에서 ‘어머니’를 뜻하는 말에 /m/이 들어 있는 것과 같은 유사성은 배제해야 한다.
- ⑤ 친족 관계에 있는 언어 간에 음운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이들이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이후 동일한 규칙에 따라 변화했기 때문이다.

193. ㉠보다 ㉡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한 경우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a. 단어들의 방언형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경우
b. 다른 언어와의 친족 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경우
c. 조어로부터 갈라져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

- ① a
- ② b
- ③ c
- ④ a, b
- ⑤ a, c

194. 윗글을 참조하여 <보기>의 자료에 대해 탐구한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국어	pom (봄)	pul- (불다)	pil- (빌다)
만주어	fom (계절)	fulgije (불다)	firu- (빌다)
몽고어	hon (년)	hülie- (불다)	hirüer- (빌다)

- ① 국어의 ‘pom’과 몽고어의 ‘hon’을 보니 그 조어는 ‘phom’이 겠군.
- ② 만주어의 /f/가 몽고어의 /h/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이 두 언어는 친족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있겠군.
- ③ 국어의 ‘pil-’과 만주어의 ‘firu-’를 보니 국어의 /l/이 만주어의 /r/에 대응하는 음운 대응의 규칙이 있음을 알 수 있군.
- ④ 국어의 /p/가 만주어의 /f/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만주어가 국어보다 예전의 모습을 더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군.
- ⑤ 만주어의 /m/이 몽고어의 /n/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조어에서 갈라져 나온 후 /n/이 /m/으로 바뀌는 음운 변화가 일어났겠군.

평가원 기출문제 총집합

2010학년도 9월 모의평가 언어영역 33-35번

[195~19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우리말 단어의 발음 기호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길동’이라는 지명을 적기 위하여 ‘吉’[길]과 ‘同’[동]을 끌어와 ‘吉同’으로 적고 [길동]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음차 표기’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뜻, 다시 말해서 훈(訓)을 빌려와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粟’[밤 울]의 훈으로 [밤]을 나타내고, ‘峴’[고개 현]의 훈으로 [고개]를 나타내어, ‘粟峴’으로써 우리말의 [밤고개]를 표기하는 것이다. ‘粟峴’을 [울현]이라 읽지 않고 [밤고개]로 읽는 이 방법은 한자의 뜻, 즉 훈(訓)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훈차 표기’라 한다.

이러한 단어 중심의 한자 차용 표기는 점차 두 단계에 걸쳐 문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문장 표기의 1단계는 ‘我愛汝’([아에어], 나 사랑 너)와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중국어식 어순을, ‘我汝愛’[나 너 사랑]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였다. 1단계는 점차 명사와 용언 어간에 각각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는 2단계로 이어졌다. 2단계에 속하는 향가 표기, 즉 향찰은 ‘我愛汝’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我隱 汝乙 愛爲隱如’([아은 여을 애위은여], 나는 너를 사랑 하-다)와 같이 상당히 체계화된 문장 표기 모습을 보여준다. 향찰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대체로 뜻이 중요한 명사나 용언 어간은 ‘훈차’를 하고,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함으로써, 한 어절의 표기가 ‘훈차+음차’라는 일반적인 원칙을 갖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역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까지 계승하여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새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자 차용 표기를 알고 있던 세종대왕은 왜 일본과 달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우리말이 갖는 음절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찾는다. 일본어는 음절이 간단하여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50개 정도면 충분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곳], [단]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개 이상이 필요하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195. 윗글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것은?

- ① 훈차에서 한자 한 글자는 우리말 음절 하나와 대응되었다.
- ② ‘愛爲隱如(사랑하-다)’의 ‘爲(할 위)’는 훈차 표기 방법을 따랐다.
- ③ [곳], [단]과 같은 음절은 한자 한 글자로 음차 표기할 수가 없었다.

- ④ ‘坪村’을 [평촌]으로 읽으면 음차가 되고, [벌말](벌마을)로 읽으면 훈차가 된다.
- ⑤ 한자 차용 표기는 ‘단어 표기 → 문장의 어순 조정 → 조사와 어미의 첨가’ 순서로 전개되었다.

196.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훈민정음의 창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향찰에서 보조 성분의 어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 ② 한자 차용 표기가 고려 시대 이후에는 사용되지 않아서
- ③ 한자로는 조사나 어미의 문법적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없어서
- ④ 한자 차용 표기로는 우리말의 소리를 충분히 표기할 수 없어서
- ⑤ 한자 차용 표기에서 음차는 문제가 없었지만, 훈차는 문제가 많아서

197. <보기>의 설명 중, 윗글로 미루어 타당한 것끼리 묶인 것은?

<보 기>

ㄱ. 고대에 우리말과 중국어의 발음은 달랐으나 어순은 비슷했다.

ㄴ. 어떤 언어 공동체의 문자와 표기는 그 공동체의 언어 특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ㄷ. 한자 차용 표기에서 ‘훈차+음차’ 표기의 단위는 현대 국어 맞춤법의 띄어쓰기 단위와 관련이 깊다.

ㄹ. 현대 일본의 문자와 표기는 그들의 한자 차용 표기를 계승한 것이므로 향찰과는 공통점을 거의 찾을 수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198. <보기>의 우리말을 영어와 국어 로마자 표기법을 활용하여 향찰과 같은 방식으로 적어서 읽는다고 할 때, 쓰기와 읽기의 방법이 올바른 것은?

<보 기>

[나는 너를 사랑한다]

* 국어 로마자 표기법

ㄴ	ㄷ	ㄹ	ㅂ	ㅅ	ㅇ	ㅎ	ㅏ	ㅑ	ㅓ	ㅡ	ㅣ
n	d	r, l	b	s	ng	h	a	eo	yu	eu	i

- ① I-neun YOU-reul LOVE-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 ② na-neun neo-reul sarang-handa [I-neun YOU-reul LOVE-handa]
- ③ I-neun LOVE-handa YOU-reul [I-neun LOVE-handa YOU-reul]
- ④ ai-neun yu-reul reobeu-handa [na-neun neo-reul sarang-handa]
- ⑤ I-neun YOU-reul LOVE-handa [ai-neun yu-reul reobeu-handa]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언어영역 37-39번

[199~20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날 단일어로 여겨지는 ‘두더지’는 본래 두 단어가 결합한 말이다. ‘두더’는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샅샅이 들추거나 헤친다는 뜻을 지닌 동사 ‘두디다’(>뒤지다)에서 왔으며, ‘지’는 ‘쥐’가 변화된 것이다. 따라서 두더지는 ‘뒤지는 쥐’라는 뜻을 갖는 합성어였다.

‘뒤지는 쥐’라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만 ‘뒤지쥐’라고 하면 어색하게 느껴진다. 그것은 ‘뒤지쥐’가 마치 ‘달리는 차’를 ‘달리차’라고 하는 것과 같이 때문이다. ‘뒤지는 쥐’나 ‘달리는 차’는 국어에서 단어가 둘 이상 결합된 단위인 구(句)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구를 만드는 이러한 방법은 합성어를 만드는 데에도 적용된다. 체언과 체언이 결합한 ㉠ ‘호두과자’, 관형사와 체언이 결합한 ‘한번’, 부사와 용언이 결합한 ‘잘생기다’, 용언의 관형사형과 체언이 결합한 ㉢ ‘된장’, 체언과 용언이 결합한 ‘낮설다’, 용언의 연결형과 용언이 결합한 ‘접어들다’ 등은 구를 만드는 것과 같은 방법을 따라 만들어진 합성어들로 이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반면에 이런 방법을 따르지 않고 만들어진 합성어들도 있다. 두 개의 용언 어간끼리 결합한 ㉡ ‘오르내리다’와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한 ㉣ ‘땀상’이 그 예이다. 또한 ‘깨끗하다’의 ‘깨끗’과 같이 독립적인 쓰임을 보이지 않는 어근인 ‘어둑’에 체언이 결합한 ㉤ ‘어둑새벽’, 그리고 ㉦ ‘귀엣말’과 같이 부사격 조사 ‘에’와 관형격 조사였던 ‘ㅅ’의 결합형이 포함된 단어 등도 구를 만드는 방법을 따르지 않는 경우이다. 이러한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고 한다.

‘두더지’는 본래 용언 어간에 체언이 직접 결합하였으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두디쥐>두더지’의 어형 변화로 이제는 이것이 합성어였음을 알아차리기 쉽지 않다. ‘숫돌’ 또한 본래 용언 ‘뿔다’(비비다)의 어간에 체언 ‘돌’이 직접 결합하여 만들어진 비통사적 합성어였다. 그러나 ‘뿔>숫’의 형태 변화와 더불어 동사 ‘뿔다’의 소멸로 이 단어의 원래 짜임새를 알기 어렵게 되었다.

199.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본래 단일어였던 ‘두더지’는 현재 합성어로 인식된다.
- ② 결합되는 단어의 수는 합성어의 유형 구분에 기준이 된다.
- ③ 구(句)와 합성어가 만들어지는 방식에는 서로 차이가 없다.
- ④ ‘숫돌’을 형성했던 용언은 품사가 바뀌는 언어 변화를 겪었다.
- ⑤ 언어 변화는 단어의 짜임새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200. <보기>와 ㉠을 통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5세기] 그 새 거우루엣 제 그르멜 보고 (『석보상절』 권 24)
 [오늘날] 그 새가 거울에 있는 제 그림자를 보고

- ① ‘귀엣말’의 ‘귀엣’과 ‘거우루엣’은 그 짜임새가 같군.
- ② 15세기에는 ‘거우루엣 그르멜’과 같은 구성도 자연스럽게 쓰였겠군.
- ③ 15세기라면 ‘귀엣’과 ‘말’ 사이에 다른 말이 들어가 구(句)가 만들어질 수도 있었겠군.
- ④ ‘거우루엣’의 ‘엣’은 오늘날 ‘귀에 걸다’의 ‘에’와 같은 기능을 하는군.
- ⑤ ‘귀엣말’이 15세기에 합성어였다면 통사적 구성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 시대에 따라 다른 유형의 합성어로 이해될 수 있겠군.

201. 다음과 같이 가상의 순화어를 만들 때, ㉠~㉣의 합성어 형성 방법을 잘못 적용한 것은?

바꿀 말	재료가 되는 말	방법	가상의 순화어	
샤프펜슬	○ 가락 ○ 빼빼하다 ○ 연필	㉠	가락연필	…… ①
		㉡	빼빼한연필	…… ②
스캔하다	○ 읽다 ○ 갈무리하다	㉢	읽어갈무리하다	…… ③
스파게티	○ 부드럽다 ○ 새콤달콤하다 ○ 국수	㉣	부드럽국수	…… ④
		㉤	새콤달콤국수	…… ⑤